

연구보고서-2021-04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최상미·조자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본 보고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연구기관명 : 동국대학교
연구책임자 : 최 상 미
공동연구원 : 조 자 영

연구보조원 : 이 혜 인
설 소 회

요 약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저축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하여 추가 저축을 지원하고, 자신의 저축액과 정부의 매칭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여 마련된 자산(목돈)을 주거, 교육, 창업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써,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특정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대체로 근로빈곤층의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거나, 보편적 제도로써 아동의 교육, 자립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음
- 2018년에는 만 15세~34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0%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에는 만 15~39세로 대상이 확대되고, 이어 2020년에는 만 15~39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됨. 또한 2020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위해 ‘청년저축계좌’가 도입되었음.¹⁾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칭 비율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청년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 및 고실업의 장기화로 점차 안정적인 일자리를 성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로 인해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아가,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초기실직 청년이나 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즉 청년들은 급속히 불안정화, 이중화 되어가고 있는 노동 시장의 주 희생자로서 안정된 일자리의 성취와 나아가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전통적 사회

1) 2022년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 운영될 예정임

적 취약계층이 아닌 탓에 청년 대상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청년들의 빈곤 탈피와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빈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잠재력을 가짐. 실제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참여자의 빈곤 탈피, 저축 증가, 재무관리역량 증가, 경제적 상황 개선, 정서적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보고해 옴
-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3차 패널 구축 사업으로, 1, 2차 패널에 이어 3차 패널을 구축하고 참여자들의 변화를 추적 조사함. 이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참여자에게 심리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고용 역량 및 지위, 미래에 대한 인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교하게 파악함으로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청년 대상 지원 제도, 국내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문헌 및 선행 연구 검토
- 패널구축을 위한 조사표 검토 및 보완
 - 3차 패널 조사표에 보완한 지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려하여 근로형태 재구성, 고용장벽 척도에 4개 문항 추가(적성파악 어려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의 어려움,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잇따른 실패로 도전에 대한 두려움 등)
 - 3차 패널 조사표에 신규 추가한 지표: 지난 2년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진로행동(상위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외국어능력 향상, 진로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다양한 활동참여, 수상, 인턴 등 직무 경험, 기타), 홍보채널(포털사이트 광고, SNS, Youtube, 블로그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홍보, TV라디오 등 방송홍보, 팜플렛 활용 홍보, 학교를 통한 홍보,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기타), 우울(CES-D)(Radloff, 1977)
- 설문조사
 - 청년희망키움통장 패널 대상 3차 설문조사 실시
 - 2021년 신규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사업 성과 도출
 -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응답자와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비교 분석

-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해지 유형 구분에 따른 비교 분석
-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2차 3차 연속응답 패널 시계열 분석
- 근로형태에 따른 3차 패널 분석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 모색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임

○ 문헌연구

- 국내 청년 대상 지원정책 현황
- 국내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 검토

○ 설문조사

- 3차 패널 구축.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패널 72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2021년 신규 가입 청년 3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분석방법

-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

□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 청년 대상 지원정책

- 현재 중앙정부는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코로나19의 6가지 영역에서 270개의 청년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²⁾.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지원 영역의 교육훈련·체험·인턴,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해외진출 사업이 154개, 창업지원 영역의 R&D 지원, 경영지원, 자본금 지원 사업이 34개, 주거·금융 영역의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주

2)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시: 2021. 08. 27 오전 1:40 기준. 부처별 중복 사업은 재분류함.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 영역의 '소득 및 일자리 보전'과 <취업지원>의 '교육훈련체험인턴' 유형으로 중복되는 사업이나,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취업지원으로 분류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영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원'유형은 청년 지원 정책의 성격과 거리가 멀어 삭제하였음. 취업지원 영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하반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중 청년의 연령과 거리가 먼 사업은 삭제하였음.

거지원, 학자금 지원 사업이 50개, 생활·복지 영역의 건강, 문화 사업이 5개, 정책참여 영역의 정책제안, 권리보호, 지역발전 사업이 8개, 코로나19 영역의 저소득층지원, 소득 및 일자리보전, 기타 인센티브, 심리지원 사업이 19개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청년 정책 270개 중, 취·창업 지원이 188개로 약 70%를 차지함. 즉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다차원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를 가짐

○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장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있음. 중앙정부 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와 함께, 지자체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 내용을 비교, 검토함.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 대상 청년 연령. 중앙정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연령대는 다소 상이함.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만 18세~34세 청년을, 중앙정부는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사업이 보다 청년을 폭넓게 개념화하고 있음
- 저축액 및 지원액 수준. 본인 저축액과 지원액은 10~15만 원 선으로 비슷한 정도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서울시가 15만 원의 다소 높은 수준의 본인 저축액과 지원액 가입이 가능함
- 매칭비율.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 1:1 매칭인데 비해 중앙정부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1:3의 매칭비율을 가짐. 이는 중앙 정부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청년 등 보다 빈곤한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보통 2~3년임. 경기도는 2년, 서울시는 2, 3년 중 선택가능하며, 중앙정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3년을 가입기간으로 함
-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 대체로 금융재무교육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사례관리를,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노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통장사업 사례관리 전담인력 31명을 기존의 복지기관 및 청년센터 등(종합복지관 27명, 장애인복지관 1명, 지역자활센터 2명, 협동조합 1명 등에 사례관리

자 31명을 배치)에 추가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연구 방법

○ 사업성과 분석틀

-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경제적 현황(소득·저축·부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지출, 주거, 진로관련 수행활동 및 예상진로, 사회활동 참여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업성과지표로 포함시켰음. 또한 심리·정서적 요인, 재무관리 요인,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사회적 요인과 같은 주관적 지표도 사업성과지표로 포함함. 마지막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현황, 사업만족도, 애로사항 및 개선점, 희망 서비스의 수요,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후 지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비중과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함

○ 조사 대상

- 본 연구는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를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함. 표집은 조사대상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사업참여자 리스트를 받아 무작위추출 중 체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2019년 패널 구축 시점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중 2018년 가입한 4,106명 중 중도 해지한 354명을 제외한 3,752명을 모집단으로 함. 체계적 표집을 통해 패널 참여에 동의하고 1차 패널 조사에 참여한 720명을 패널로 선정함.
-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신규 참여자 887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추출 중 체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56명이 조사에 참여함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31일 약 3주간

○ 분석방법: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등

○ 연구윤리: IRB 승인받음(승인번호 DUIRB-202109-02)

□ 연구 결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인 3차 패널 523명과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356명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패널 응답자의 근로 상황 및 역량, 경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 미래에 대한 전망이 신규 응답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를 추정하게 함
 - 근로 상황 및 역량과 관련하여 패널 응답자의 자격증 보유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사무종사자 및 전문가 비율, 4대보험 가입율이 모두 신규 응답자에 비해 더 높음
 -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패널 응답자의 근로소득, 저축액, 월평균 상황액, 총 생활비가 신규 응답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과 관련하여 패널 응답자의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재무관리역량은 신규응답자에 비해 높았던 반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낮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신규 응답자가 패널 응답자보다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인 3차 패널 523명을 해지 유형 구분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급해지자들의 근로 상황 및 역량, 경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 미래에 대한 전망, 심리정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 상황과 관련하여 3차 패널의 해지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급해지를 한 참여자의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며 근로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근로 역량이 가장 높으며 근로 지위가 안정적이었던 지급해지 집단에서 근로소득,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생활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 집단 순으로 나타남
 -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급해지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일부지급해지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부지급해지자 집단의 경우 진로계획 지도와 함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한 동기 부여 등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함
 - 심리정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높고 일부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우울은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6점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지원 금액의 수준과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사업만족도의 모든 차원에서 환수해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으며, 지급해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환수해지 및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전체 2/3 이상의 청년들이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을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급해지자 집단은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과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를 개선점으로 제안함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1차, 2차, 3차 연속응답 시계열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고용, 경제적, 심리정서적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근로 및 고용 상황과 관련하여, 연속응답 패널의 상용근로자 및 전일제 근로비율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함. 사회보험 가입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청년들의 근로 및 고용 지위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근로 및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연속응답 패널의 근로소득 또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근로소득이 월평균 약 27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의 증가와 함께 월평균 저축액, 부채 상환액 및 생활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과 관련하여, 연속응답 패널의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은 향상한 반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들의 근로 지위가 실제로 개선되고, 소득이 향상하면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금융이해력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더욱 낮아져 저소득 청년들의 금융지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함
- 심리정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들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자아존중감, 행복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그 결과, 자존감은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함. 반면 행복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상승함

-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패널 1, 2차에 비해 3차 년도에 다소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의 참여는 미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다소 기여함을 추정할 수 있음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인 3차 패널 523명을 근로 형태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용직 집단의 근로 상황 및 역량, 경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일용직 집단 등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 상황 및 역량과 관련하여 상용직 집단의 자격증 보유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사무종사자 및 전문가 비율, 4대보험 가입율이 모두 신규 응답자에 비해 더 높아 고용 지위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상용직 집단의 근로소득, 저축액, 월평균 상환액, 총 생활비가 그 외 일용직 집단 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상황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과 관련하여 상용직 참여자의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재무관리역량은 그 외 근로 형태 집단에 비해 높았던 반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낮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또한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동기 부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 및 제언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성과와 정체성

본 연구에서 1, 2, 3차 패널 분석 및 신규 가입자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참여자의 70%가 넘는 수준의 높은 탈수급률 및 만기 성공률

둘째, 참여자의 고용 지위 개선

셋째, 경제적 상황 개선

넷째, 경제적 여건, 재무역량,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다섯째, 미래에 대한 생각과 준비 정도 향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근로 지위, 경제적 상황, 주거 상황 개선, 인적자본 향상 등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에 기여하는 사업

둘째, 탈수급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이자 기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개선점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의 반영

청년희망키움통장 1, 2, 3차 패널 연구에서 제안되어 온 개선안들이 상당부분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통합하여 2022년부터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반영됨

사업 내용 및 지원 확대, 생계급여 탈수급 기준 폐지, 근로유지 조건 완화, 사용용도증빙 완화 및 폐지, 군입대의 근로 인정, 저축금액 및 기간 다양화, 특정 사유에 한해 자기적립금 인출을 가능케 하거나 소액 대출 앞선연계,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통합운영 방식으로의 구조 조정 및 개편, 금융교육 등 부가 서비스 제공 중 저축금액 및 기간 다양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2022년부터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반영됨. 군입대의 경우 근로 인정은 방식은 아니나 적립중지 기간을 2년 부여함으로써 통장을 지급해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제언

이에 본 연구는 연구 결과로부터 향후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군입대 시 2년간 적립중지와 함께 통장을 유지하여 3년을 만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저축금액 및 기간 다양화, 심리상담 및 재무상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안함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3. 연구 수행 체계	20
II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21
1.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제도	23
2.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28
III 연구방법	35
1. 사업성과 분석틀	37
2. 조사 방법	48
IV 분석결과	53
1.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및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조사 분석 개요	55
2. 청년희망통장사업 3차 패널 및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특성	55
3.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응답자와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비교 분석 결과	58
4.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해지 유형 구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71
5.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2차, 3차 연속응답 패널 시계열 분석 결과	83
6. 근로형태에 따른 3차 패널 참여자 분석	110
V 결론 및 제언	127
1. 분석 결과 정리	129
2. 청년희망키움통장 성과	141
3.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역할	148
4.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제언	151
참고문헌	163
부록	169

표목차

〈표1-1〉 중앙정부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	6
〈표1-2〉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	8
〈표1-3〉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	13
〈표1-4〉 본 연구의 목차 구성	16
〈표1-5〉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포함된 지표	18
〈표2-1〉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유형과 세부 사업명	24
〈표2-2〉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역의 예	28
〈표2-3〉 중앙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서울시·경기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개요	32
〈표3-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40
〈표3-2〉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	41
〈표3-3〉 주관적 지표: 재무관리 요인	42
〈표3-4〉 주관적 지표: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43
〈표3-5〉 주관적 지표: 사회적 요인	44
〈표3-6〉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문항	46
〈표3-7〉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관련	47
〈표3-8〉 자산형성지원사업 1-3차 패널 조사 개요	49
〈표4-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56
〈표4-2〉 응답자 가구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57
〈표4-3〉 근로 및 고용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59
〈표4-4〉 4대보험 가입 여부: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0
〈표4-5〉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0
〈표4-6〉 COVID19로 인한 영향: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1
〈표4-7〉 소득 및 자산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2
〈표4-8〉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3
〈표4-9〉 주거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3
〈표4-10〉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4
〈표4-11〉 1년 뒤 예상 진로: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5
〈표4-12〉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6
〈표4-13〉 심리정서적 상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6
〈표4-14〉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7
〈표4-1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7
〈표4-16〉 사업 포기 고려 이유: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8
〈표4-17〉 해지자의 해지 이유(중복응답):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9

〈표4-18〉 참여자가 제안하는 통장 사업 개선점: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69
〈표4-19〉 해지자가 제안하는 통장 사업 개선점: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70
〈표4-20〉 참여자의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70
〈표4-21〉 근로 및 고용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2
〈표4-22〉 4대 보험 가입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3
〈표4-23〉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4
〈표4-24〉 COVID19로 인한 영향: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5
〈표4-25〉 소득 및 자산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6
〈표4-26〉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6
〈표4-27〉 주거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7
〈표4-28〉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8
〈표4-29〉 1년 뒤 예상 진로: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9
〈표4-30〉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79
〈표4-31〉 심리정서적 상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80
〈표4-32〉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81
〈표4-33〉 사업만족도: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82
〈표4-34〉 해지자가 제안하는 개선점: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82
〈표4-35〉 연속응답 패널의 일반적 현황	84
〈표4-36〉 연속응답 패널의 가구 현황	85
〈표4-37〉 근로 및 고용 현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86
〈표4-38〉 4대 보험 가입 여부: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88
〈표4-39〉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88
〈표4-40〉 연속응답 패널의 고용희망, 고용장벽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89
〈표4-41〉 COVID19로 인한 영향: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89
〈표4-42〉 소득 및 자산 현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91
〈표4-43〉 연속응답 패널 소득 및 자산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92
〈표4-44〉 연속응답 패널 소득 및 자산의 변화	93
〈표4-45〉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94
〈표4-46〉 연속응답 패널의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94
〈표4-47〉 연속응답 패널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의 변화	95
〈표4-48〉 주거 현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96
〈표4-49〉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97
〈표4-50〉 연속응답 패널의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98
〈표4-51〉 연속응답 패널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의 변화	98
〈표4-52〉 1년 뒤 예상 진로: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99
〈표4-53〉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0

〈표4-54〉 연속응답 패널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100
〈표4-55〉 연속응답 패널 진로행동의 변화	100
〈표4-56〉 심리정서적 상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1
〈표4-57〉 연속응답 패널의 자아존중감, 행복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102
〈표4-58〉 연속응답 패널 자아존중감의 변화	102
〈표4-59〉 조사대상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3
〈표4-60〉 연속응답 패널 사회적자본, 가족지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103
〈표4-61〉 사업만족도: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4
〈표4-62〉 연속응답 패널 사업만족도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104
〈표4-63〉 연속응답 패널 사업만족도의 변화	105
〈표4-64〉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해지 여부 및 유형: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5
〈표4-65〉 참여자의 사업 포기 고려 이유: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6
〈표4-66〉 해지자의 해지 이유: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7
〈표4-67〉 참여자가 제안하는 사업 개선점: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8
〈표4-68〉 사업 참여자의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109
〈표4-69〉 근로 및 고용 현황: 근로형태 구분	111
〈표4-70〉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형태 구분	112
〈표4-71〉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근로형태 구분	112
〈표4-72〉 COVID19로 인한 영향: 근로형태 구분	113
〈표4-73〉 소득 및 자산 현황: 근로형태 구분	115
〈표4-74〉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근로형태 구분	116
〈표4-75〉 주거 현황: 근로형태 구분	117
〈표4-76〉 경제적 상황 인식: 근로형태 구분	118
〈표4-77〉 1년 뒤 예상 진로: 근로형태 구분	119
〈표4-78〉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근로형태 구분	119
〈표4-79〉 심리정서적 상황: 근로형태 구분	120
〈표4-80〉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근로형태 구분	121
〈표4-81〉 사업만족도: 근로형태 구분	121
〈표4-82〉 해지 유형: 근로형태 구분	122
〈표4-83〉 참여자의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근로형태 구분	122
〈표4-84〉 해지자의 해지 이유: 근로형태 구분	123
〈표4-85〉 참여자가 제안하는 개선점: 근로형태 구분	123
〈표4-86〉 참여자의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근로형태 구분	124
〈표4-87〉 참여자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홍보방법: 근로형태 구분	125
〈표5-1〉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인 패널의 유지 및 해지 유형 현황 및 사유	142
〈표5-2〉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 및 만기 성공 비율	143

〈표5-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	152
〈표5-4〉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 제안과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의 반영 내용	158
〈표5-5〉 청년희망키움통장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과 2022년 시행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부가 서비스 시행 계획	162

그림목차

[그림4-1] 연속응답 패널 소득 및 자산의 변화	93
[그림4-2] 연속응답 패널 개인 부채 부담 및 가족 부양 부담의 변화	95
[그림4-3] 연속응답 패널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의 변화	98
[그림4-4] 연속응답 패널 진로행동의 변화	101
[그림4-5] 연속응답 패널 자아존중감 변화	102
[그림4-6] 연속응답 패널 사업만족도의 변화	105
[그림5-1]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	154

I 연구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수행 체계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자산형성지원사업(개인개발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개인발달계좌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저축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하여 추가 저축을 지원하고, 자신의 저축액과 정부의 매칭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여 마련된 자산(목돈)을 주거, 교육, 창업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임(Sherraden, 1991). 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특정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0년 이래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시작으로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옴

(2)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와 동향

Sherraden(1991)이 제도적 저축이론을 바탕으로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를 제안한 이래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도입, 확대되어 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임

첫 번째 유형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IDAs,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 등이 이 유형에 속함.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미국의 IDA 사업으로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전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이기도 함.

미국의 IDA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제안하는 빈곤선 200% 이하의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1:1 또는 1:2 매칭율을 적용하여 개인적립액에 정부지원액을 매칭하는 형태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간 계좌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목돈 형성을 지원함. 적

립액은 주거, 교육, 직업훈련, 창업, 은퇴자금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교육에 일정 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함의 소득과 \$3,000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 다만 1:3의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편이며, 2년 간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신탁으로 보관되는 적립액을 저축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출가능한 형태로 운영됨. 저축 용도는 교육 및 직업훈련, 창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의 금융교육과 사례관리에의 참여가 의무임

두 번째 유형은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로 국가에 따라 저소득 가구 혹은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함. 미국의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SEED), 영국의 Child Trust Fund,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ISA), Saving gateway, 싱가포르의 Child Development Accounts 등이 이 유형에 속함.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선별적 형태인데 비해, 아동발달계좌는 출생과 함께 모든 아동이 정부가 부여하는 계좌를 가지게 되고 아동청소년기에는 보호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이 저축을 하고 정부가 일정 수준 지원하여 적립한 후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편적 형태로 제안됨.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 아동 및 취약 아동 대상의 선별적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발달계좌별로 저축용도를 지정하기도 지정하지 않기도 하며 저축용도가 지정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역에 따라 학자금, 노후자금 등으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음

아동발달계좌의 사례로서 영국의 Junior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는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사업 중단 이후 대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영국의 모든 아동들이 아동신탁기금을 열도록 함. 아동신탁기금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입금만 가능하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함. 특별히 저축용도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함

이처럼 해외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대체로 근로빈곤층의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거나, 보편적 제도로써 아동의 교육, 자립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음

(3) 우리나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도입과 확대 추진 현황

우리나라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07년 시설보호아동을 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됨. 아동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발달계좌의 성격을 가지는 ‘디딤씨앗통장’ 사업 시행 이후 2010년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3년 이후 사업 종료 시 탈수급을 조건으로 수급하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도입됨.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후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사업, 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확대됨

더하여 2018년에는 만 15세~34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0%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에는 만 15~39세로 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만 15~39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됨

한편, 2020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가 도입되었음. 2022년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통합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행 예정이며,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기부담금 대비 지원액 매칭율이 1:3으로 높음

또한 최근 노동시장의 경직과 경기침체 및 고실업의 장기화로 안정된 일자리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증가함. 이에 보건복지부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함. 현재 도입 5년을 맞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만 15~34세(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중소기업 생애 최초 취업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인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하여 2년후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임. 그 외에도 통일부에서는 3개월 이상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미래행복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아래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은 시설보호아동, 근로빈곤층, 저소득 근로빈곤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기 개발을 통한 빈곤 탈피와 빈곤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옴

〈표1-1〉 중앙정부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명	도입년도	사업시행부처	대상
디딤씨앗통장	2007	보건복지부	시설보호아동
희망키움통장Ⅰ	2010	보건복지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내일키움통장	201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참여자
희망키움통장Ⅱ	2014	보건복지부	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희망키움통장	2018	보건복지부	일하는 만 15세~39세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
청년저축계좌	2020	보건복지부	일하는 만 15세~39세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16	고용노동부	만 15~34세(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중소기업 근로 청년
미래행복통장	2015	통일부	18세 이상 일하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2015년 이래 중앙정부 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과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며 지자체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다음 <표 1-2> 참조).

서울시의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009년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꿈나래통장’ 사업을 도입함. 이후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내용 및 대상이 중복되어 폐지함. 반면 2017년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1년 현재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꿈나래통장’, 광주시의 ‘청소년한부모 더불어행복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함.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경기도가 2015년에 가장 먼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시작하였고 서울시가 이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을 시작함

다양한 지자체형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 15세~39세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 청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는 대체로 본인 저축액 10만원이나 15만원에 대해 지자체가 1:1로 매칭하는 형태이며, 다만 중복의 경우 결혼장려를 목적으로 매월 30만원의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지원금을 제공함. 납입기간은 대부분 2~3년이며, 서울은 2년과 3년 중에 선택 가능함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생계 수급 가구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청년 3차 패널 구축을 목적으로 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저축액을 의무화하고 그에 대비하여 매칭금액을 부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달리 본인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됨. 또한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유지하고³⁾,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탈수급을 해야한다는 수급 조건을 가짐으로써 탈수급을 독려하고자하는 정책 의도를 가짐

3) 사업 참여기간 동안 근로 유지를 조건으로 하나, 실직 및 이직의 상황을 고려하여 3년의 사업 참여기간 중 최대 3회, 6개월 동안의 근로 중지 기간을 허용함(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표1-2〉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자체	사업명	대상	조건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근로청년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 하
	꿈나래통장	서울시 거주 만14세 이하 자 녀를 키우는 가구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 하
	희망플러스통장	서울시 거주 차상위계층 근 로자	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희망키 움통장II 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경기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근로청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시 거주 만15세~34세 근로청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전	행복나눔 청년희망 통장	대전시 거주 만18세~39세 근로청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전남	청년희망디딤돌 통 장	전남 거주 만18세~39세 이 하 근로청년	본인 근로소득 월평균 200만원 이하(세전), 가 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인천 거주 만15~39세 4대보 험 가입 근로청년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근무 정규직 근 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계약연봉 기준 2,400만원 이하인 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 움사업	경북도내 거주 만18세 이 상~39세 이하 미혼 근로청 년	
경남	청년상생공제	경남도내 거주 만15세 이 상~34세 이하 근로청년	-경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만기(가 입기간 2년)가 도래된 자 -근로자가 일하는 해당 기업이 경남상생공제 가입한 경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충북 거주 만 18세~40세 이 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 자 및 청년 농업인	충북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및 농업 종사자
충남	열혈청년 통장	충남 거주 만 18세~34세 중 소기업 근로청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광주	청년 13(일+삶) 통장 드림	광주시 거주 만 19세~34세 근로청년	월 소득기준(세전) 612,102원 이상~1,707,008 이하
	청소년한부모 더불 어행복통장	광주시 거주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주
제주	일자리재형저축 (53+2통장)	제주도내 거주 만 15세~39 세 이하 정규직 근로청년	월 급여 2,650천원 미만인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 어 있거나 해지 이력 있는 자

2)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의미

최근 청년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 및 고실업의 장기화로 점차 안정적인 일자리를 성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로 인해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아가,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 19의 발발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던 청년들에게는 실업과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야기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그러나 청년들은 근로역량이 있는 생산가능 집단이라는 이유로 전통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려되어오지 않음. 이로 인해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의 예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청년 대상 제도들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지원에 집중되어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최상미 외, 2020). 실제로 2019년 중앙정부는 크게 생활·복지, 주거·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의 4가지 영역에서 160개의 청년정책을 시행하였으며(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2019.10.6 기준), 관련하여 20조 7,917억원의 예산을 집행함(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자료, 2019).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복지 영역 사업(건강, 문화) 5개, 주거·금융 영역 사업(생활비 지원 및 금융혜택, 주거지원, 학자금 지원) 36개, 창업지원 영역 사업(R&D지원, 경영지원, 자본금 지원) 21개, 취업지원 영역 사업(교육훈련·체험·인턴, 전문분야 취업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해외진출) 98개로, 취창업 등 고용관련 지원이 전체 사업의 75%에 달함. 한편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 비중이 57%로 절반을 넘고, 다음으로 학자금 지원 등 교육지원이 23%를 차지함. 이처럼 사업의 수와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청년 대상 지원사업은 취창업, 주거,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복지, 문화, 소득 지원 사업은 미미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이처럼 최근 청년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대상 사업은 여전히 지엽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업의 수는 일자리지원에, 사업예산은 학자금지원과 주거지원에 집중되어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과 깃 경제(gig economy)⁴⁾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파편화된 노동자 등 더욱 불안정한 새로운 고용 지위를 탄생시키는 동시에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고 있어(박귀천·권오성, 2020; 전기택, 2020; 緒方 桂子, 2020),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초기실직 청년이나 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청년들은 급속히 불안정화, 이중화 되어가고 있는 노동 시장의 주 희생자로서 안정된 일자리의 성취와 자산 축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전통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탓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청년들의 빈곤 탈피와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빈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잠재력을 가짐

3)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을 통해 개인의 삶의 개발을 가능케하며 빈곤 예방과 탈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참여자에게 경제적, 심리·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삶의 질 측면을 포괄하여 다차원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economic strain) 감소시키는 반면, 경제적 안정 및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증됨(Page-Adams & Vosler, 1995; Sherraden, Nair, Vasoo, Liang, & Sherraden, 1995; Sherraden, 1991; Beverly, Sherraden, et al., 2008)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참여자에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 자기효능감은 향상한 반면, 우울은 감소하였다고 보고됨(Kohn, Naoi, Schoenbach, Schooler, & Slomoczynski, 1990; Page-Adams & Vosler, 1995; Yadama & Sherraden, 1996; Rohe & Stegman, 1994)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Perkins et al., 1990; Rohe & Stegman, 1994) 보고되었으며,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도 알콜 남용 감소 등에의 긍정적

4) '깃 경제(gig economy)'는 기업에서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추세를 의미함(네이버 사전, 2021)

기여가 보고됨(Robert & House, 1996; Page-Adams & Vosler, 1995)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참여자 당사자 뿐 아니라 참여자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상대적 약자일수 있는 여성의 지위(Noponen, 1992; Page-Adams, 1995; Rohe & Stegman, 1994)와 아동인 자녀의 삶의 질 향상(Green & White, 1997; Hill & Dunca, 1987; Pritchard, Myers, & Cassidy, 1989)에 기여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⁵⁾

우리나라에서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조건으로 적립액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참여 수급가구 중 약 60%가 탈수급에 성공하여 탈수급을 제도적 목적으로 하는 다른 자활 프로그램보다 그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최현수 외, 2014)

또한 희망키움통장,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들은 통장사업 참여 이후 저축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로 통장사업 참여자들의 통장사업 저축액 외에도 자발적 저축액이 증가함(최현수 외, 2013; 이순성 외, 2010; 서종녀 외, 2017; 최조순 외, 2017; 최상미 외, 2019, 2020)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청년 통장사업 참여자들은 참여 첫 해에 비해 다음 해에 근로소득, 저축액, 자격증 소지 비율,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이 증가하는 등 근로역량, 근로지위, 경제적 상황 및 저축 등 고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모여가는 돈을 보며 든든한 마음, 여유, 성취감,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됨(최조순 외, 2017; 최상미, 2020)

5)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폭력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아동의 경우 학업 중단 감소, 교육예의 투자 증가, 자녀 저축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됨

4)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구축의 의미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탈수급 등에서 성과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로부터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참여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 및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침

그러나 참여자의 관점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본 패널 구축 연구는 참여자의 고용,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적하여 참여자 중심으로 정교하게 성과를 검증하고자 함

본 연구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9년 1차, 2020년 2차 패널 구축 연구에 이어 3차 패널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매달 근로소득공제금 및 자기적립액에 정부와 민간이 매칭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가처분소득의 감소없이 목돈을 마련해가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3년에 걸쳐 참여하면서 사업이 참여자에게 심리·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고용 역량 및 지위, 미래에 대한 인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교하게 파악함으로써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18년 실시하기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1, 2차 패널 구축에 이어 3차 패널을 구축하고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3>과 같이 구성됨

<표1-3>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

1. 청년 대상 정책의 현황과 특성
2. 국내 주요 청년 대상 지원 정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과 특성
3. 조사표 검토
 - 1) 3차 패널 조사표에 수정·보완 및 추가할 지표 검토 : 근로형태, 지난 2년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진로행동, 우울(CES-D)(Radloff, 1977), 고용장벽(PEBS: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홍보채널 등
 - 2) 3차 패널에서 새롭게 보완한 지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려하여 근로형태 재구성, 고용장벽 척도에 4개 문항 추가(적성파악 어려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의 어려움,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잇따른 실패로 도전에 대한 두려움 등)
 - 3) 3차 패널에 신규 추가된 지표: 지난 2년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진로행동(상위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외국어능력 향상, 진로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다양한 활동참여, 수상, 인턴 등 직무 경험, 기타), 홍보채널(포털사이트 광고, SNS, Youtube, 블로그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홍보, TV라디오 등 방송홍보, 팜플렛 활용 홍보, 학교를 통한 홍보,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기타), 우울(CES-D)(Radloff, 1977)
4. 청년희망키움통장 패널 대상 설문 조사 실시 및 3차 패널 구축
5.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 설문 조사 실시
6.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사업 성과 도출
 - 1)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응답자와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비교 분석
 - 2)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해지 유형 구분에 따른 비교 분석
 - 3)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2차 3차 연속응답 패널 시계열 분석
 - 4) 근로형태에 따른 3차 패널 비교 분석
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 모색

본 연구는 <표 1-3>에서 제시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목차를 구성함(다음 <표 1-4> 참조)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배경, 필요성, 내용, 방법 및 수행체계 등 개요를 개괄함

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해외 사례 검토, 자산형성지원사업과 함께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사례는 1, 2차 패널구축 연구에서 실시했기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음. 대신 코로나19의 발발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청년 대상 지원 정책 및 제도와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검토함. 이를 통해 현재 청년 대상 지원 정책 및 제도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역할과 의미를 논의함. 나아가 국내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의 차별성과 특징을 파악함

본 연구는 3차 패널구축 연구로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패널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조사 시점 환경의 변화, 참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척도의 수정, 보완함

2021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들의 위험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유형이 새롭게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됨.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따로 분류하여 근로 형태를 재구성하였으며, 청년의 특성, 특히 수급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장벽 척도에 4개 문항(적성 파악의 어려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의 어려움, 수급 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잇따른 실패로 도전에 대한 두려움 등)을 추가함

일부 문항을 보완하는 동시에 몇 개 문항을 신규로 추가함.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실직과 취업 준비, 재취업을 경험한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년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진로행동(상위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외국어능력 향상, 진로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다양한 활동참여, 수상, 인턴 등 직무 경험, 기타) 척도를 새롭게 추가함. 또한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남재욱, 2020)함에 따라, 우울(CES-D)(Radloff, 1977) 척도를 추가함. 더하여 여전히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홍보채널(포털사이트 광고, SNS, Youtube, 블로그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홍보, TV라디오 등 방송홍보, 팜플렛 활용 홍보, 학교를 통한 홍보,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기타) 관련 문항 추가함

3장에서는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로 구성된 3차 패널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와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신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방법을 제시함.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자료수집 절차, 척도 구성 및 분석방법을 제시함

4장에서는 3차 패널 조사 및 2021년 신규 가입자 대상 조사 결과를 분석함. 패널 조사 분석 시에는 2019년에 구축한 1차 패널, 2020년에 구축한 2차 패널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3차 패널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 참여자의 특성의 변화와 사업 성과를 도출함. 그 외에도 해지 유형별 참여자 특성 비교, 고용 형태에 따른 참여자 특성 비교 분석을 실시함

마지막 5장에서는 결과 분석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함. 세부적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 및 역할과 더불어,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 및 운영과 관련한 제언을 제안함

〈표1-4〉 본 연구의 목차 구성

1.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연구 수행 체계
2.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 1)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제도
 - 2)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과 특성
3. 연구 방법: 패널 대상 및 신규 참여자
 - 1) 조사 대상
 - 2) 척도
 - 3) 자료 수집 절차
 - 4) 분석 방법
4. 연구 결과
 - 1) 참여자 및 해지자 대상 3차 패널 조사 분석 개요
 - 2)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3차 패널 조사 분석 결과
 - 3) 3차 패널과 신규 참여자 특성 비교 분석
 - 4) 해지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 비교 분석
 - 5) 1차, 2차, 3차 연속응답 패널 시계열 분석
 - 6) 근로 형태에 따른 3차 패널 참여자 특성 비교 분석
5. 결론 및 제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 모색
 - 1) 분석 결과 요약
 -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성과
 - 2)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역할
 - 3) 청년희망키움통장예의 함의

2) 연구 방법

(1) 제도 및 문헌 분석

문헌연구로서 청년 대상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고, 국내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 운영 및 내용을 비교·검토함. 더하여 3차패널 조사표에 수정·보완 및 추가할 지표 도출을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함

(2) 패널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는 2018년 실시하기 시작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3차 패널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대상 패널 구축과 관련하여,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2019년 1차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차 패널을 구축한 바 있음

조사표는 청년 참여자의 실태, 특성 및 사업 참여를 통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됨. 청년이라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간접적 효과,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주관적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단계적,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차원 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균형있게 포함함. 3차 패널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지표는 다음 <표 1-5>와 같으며, 굵은 글씨로 표시된 지표는 3차 패널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보완된 지표임

〈표1-5〉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포함된 지표

영역	내용
일반현황 및 근로 현황	일반 현황: 성별, 출생년월, 학력,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종교유무 가구 현황: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가족 수, 함께 생활하는 가족 근로 현황: 근로형태(보기 수정) ,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 가능성, 4대보험 가입여부
경제적 상황: 소득, 저축, 부채, 지출	소득, 저축, 부채, 지출 현황 가족부양부담 정도,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수급여부: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유형, 수급기간(전생애)
주거 현황	주택유형, 주거위치, 주택점유형태, 주거비용(주택 총액, 월세), 주거면적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예상진로, 진로행동, 고용희망,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보기 보완) , 지난 2년간의 진로관련 행동 수행여부(신규 추가)
심리정서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지수, 투지(Grit), 회복탄력성(Resilience),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지, 우울(신규 추가)
재무관리 요인	저축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 금융이해력
사회적 역량 요인	사회적 자본, 가족지지, 우리사회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사회활동참여정도: 종교활동, 여가활동, 친목모임, 정당 및 정치 관련 모임,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의 연간 총 참여일수
자선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선형성지원사업 참여 현황, 자선형성지원사업의 만족도, 애로사항 및 개선점, 희망하는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자선형성지원사업 만기 후 지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비중
COVID19 관련	COVID19가 자신의 현재 일자리 및 구직에 미친 영향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지표는 본 연구인 3차 패널에 신규 추가되거나 수정·보완된 지표이며, 기울기로 표시된 지표는 2020년 2차 패널에 신규 추가된 지표임

(3)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는 2018년 실시하기 시작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대상 3차 패널 구축 연구로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3차 패널 구축과 함께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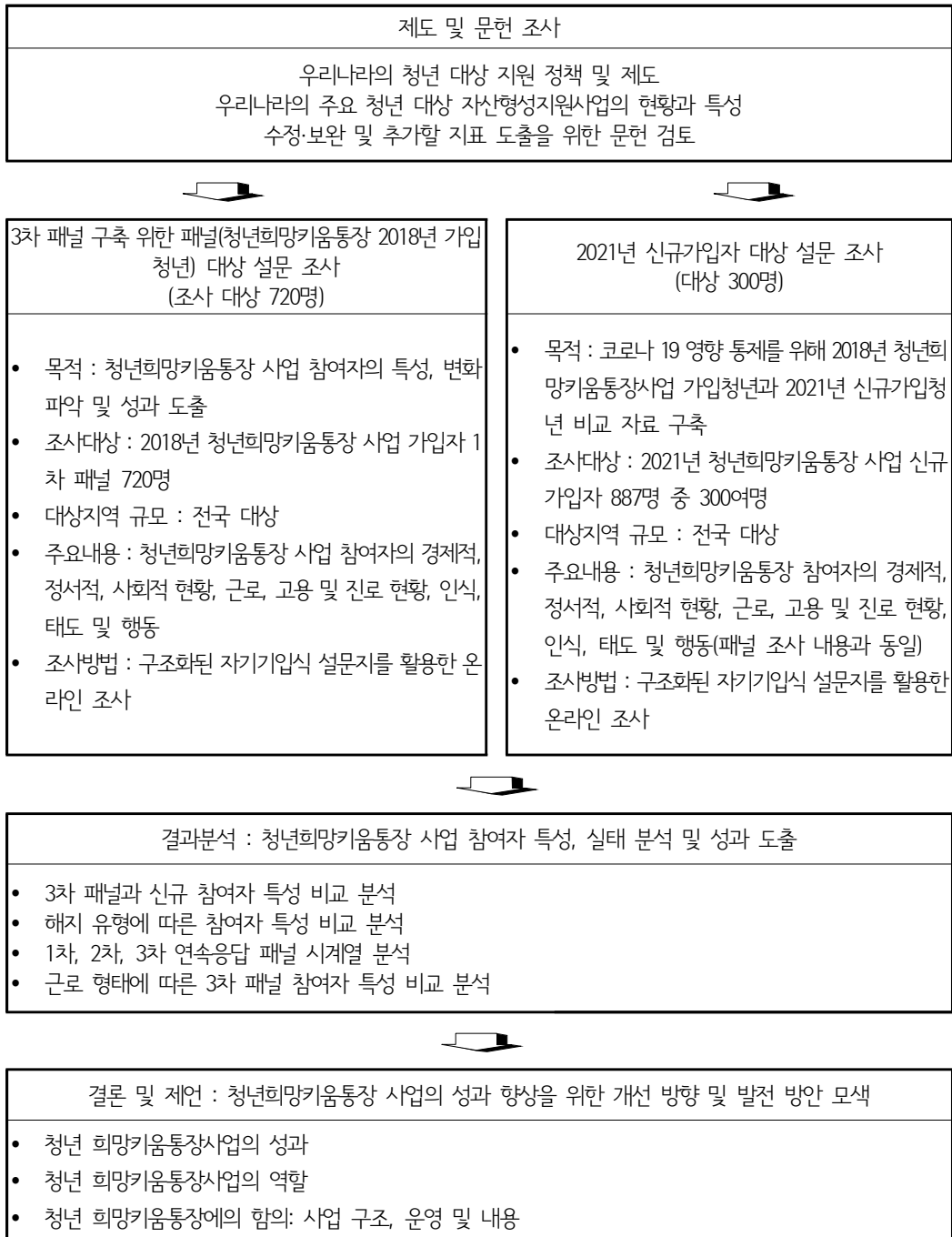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3년에 걸쳐 패널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통장사업 참여 청년의 변화를 추적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영향과 성과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본 패널 연구는 2020년부터 지난 2년여에 걸쳐 전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청년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이거나 진입준비자인 동시에 대면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서비스업에의 종사 비율이 높아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임(김유빈, 2020)⁶⁾. 따라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청년들이 사업 참여 이래 3여년에 걸쳐 어떠한 변화와 경험을 거쳤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코로나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1년 신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패널 청년과 신규 가입 청년을 비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로나 19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통제된 상태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의 영향과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6) 실제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대상 패널 중 서비스업 종사자는 2019년 1차 패널에서는 40.7%, 2차 패널에서는 36.8%로 근로 직종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또한 2020년 코로나 발발로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감소하여 일부 청년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직을 경험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3. 연구 수행 체계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과 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II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1.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제도
2.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II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1.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지원정책 및 제도

현재 중앙정부는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코로나19의 6가지 영역에서 270개의 청년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⁷⁾.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지원 영역의 교육훈련·체험·인턴,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해외진출 사업이 154개, 창업지원 영역의 R&D 지원, 경영지원, 자본금 지원 사업이 34개, 주거·금융 영역의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주거지원, 학자금 지원 사업이 50개, 생활·복지 영역의 건강, 문화 사업이 5개, 정책참여 영역의 정책제안, 권리보호, 지역발전 사업이 8개, 코로나19 영역의 저소득층지원, 소득 및 일자리보전, 기타 인센티브, 심리지원 사업이 19개 운영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은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과 취업을 위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취업지원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이는 정보 매체의 활용에 능숙한 청년 세대의 강점을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의 일자리임

창업지원 영역은 R&D 지원, 경영지원, 자본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시기에 따라 창업자금, 사업화,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사업과 사업화 이후의 사업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주거지원 사업은 임차료 직접 지원과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로, 학자금

7)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시: 2021. 08. 27 오전 1:40 기준. 부처별 중복 사업은 재분류함.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 영역의 '소득 및 일자리 보전'과 <취업지원>의 '교육훈련체험인턴' 유형으로 중복되는 사업이나,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취업지원으로 분류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영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원' 유형은 청년 지원 정책의 성격과 거리가 멀어 삭제하였음. 취업지원 영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하반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중 청년의 연령과 거리가 먼 사업은 삭제하였음.

지원 사업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구성됨. 생활비 및 금융지원 사업은 생활비 지원과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생활복지 영역은 청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청년층의 문화탐방에의 참여 지원으로 구성됨

한편 청년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질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 제안과 권리증진 사업이 2021년 신설되었으며, 코로나19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및 일자리 보전, 기타 인센티브, 심리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영역 또한 신설됨. 코로나19 영역 지원은 청년 문제를 해결을 위한 청년 특화 정책이기보다는 전국민 대상 지원 사업안에 청년층 또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청년 정책 270개 중 생활·복지 영역 사업(건강, 문화) 5개, 정책참여 8개, 코로나19 관련 지원 19개, 주거·금융 영역 사업(생활비 지원 및 금융혜택, 주거지원, 학자금 지원) 50개, 창업지원 영역 사업(R&D 지원, 경영 지원, 자본금 지원) 34개, 취업지원 영역 사업(교육훈련·체험·인턴, 코로나19 한시적 일자리 사업, 전문분야 취업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해외진출) 154개, 취·창업 등 고용관련 지원이 188개로 전체 사업의 70%를 넘음. 한편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학자금 지원 등 교육지원의 비중이 높음. 이처럼 사업의 수와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청년 대상 지원사업은 취·창업, 주거,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복지, 문화, 소득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즉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다차원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를 가짐

〈표2-1〉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유형과 세부 사업명

유형1	유형2	세부사업명
취업 지원	교육훈련 체험인턴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 지원사업,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대학생 대상 무역 전문가 양성교육), 수산식품 수출 청년개척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고용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7·9급),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대학일자리센터, 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온라인청년센터,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Hi(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특강,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취프로그램,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취업능력향상(행복오름) 프로그램 I, 여성새로일하기센터(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지원1),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훈련, 디지털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취업희망프로그램, 지역중소기업 R: 산업인턴지원, 고용

유형1	유형2	세부사업명
		복지플러스센터, CAP@(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청년취업멘토링,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서비스 지원, 군 장병 취업지원사업, allA(청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능력향상(행복오름) 프로그램 II,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기업대학,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술기능인력 양성,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군 장병 자기개발 지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청년의 지역안착 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탈북 청년 취업/교육지원,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강화, 연구개발성과의 기업 이전 촉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석·박사) 사업, 2021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청년여성멘토링(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지원2), 2021년도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AGRI 벤처창업 인턴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내일이름학교),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 (비대면·디지털)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대학 내 연구소 데이터 관리), 인문학 진흥(대학 내 연구소 데이터 관리), 드론 기반의 댐 안전관리,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온라인 불법복제물 채택 모니터링), 찾아가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비대면·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음악/전통예술/무용/뮤지컬/연극),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 운영 지원
	중소(중견) 기업 취업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참 관참은 중소기업 플랫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고용 증대서제,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SW마에스트로 과정(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최고급 SW인재 양성),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청년귀농 장기교육, 항공분야취업지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항공정비인력양성채용,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차세대보안리더(BoB), 다중 청년 방위산업 분야 전문교육 제공,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K-Shield 주니어,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청춘디딤돌/병역진로설계(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포함), 항공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 자원봉사관리자 일자리 제공, 청년해가인력 공급기반 강화(미취업 청년해가인력 취업지원강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2년제

유형1	유형2	세부사업명
		학위과정),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1(물류 기능인력양성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 양성사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구. 화학물질 유·위해성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외진출사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K-Move 스쿨, 해외취업알선,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기존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사업(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한상 청년채용 인턴십, 월드프렌즈(World Friends Korea, WFK)-일반봉사단, KOICA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월드프렌즈(World Friends Korea, WFK) 해외봉사단-청년 중기봉사단, WFK-청년봉사단(The Pacific Asia Society, PAS), KOICA 다자협력전문가(KOICA Cooperation officer, KMCO), 개발협력코디네이터, WFK-KOICA UNV 대학생봉사단, WFK-ICT 봉사단(Korea ICT Volunteers, KIV), WFK-KOICA NGO봉사단, WFK-한방봉사단(KOMSTA), WFK-과학기술지원단, WFK 봉사단 코디네이터,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R&D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 사관학교),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사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초기창업패키지(구. 창업선도대학 육성), 실천창업교육,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대한민국 창업리그, 도전! K-스타트업,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창업 지원	경영지원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내 희망상가 제공, 외식창업인큐베이팅(청년키움 식당),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마포 청년혁신타운 (대규모 청년창업공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서비스존,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청년창업, 푸드트럭, 나이트카페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자본금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대보증(청년희망드림보증) 제공,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대학창업펀드 조성, 수산모태펀드 운용, 관광두레 청년 참여 지원, 글로벌액셀러레이팅(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주거 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햇살론Youth, 청년형 ISA 운영, 직업훈련 생계비 용자, 청년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직업훈련생계비 용자, 청년 금융교육 지원,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 조달 우대,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거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유형1	유형2	세부사업명
		공급 활성화),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생 활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주택 확대, 행복기숙사(사립/연합),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도시 재생사업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유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리모델링,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추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후기 청소년(19~24세) 자립 지원,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학자금지원	인문 100년 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 입학금 지원 장학금(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II 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학자 금 대출,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 과학장 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생활 복지	건강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마인드링크),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실시, 병역 이행 중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문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해양문화 대장정
정책 참여	정책제안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민생각함/청년 정책개선 프로젝트
	권리보호	청년 소비자층 보호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수거래분야 소 비자보호(대학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군경 장병 대상 고충 상담 이동신문 고
	지역발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코로나19	저소득층 지원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소득 및 일자리 보전	청년일경험 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고/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 원 사업, 창작준비금 지원, 과학기술인인턴적금(PLUS 청년우대),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기타 인센티브	국민내일배움카드(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해양물류 청자켓(청년 자격증 Get) 사업, 원격수업 대체 방안 마련
	심리지원	코로나19 집콕 문화생활 이겨요!,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온라인·전화 상담), 코로나19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코로나19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보건 복지상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코로나19 소비자 상담맵,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

2.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장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있음. 중앙정부 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앞의 <표 1-2> 참조).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와 함께, 지자체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함(다음 <표 2-2> 참조)

1)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함. 의무적인 저축액은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함. 근로사업소득공제금은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하며, 근로소득 장려금은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액의 45%를 매칭적립함(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사업 가입 기간인 3년 만기 후 3개월의 유예 기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함. 또한 20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1,000원 이상 본인적립금 적립 시 최대 2만원까지 1:1 매칭비율에 따른 민간매칭금 추가 지원하며 본인적립금과 민간매칭금은 지급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지급함

이에 예를 들어,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3년간 2,124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월소득이 120만원일 경우에는 2,440.8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함

<표2-2>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역의 예

	지원액	본인적립액	수령액
가입한 청년의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3년간 2,052만원 = 57만원(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45만원 + 민간매칭금 월 2만원) × 36개월	72만원 = 2만원 × 36개월	2,124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3년간 2,368.8만원 = 65.8만원(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53.8만원 + 민간매칭금 월 2만원) × 36개월	72만원 = 2만원 × 36개월	2,440.8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이더라도 가입 조건을 충족할 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함. 또한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가입 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 가능하며,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에도 2019년 6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없으며 원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 및 자립역량교육을 이용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2020년 새롭게 도입된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함. 또한 근로를 참여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납입액이 있으며 본인 저축 납입 시 1:3의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 가량 수령 가능함. 즉 근로·사업 소득액에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 씩 본인 저축을 하는 경우,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30만원 × 36개월)을 더한 1,440만원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청년저축계좌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 유지를 수령 조건으로 하며, 그 외에도 자립역량 교육을 연 1회, 총 3회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청년저축계좌 참여자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3년간 자립역량교육 총 3회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하며,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재무상담서비스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자립역량교육은 대체로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저축, 소비, 부채 및 신용관리, 연금, 보험 등 금융·재무 관련 내용임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8세~34세의 일하는 청년 중 본인 근로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매월 의무 납입액은 10만 원, 15만 원 중에서 선택가능하며, 가입 기간 또한 2년, 3년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납입액 기준으로 1:1 매칭 방식을 택하고 있음. 10만원 2년형의 경우 만기 시 480만원과 이자를, 15만원 2년형과 10만원 3년형을 가입한 경우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15만원 3년형 가입시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월 자기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며, 금융교육(연1회)을 이수하고, 저축 기간 중 50% 이상을 근로해야 함.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5개 자치구에 31개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역 참여 청년들의 저축관리 및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을 지원함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근로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함. 매월 10만원 씩 납입 시 매월 14.2만 원(현금 10만 원 및 지역화폐 4만 2천 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며, 2년 만기 후에는 580만 원 상당의 적립금(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음

수령 조건으로는 가입기간 동안 3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근로를 유지해야 함. 12개월동안 이직을 위해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나, 이 기간 중 매칭된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됨

5) 국내 주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 검토

① 대상 청년 연령

중앙정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연령대는 다소 상이함.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만 18세~34세 청년을, 중앙정부는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사업이 보다 청년을 폭넓게 개념화하고 있음

② 저축액 및 지원액 수준

본인 저축액과 지원액은 10~15만 원 선으로 비슷한 정도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서울시가 15만 원의 다소 높은 수준의 본인 저축액과 지원액 가입이 가능함

③ 매칭비율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 1:1 매칭인데 비해 중앙정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1:3 정도의 매칭비율을 가짐. 이는 중앙 정부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차상위 청년 등 보다 빈곤한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인함

④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보통 2~3년임. 경기도는 2년, 서울시는 2, 3년 중 선택가능하며, 중앙정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3년을 가입기간으로 함

⑤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 대체로 금융재무교육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사례관리를,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노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통장사업 사례관리 전담인력 31명을 기존의 복지기관 및 청년센터 등(종합복지관 27명, 장애인복지관 1명, 지역자활센터 2명, 협동조합 1명 등에 사례관리자 31명을 배치)에 추가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표2-3〉 중앙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서울시·경기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년희망키움통장(2021)	청년저축계좌(202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2021년 8월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8월 기준)
대상연령· 소득·자산기준	가입대상	만 15세~39세 근로 청년	만 15세~39세 근로 청년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청년	경기도 거주 만 18 세~34세 근로 청년
	가입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 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 (생계수급 가구에 청년이 여러명이더 라도, 조건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 하 차상위층 청년 주거교육 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 준중위소득 100% 이 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의무 저축액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매월 10만 원	매월 10~15만 원 (참여자 본인 선택)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액	- 본인 소득액의 45% 근로소득장려금 지원(평균 377,000원, 최대 538,000 원) - 월 1,000원이상 최대 2만원까지 본 인 저축 시 1:1 민간매칭 지원	- 본인 저축액에 1:3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42 비율로 근로소득장려 금 매칭 - 매월 14만 2천원 매칭 지원(현금 10만원+지 역화폐 4만 2천원)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년희망키움통장(2021)	청년저축계좌(202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2021년 8월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8월 기준)
수급조건	지원용도	- 주거(주택구입·임대) - 창업·운영자금 - 교육(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자활·자립 용도(의료비, ISA 계좌상품 가입 혹은 적금 가입과 같은 개인자산 형성 목적, 결혼 및 장례비용)		- 주거(이사, 보증금 인상, 전세자금 대출 상환,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주 택청약통장 가입) - 창업(점포 임대차 보증금, 창업관련 기기 구입 및 수리, 사업장 양도양수) - 교육(등록금, 고등교육 관련 학원비, 유학자금, 부채상환) - 결혼(예식장 대여비, 혼수구입, 신혼 여행경비, 웨딩촬영) *학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 한 부채 상환 목적 불가	- 주거(주택구입임차보 증금) - 창업·운영자금 - 교육(본인·자녀의 교 육·기술훈련) - 대출금 상환 - 결혼자금 등 본인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용도
	지원조건	-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 생 - 사업 가입 기간 및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 사업 참여 기간 중 근로 유지 - 자립역량교육(총3회)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사업 참여 기간 중 50% 이상 근로 - 금융교육(연1회) 이수	- 사업 참여 기간 중 12 개월 이상 근로 - 교육(총 3회) 이수
	총 수령액	1,789만 원(최대 2,369만 원) + 이자	1,440만 원 + α	(2년형, 10만 원) 480만 원+이자 (2년형, 15만 원) 720만 원+이자 (3년형, 10만 원) 720만 원+이자 (3년형, 15만 원) 1080만 원+이자	580만 원(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방식	미실시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재무상담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노무교육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심리정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정보제공	미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사례관리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특이사항	원하는 경우 금융교육, 재무상담,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이용 가능	종합재무설계서비스 과정에서 필요시 서비스 추가 연계, 의뢰	사례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	노무, 재무 등 교육 연 1회 제공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2021년 자활사업안내 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서울시, 2021,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 서울시복지재단,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내역 안내(내부 자료); 경기도, 2021,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경기복지재단, 20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준수사항 안내서(8기-10기)

Ⅲ 연구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1. 사업성과 분석틀
2. 조사 방법

Ⅲ 연구방법

1. 사업성과 분석틀

청년희망통장사업 성과 분석틀은 2019년과 2020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2차년도 패널구축 연구」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함

1) 일반적 특성 및 객관적 지표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응답자의 성별, 출생년월, 학력,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종교유무를 확인함

조사대상자의 가구 현황으로는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인 여부 및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조사함

조사대상자의 근로 현황은 자격증 보유,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과 사회보험의 각 가입여부를 질문함

(2) 소득 · 저축 · 부채

조사대상자의 소득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질문함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여부 및 소득 감소액,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함

조사대상자의 저축 역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을 조사함. 저축에는 예 · 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개인연금(국민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갯돈 불입금,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포함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액은 포함하지 않음

부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 부채로, 조사 시점 기준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조사함. 부채에는 은행 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됨.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과 연체액은 포함함

추가적으로 월 평균 부채 상환액과 개인이 부채를 지게 된 이유,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함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 정도,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수준을 질문함. 개인의 부채 부담과 가족 부양 부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모두 11점 척도로 구성된 한 문항으로 측정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조사대상자 가구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 탈수급하였으나 통장사업에만 참여)을 중복응답하도록 함. 한편, 수급 기간은 조사대상자 가구가 전생애에 걸쳐 해당 급여를 받은 기간을 조사함

(4) 지출

조사대상자의 지출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총 생활비를 확인함. 나아가 응답자가 월 평균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에 각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함. 이러한 생활비 비목구성은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비목 구성과 동일함. 또한 조사대상자에게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작성하도록 함

(5) 주거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주택 유형, 주거 위치, 주택 점유 형태, 주택 금액, 주택 면적을 응답하도록 함. 주택 유형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일반 아파트, 임대아파트,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준주택(고시원 등) 등을 구분하여 조사함. 주거 위치는 지하층, 반지하층, 지상, 옥탑으로 구분함.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상,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함. 주택 금액은 주택의 총액(자가 및 전세, 전월세 모두 응답)과 월세(월 평균)를 조사함

(6) 진로관련 수행활동 및 예상진로

조사대상자가 지난 2년 동안 진로와 관련하여 준비하거나 수행·참여한 활동을 중복응답으로 모두 답하도록 함. 응답 문항은 상위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외국어능력 향상, 진로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다양한 활동 참여(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연수 등), 수상(공모전 등), 인턴 등 직무 경험, 기타로 구분함

응답자가 생각하는 1년 뒤의 예상 진로에 대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하였으며, 본 문항의 보기에는 취업유지, 이직,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개인사업 및 창업, 군입대,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기타로 구분함

(7)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종교활동, 여가활동, 친목모임, 정당·정치 관련 모임, 자선단체·자원봉사활동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수준을 측정함. 활동 수준은 지난 1년 간 해당 활동에 대한 총 참여일수로 기입하도록 함

〈표3-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영역	내용
A1	일반현황 및 근로 현황	일반 현황: 성별, 출생년월, 학력,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종교유무 가구 현황: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인 여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근로 현황: 자격증 보유, 근로형태, 근속기간¹⁾ ,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 가능성, 4대보험 가입여부
A2	소득, 저축, 수급여부	소득(월평균):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COVID19 관련 지표: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여부, 소득 감소액, COVID19로 일을 잃은 경험 저축(월평균): 월평균 저축액 부채(총액): 개인 부채 여부, 개인 부채액, 월 평균 상환액, 부채를 지게 된 이유,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 가족부양부담 정도,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수급: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유형, 수급기간(전생애)
A3	지출	생활비(월평균): 총생활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1-3순위)
A4	주거	주택유형, 주거위치, 주택 점유 형태, 주택 금액, 주택 면적
A5	진로관련 수행참여활동 및 예상진로	진로관련 수행참여활동: 지난 2년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활동¹⁾ 1년 뒤 예상진로(1-3순위)
B4_2	사회활동 참여	종교활동, 여가활동, 친목모임, 정당 및 정치 관련 모임,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서의 연간 총 참여일수

주 1) 2021년 3차 패널에 추가된 지표임

2) 주관적 지표

(1) 심리적 요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은 자아존중감, 행복지수, 투지(Grit),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9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음

행복지수는 9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함. 3개의 문항은 삶의 각 측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었으며, 6개의 문항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예. 즐거운, 행복한 등)를 조사함. 측정결과는 문항 순서에 따라 3문항씩

총합하여 만족감, 긍정정서, 부정정서로 확인 가능함

투지(Grit)는 8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함. 투지는 성공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나 용기를 의미하며(예. 나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낸다), 조사 결과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이 .807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임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2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함

우울은 CESD-11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 11문항에 4점 척도로 구성됨. 조사 결과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이 .90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임

신체적 건강은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문항: 귀하의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를 11점 척도로 측정함

〈표3-2〉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1_1	자아존중감	10	5점 척도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1_2	행복지수	9	7점 척도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 213-232.
B1_3	투지	8	5점 척도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u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B1_4	회복탄력성	2	5점 척도	Kathryn M. Connor, M.D., and Jonathan R.T. Davidson, M.D.(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DEPRESSION AND ANXIETY 18:76-82.
B1_5	우울	11	4점 척도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A6	주관적 건강 상태	1	11점 척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지

(2) 재무관리 요인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 요인으로 저축태도, 경제적 스트레스(스트레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재무관리 역량을 측정함

저축태도는 저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함

경제적 스트레스는 현재 경제적 상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묻는 7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함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조사대상자의 금융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5가지 문항을 각기 다른 응답 범주로 질문함

재무관리 역량은 재무와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는지, 미리 지출을 준비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총 7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함

〈표3-3〉 주관적 지표: 재무관리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2_1	저축태도	6	5점 척도	서종녀(2016). 서울시 근로빈곤청년 자산형성지원정책 현황분석: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9-250.
B2_2	경제적 스트레스	7	5점 척도	Prawitz, A., Garman, E. T., Sorhaindo, B., O'Neill, B., Kim, J., & Drentea, P. (2006). InCharge financial distress/financial well-being scale: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score interpretation. 최조순, 현동길, 장동호, 성열서(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성과 분석. 경기복지재단.
B2_3	금융이해력	5	예, 아니오, 모름, 응답 거부	Lusardi, A. (2011). Americans' financial capability (No. w1710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2_4	재무관리 역량	7	5점 척도	Prawitz et al.(2006)과 Aldana & Liljenquist(1998)의 설문 문항을 활용.

(3)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진로행동은 진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지, 진로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등 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함

고용희망은 17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963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고용장벽은 20개 문항(예: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건강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장벽으로 작동하는지를 5점 척도(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임, 보통, 영향을 미치는 편임, 매우 영향을 미침)로 측정함. 2020년과 비교하여 4개 문항(내 적성을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의 어려움, 소득 증가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잇따른 취업 실패로 인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추가됨.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08로 높았음

〈표3-4〉 주관적 지표: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3_1	진로행동	4	5점 척도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행동준비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재구성
B3_2	고용희망	17	5점 척도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 (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B3_3	고용장벽	20	5점 척도	최상미. (2019).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 : 청년 고용장벽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31-56.

(4)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 사회적 자본은 20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812로 높은 수준이었음

가족지지는 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함. 가족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933으로 높았음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은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함

〈표3-5〉 주관적 지표: 사회적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4_1	사회적 자본	20	5점 척도	이민홍, & 고정은. (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85-110.
B4_3	가족지지	16	5점 척도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신준섭, &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사회적지지 문항 중 가족지지 4문항만 사용함.
B4_4	소득 불평등 수준	1	11점 척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지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해지 관련 문항

(1) 자산형성지원사업 만족도 및 참여 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4개 영역별 만족도(지원 금액의 수준, 사업 관련 정보 제공, 행정적 절차,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또한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참여자, 지급해지자, 중도해지자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함. 지급해지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로 해지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도해지자는 3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한 경우에 해당함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희망 서비스의 수요, 효과적인 홍보 방법 및 사용계획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사업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희망서비스의 수요, 효과적인 홍보방법과 지원금 사용계획을 조사함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근로지속의 어려움, 행정적 불편함, 가족의 반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타로 구분하여 질문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함. 응답으로는 저축금액 다양화,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가족 중복참여 허용,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함. 해당 질문의 보기로는 가족상담 및 가족 교육, 문화여가, 후원금/물품, 심리상담, 양육교육, 의료지원, 직업교육 및 훈련, 자격증취득교육, 주거개선, 창업교육, 재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금융교육, 기타 등이 있음

3차 패널에서 새로운 질문으로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홍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함. 질문 보기로는 포털 사이트 광고를 활용한 광고, SNS를 활용한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홍보, 방송 홍보, 팜플렛 또는 책자를 활용한 홍보, 학교를 통한 홍보,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기타 등이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후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조사함. 해당 질문의 보기로는 교육비(본인 및 가족), 주택마련, 결혼 및 상제비, 미래생활 대비(저축),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자동차·가구·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여행 및 여가생활, 부채 상환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후 지원금의 사용계획에 따른 사용비중을 확인함. 사용비중은 전체 100%로 두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 몇 %씩 사용할 것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음

〈표3-6〉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문항

	영역	내용
C1	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원금액, 사업 관련 정보 제공, 행정적 절차, 전반적인 만족도 (5점 척도)
C2	사업 참여 여부	2021년 기준 사업참여자자와 중도해지자, 자급해지자
C3	사업 애로사항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장 큰 이유
C4	사업 개선점	사업의 개선점
C5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1-3순위)
C6	효과적인 홍보방법 ¹⁾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홍보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1-3순위)
C7	만기 후 지원금 사용계획 및 비중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후 금액에 대한 사용 계획(1-3순위), 사용 비중

주 1) 2021년 3차 패널에 추가된 지표임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지 사유 및 개선점, 효과적인 홍보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해지자를 대상으로 해지 사유와 개선점,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조사함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해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탈수급,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소득(2021년 기준 2,390,370원), 근로지속의 어려움, 행정적 불편함, 가족의 반대,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해서, COVID19의 영향으로, 군 입대(12개월 미만 불입), 압류/가압류,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함. 응답 보기로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함

3차 패널에서 새로운 질문으로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홍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함. 질문 보기로는 포털 사이트 광고를 활용한 광고, SNS를 활용한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홍보, 방송 홍보, 팜플렛 또는 책자를 활용한

홍보, 학교를 통한 홍보,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기타 등이 있음

〈표3-7〉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관련

	영역	내용
D1	사업 해지 사유	사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
D2	사업 개선점	사업의 개선점(1-3순위)
D3	효과적인 홍보방법¹⁾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홍보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1-3순위)

주 1) 2021년 3차 패널에 추가된 지표임

2. 조사 방법

1) 조사 설계

(1) 표본설계

본 연구는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를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함. 표집은 조사대상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사업참여자 리스트를 받아 무작위추출 중 체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2019년 패널 구축 시점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중 2018년 가입한 4,106명 중 중도 해지한 354명을 제외한 3,752명을 모집단으로 함. 체계적 표집을 통해 패널 참여에 동의하고 1차 패널 조사에 참여한 720명을 패널로 선정함

또한 패널 참여자 외 신규 조사대상자를 356명을 확보하여, 패널 응답자와 신규 조사대상자를 비교분석함. 신규 조사대상자 역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사업참여자 리스트를 받아 무작위추출 중 체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2) 표본선정

본 연구에는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차년도 패널구축 연구에 참여한 558명의 패널 가운데 523명이 응답에 참여하였으며, 493명이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을 완료함. 또한 전술하였듯, 신규 조사대상자 356명도 분석에 활용함

〈표3-8〉 자산형성지원사업 1-3차 패널 조사 개요

구분	조사시점	조사자 수	분석내용
2019년	2019년 8월 25일 ~ 10월 1일(35일)	- 모집단 3,752명 - 최종 분석 720명	- 조사대상자 전체 -일반적 현황 -경제적 상황: 소득, 자산, 부채, 기초생활수급, 지출 -주거 상황 -예상진로 -사회활동 참여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 투지, 회복탄력성, 주관적 건강 -재무관리 요인: 저축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진로행동, 고용희망, 고용장벽 -사회적 요인: 사회적 자본, 가족지지, 소득불평등 수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사업 인지 경로, 가입연월, 자유납입액, 사업 만족도, 포기 고려 이유, 개선점,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지원금 사용계획 및 비중
2020년	2020년 8월 24일 ~ 9월 30일(38일)	- 모집단 720명 - 최종 분석 558명 -참여자 413명 -해지자 117명	- 상동 - 재무관리 요인: 금융이해력 문항 추가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와 (중도)해지자별 문항 구분
2021년	2021년 10월 11일 ~ 10월 31일(21일)	- 모집단 558명 - 최종 분석 850명¹⁾ -참여자 104명 -지급해지자 266명 -중도해지자 124명 -신규참여자 356명	- 상동 - 고용장벽: 4개 문항 추가 - 참여활동: 지난 2년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활동 추가 - 효과적인 홍보방법 추가

주1) 제시된 최종 분석, 참여자, 지급해지자, 중도해지자, 신규참여자 수는 문항의 최대 응답치에 해당하며, 각 문항별로 응답자 수에는 차이가 있음

(3) 조사방법

PC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패널 조사 연구에 참여했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서베이 몽키(Survey monkey)를 활용함

조사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연구진 및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음. 데이터 수집은 2021년 10월 11일에 시작하여 2021년 10월 31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함

(4) 패널 관리

패널 관리를 위해서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패널 구축 사업의 패널 참여에 대해 동의하고 참여를 시작한 720명의 패널에게 정기적으로 패널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3차년도 온라인 설문 조사 종료 후에는 기존 패널 494명, 신규 패널 293명(총 787명)에게 2021년 11월 30일 조사 답례성 기프티콘을 발송함

패널 참여 안내 문자의 경우, 패널들이 장기간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하여 2020년 11월 2차 패널조사 이후, 2020년 12월 24일, 2021년 2월 16일, 4월 15일, 6월 17일에 패널 관리성 모바일 기프티콘 5천원권과 함께 안내 문자를 발송함. 문자 발송 시, 3차년도 온라인 설문이 진행되는 대략적인 시기와 추후 답례가 더 발송될 예정이라는 점과 설문조사에 대한 독려 문구를 삽입함

패널 유지를 위해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패널을 추적할 수 있도록 따로 연락할 수 있는 연구보조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패널 스스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함. 변경된 패널들이 연락이 두절 되어 패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관리함. 실제로 위의 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한 결과, 전화번호가 변경된 2명의 패널(2021년 기준)들이 연락처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주어, 지속적으로 패널로 유지할 수 있었음

더욱이 3차 패널조사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패널들의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음.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나 중도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1차년도 설문조사에 동의한 모든 패널에게 발송하는 관리 차원의 기프티콘이며, 마찬가지로 온라인 설문조사 역시 해지나 중도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패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을 안내함. 실제 3차년도 온라인 설문 문자 발송 시, ‘중지상태, 중도해지, 만기해지 상관없이 설

문 참여 가능’ 문구를 삽입하여 현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패널들 모두가 참여 대상이라는 것을 쉬운 표현으로 강조함. 또한, 청년들이 눈에 쉽게 기억되기 쉬운 ‘30분 투자하고 2만 원(편의점 기프티콘) 받아주세요!’ 라는 쉬운 문구를 삽입하여 청년들이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답례와 설문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2)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윤리 심의 대상이 됨. 본 연구의 계획서, 조사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동국대학교 IRB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받았음. 심의과정을 통해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조사과정과 설문 문항이 구성되었음을 승인받음(IRB 승인번호는 DUIRB-202109-02임)

IV 분석결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1.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및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조사 분석 개요
2.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및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특성
3.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응답자와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비교 분석 결과
4.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해지 유형 구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5.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2차 3차 연속응답 패널 시계열 분석 결과
6. 근로형태에 따른 3차 패널 분석 결과

IV 분석결과

1.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및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조사 분석 개요

1) 분석방법

(1)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수행함. 결과 제시 는 명목형 변수는 빈도(n)와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주관적 지표 등 연속형 변수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시함

(2) 집단비교

전술하였듯, 이번 조사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3차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함. 따라서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함. 나아가 패널 구분(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응답자)에 따른 분석과 함께 데이터 구분(패널 응답자, 신규 응답자), 해지자 구분(환수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근로형태 구분(상용직, 상용직 외 전체)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t검정, 일원분산분석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수행함

2. 청년희망통장사업 3차 패널 및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특성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21년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패널은 총 523명이며, 이 중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을 완료한 패널은 493명임. 2차년도에 구축한 패널 총 558명의 약 88%가 패널 조사에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본 조사에서는 패널 외 신규 응답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함. 3차까지 유지된 전체 패널 응답자 523명과 신규 응답자 356명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모두 전체의 60% 이상이 여성 응답자인 것으로

나타남. 학력은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순으로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패널에서 더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음. 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패널 응답자의 비율이, 경증 장애를 가졌거나 비등록장애인인 경우는 신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은 거의 유사하였지만 패널 응답자가 1세 가량 많았음

〈표4-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	신규	$\chi^2(df)$
성별	남성	190(36.3)	137(38.5)	.421(1)
	여성	333(63.7)	219(61.5)	
	계	523(100.0)	356(100.0)	
학력 (졸업기준)	무학	2(0.4)	0(0.0)	10.448(6)
	초등학교	3(0.6)	1(0.3)	
	중학교	28(5.4)	12(3.4)	
	고등학교	198(37.9)	140(39.4)	
	대학(2년제)	111(21.2)	70(19.7)	
	대학교(4년제)	158(30.2)	126(35.5)	
	대학원 이상	23(4.4)	6(1.7)	
	계	523(100.0)	355(100.0)	
장애	장애 없음	485(92.7)	315(88.7)	7.713(3)
	경증(4~6급)	5(1.0)	11(3.1)	
	중증(1~3급)	20(3.8)	14(3.9)	
	비등록장애인	13(2.5)	15(4.2)	
	계	523(100.0)	355(100.0)	
종교유무	있음	160(30.6)	114(32.1)	.228(1)
	없음	363(69.4)	241(67.9)	
	계	523(100.0)	355(100.0)	

(단위:세)

구분		패널	신규	t - test
연령	m(sd)	27.01(4.23)	26.31(6.22)	1.851
	min/max	20/42	17/42	
	계	523	356	

응답자의 가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두 집단 모두 미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었음. 패널 응답자의 경우 기혼인 비율이, 신규 응답자의 경우 이혼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두 집단 모두 혼자 산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하였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어머니나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4-2〉 응답자 가구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	신규	$\chi^2(df)$
가구주 여부	예	275(52.6)	178(50.0)	.565(1)
	아니오	248(47.4)	178(50.0)	
	계	523(100.0)	356(100.0)	
혼인상태	미혼	421(80.5)	289(81.2)	13.674(5)*
	기혼	62(11.9)	23(6.5)	
	별거	1(0.2)	1(0.3)	
	사별	2(0.4)	2(0.6)	
	이혼	35(6.7)	41(11.5)	
	사실혼(동거)	2(0.4)	0(0.0)	
	계	523(100.0)	356(100.0)	
함께 생활하는 가족	독거	206(39.4)	114(40.4)	-
	동거 (다중 응답)	배우자	65(12.5)	
		부	66(12.7)	
		모	134(25.9)	
		자녀	94(18.1)	
		조부모	22(4.2)	
		형제자매	113(21.8)	
		친인척	12(2.3)	
		기타	12(2.3)	
	계	518(100.0)	347(100.0)	

3.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응답자와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비교 분석 결과

1) 근로 및 고용 현황, 역량 및 인식

패널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신규 응답자의 경우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패널 응답자가 더 많았음

근로형태를 보면, 패널 응답자는 상용근로자(37.7%)와 프리랜서(9.6%) 비율이, 신규 응답자는 임시직근로자(46.2%), 특수형태고용종사자(4.5%), 자활근로/공공근로(3.1%)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한편, 구직 중이거나 구직 중이 아닌 실업자의 비율은 패널 응답자(16.9%)가 신규 응답자(10.7%)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근로시간형태를 보면 패널 응답자는 절반 이상(54.8%)이 전일제 근로자로 나타난 반면, 신규 응답자의 69.0%는 시간제 근로자로 조사됨

근무하는 직종을 보면,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모두 서비스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패널 응답자는 서비스종사자(35.5%) 외에도 사무종사자(21.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9.1%), 단순노무종사자(10.4%) 등에 분포하고 있음. 반면 신규 응답자는 서비스종사자(49.0%)에 다수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외에 사무종사자(12.7%), 단순노무종사자(11.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1.4%)의 순으로 나타남

패널 응답자의 4대보험의 가입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신규 응답자 보다 높았음.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입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강보험이었으며, 미가입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국민연금으로 확인됨. 신규 집단의 경우 가입 상황을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32%로 나타나 4대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은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희망은 긍정적임을, 고용장벽은 부정적임을 의미함. 신규 응답자의 고용장벽 점수가 더 높으므로,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4-3〉 근로 및 고용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	신규	$\chi^2(df)$
자격증 보유	자격증 없음	116(22.2)	111(31.3)	9.859(3)*
	1개 있음	125(23.9)	78(22.0)	
	2개 있음	118(22.6)	76(21.4)	
	3개 이상	164(31.4)	90(25.4)	
	계	523(100.0)	355(100.0)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97(37.7)	72(20.4)	68.683(9)***
	특수형태고용종사자	13(2.5)	16(4.5)	
	프리랜서	50(9.6)	27(7.6)	
	임시직근로자	120(22.9)	163(46.2)	
	일용직근로자	20(3.8)	13(3.7)	
	자활근로/공공근로	10(1.9)	11(3.1)	
	고용주/자영업자	21(4.0)	13(3.7)	
	무급가족종사자	4(0.8)	0(0.0)	
	실업자(구직 중)	61(11.7)	27(7.6)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이나 구직 중 아님)	27(5.2)	11(3.1)	
	계	523(100.0)	353(100.0)	
근로 시간형태	전일제	238(54.8)	95(31.0)	41.049(1)***
	시간제	196(45.2)	211(69.0)	
	계	434(100.0)	306(100.0)	
근로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317(73.0)	208(68.0)	2.236(1)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117(27.0)	98(32.0)	
	계	434(100.0)	306(100.0)	
직종	관리자	11(2.5)	6(2.0)	24.178(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3(19.1)	35(11.4)	
	사무종사자	91(21.0)	39(12.7)	
	서비스종사자	154(35.5)	150(49.0)	
	판매종사자	33(7.6)	30(9.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9)	1(0.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1.2)	4(1.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8)	5(1.6)	
	단순노무종사자	45(10.4)	36(11.8)	
	계	434(100.0)	306(100.0)	

구분	패널	신규	$\chi^2(df)$
----	----	----	--------------

* $p < .05$, ** $p < .01$, *** $p < .001$

<표4-4> 4대보험 가입 여부: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n=434)	신규(n=306)	$\chi^2(df)$
국민연금	가입	226(52.1)	114(37.3)	25.130(2)***
	미가입	149(34.3)	110(35.9)	
	모름	59(13.6)	82(26.8)	
건강보험	가입	276(63.6)	133(43.5)	32.424(2)***
	미가입	104(24.0)	98(32.0)	
	모름	54(12.4)	75(24.5)	
고용보험	가입	249(57.4)	127(41.5)	22.088(2)***
	미가입	122(28.1)	100(32.7)	
	모름	63(14.5)	79(25.8)	
산재보험	가입	225(51.8)	114(37.3)	17.053(2)***
	미가입	121(27.9)	99(32.4)	
	모름	88(20.3)	93(30.4)	

* $p < .05$, ** $p < .01$, *** $p < .001$

<표4-5>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점)

구분	패널(n=494)	신규(n=296)	t - test
고용희망	3.63(0.73)	3.63(0.79)	.045
고용장벽	2.77(0.71)	2.90(0.75)	-2.45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고용희망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고용장벽 1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5점(매우 영향을 미침) 척도로 측정. min/max=1/5

종합하면, 패널 응답자의 근로 역량 및 근로 지위가 신규 응답자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동시에 패널 응답자의 실업자 총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패널 응답자 집단 내 근로 상황이 양분(안정적인 집단과 실업자 집단)되고 있음을 짐작됨. 이는 패널 응답자 가운데 중도해지 집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한편, 신규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격증 보유 비율, 불안정한 근로 지위, 낮은 4대보험 가입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고용장벽

점수 또한 더 높게 보고되는 등 일관된 결과를 나타냄

2) COVID19의 영향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은 두 집단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COVID19로 인한 월평균 소득감소액은 신규 응답자가 평균 33만원 정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됨. COVID19로 인한 실직 경험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신규 응답자의 실직 경험 비율(35.5%)이 패널 응답자(27.9%) 보다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전술하였듯, 신규 응답자의 근로 지위가 더 불안정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4-6〉 COVID19로 인한 영향: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만원)

구분		패널	신규	$\chi^2(df)$, t -test
소득 감소 경험	예	210(40.9)	136(41.0)	.001(1)
	아니오	304(59.1)	196(59.0)	
	계	514(100.0)	332(100.0)	
소득 감소액	m(sd)	60.72(58.98)	93.43(344.53)	-1.105
	min/max	1/500	1/4000	
	계	210	138	
실직 경험	예	143(27.9)	118(35.5)	5.550(1)*
	아니오	370(72.1)	214(64.5)	
	계	513(100.0)	332(100.0)	

* $p < .05$, ** $p < .01$, *** $p < .001$

3) 소득 및 자산 현황

근로소득과 저축,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총생활비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은 패널 응답자가 약 138만원, 신규 응답자가 약 88으로 50만원의 차이를 보임. 월평균 저축액은 패널 응답자가 약 35만원, 신규 응답자가 약 25만원으로 나타남.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은 패널 응답자가 약 18만원, 신규 응답자가 12만원으로 조사됨. 총생활비는 패널 응답자가 약 106만원, 신규 응답자가 약 84만원으로 22만원 정도 차이를 보임. 모든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비용은 패널 응답자가 신규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됨. 근로소득의 차이는 근로 지위에서 비롯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산 및 부채, 총생활비용이 큰 이유는 패널 응답자가 가구주인 비율과 기혼인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일 것임

〈표4-7〉 소득 및 자산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만원)

구분		패널	신규	t - test
근로소득	m(sd)	137.87(97.05)	87.62(64.66)	9.032***
	min/max	0/684	0/500	
	계	513	332	
공적이전소득	m(sd)	47.81(71.53)	41.18(62.51)	1.422
	min/max	0/400	0/600	
	계	513	332	
사적이전소득	m(sd)	29.81(67.31)	24.02(44.62)	1.504
	min/max	0/700	0/300	
	계	514	332	
저축	m(sd)	34.73(45.36)	24.60(34.61)	3.595***
	min/max	0/200	0/200	
	계	489	321	
개인 부채	m(sd)	2124.80(3672.76)	1993.69(4030.17)	.369
	min/max	1/30000	1/40000	
	계	323	193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m(sd)	17.46(34.47)	12.16(32.41)	2.245*
	min/max	0/300	0/300	
	계	506	325	
총생활비	m(sd)	105.69(60.65)	84.31(49.78)	5.415***
	min/max	1/350	0/250	
	계	494	304	

*p < .05, **p < .01, ***p < .001

주 1) 개인 부채액은 개인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패널의 응답값을 제시함(부채액 0제외 평균값)

개인 부채 부담 및 가족 부양 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신규 응답자가 패널 응답자보다 미미하게 높았음

〈표4-8〉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점)

구분		패널(n=508)	신규(n=329)	t - test
부채부담정도	m(sd)	4.27(3.53)	4.64(3.64)	-1.453
가족부양부담정도	m(sd)	4.82(3.13)	5.04(3.28)	-.945

*p < .05, **p < .01, ***p < .001

주 1) 부채부담정도, 가족부양부담정도 0점(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10점(매우 부담)으로 측정. min/max=0/10

4) 주거 현황

거주하는 주택 유형으로는 패널 응답자는 임대아파트(23.9%), 다가구주택(19.9%), 일반아파트(17.3%), 연립주택(14.7%) 등 순이었으며, 신규 응답자는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20.3%), 임대아파트(19.3%), 다세대주택(13.8%) 등 순으로 조사됨. 주거점유형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반전세와 전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4-9〉 주거 현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	신규	$\chi^2(df)$, t - test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54(10.9)	25(8.2)	17.233(7)*
	다가구주택	99(19.9)	62(20.3)	
	다세대주택	43(8.7)	42(13.8)	
	연립주택	73(14.7)	62(20.3)	
	일반아파트	86(17.3)	35(11.5)	
	임대아파트	119(23.9)	59(19.3)	
	비거주용 건물	2(0.4)	1(0.3)	
	준주택	21(4.2)	19(6.2)	
	계	497(100.0)	305(100.0)	
주거 위치	지하층	4(0.8)	1(0.3)	.840(3)
	반지층	14(2.8)	10(3.3)	
	지상층	474(95.2)	291(95.1)	
	옥탑	6(1.2)	4(1.3)	
	계	498(100.0)	306(100.0)	
주거점유형태	자가	42(8.5)	18(6.0)	4.684(5)

구분		패널	신규	$\chi^2(df), t - test$
	전세	117(23.6)	75(24.8)	
	반전세	164(33.1)	107(35.4)	
	월세	22(4.4)	15(5.0)	
	무상	27(5.4)	23(7.6)	
	기타	124(25.0)	64(21.2)	
	계	496(100.0)	302(100.0)	
주택 면적	m(sd)	44.50(26.64)	44.16(31.68)	.157
	min/max	1/198	0/330	
	사례수	498	304	

* $p < .05$, ** $p < .01$, *** $p < .001$

5)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인식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두 집단 모두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재무관리역량은 보통보다 미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음. 금융이해력은 총 5개 질문 중 평균 1개 정도를 맞추었다는 점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이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즉,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저축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비해 실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금융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더욱이 패널 응답자의 경우 부가 서비스가 주어짐에도 신규 응답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재무관리 및 경제교육 등에 있어 현실성 있는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스트레스는 현재 경제적 상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확인한 문항으로 패널 응답자(3.31)에 비해 신규 응답자(3.55)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불안정한 근로지위와 높은 고용장벽 인식, COVID19로 인한 실직 경험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4-10>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점)

구분		패널(n=497)	신규(n=302)	t - test
저축태도	m(sd)	3.70(0.65)	3.71(0.64)	-.125
경제적 스트레스	m(sd)	3.31(0.91)	3.55(0.90)	-3.672***
재무관리역량	m(sd)	2.89(0.58)	2.96(0.62)	-1.644
금융이해력	m(sd)	1.00(0.81)	0.95(0.86)	.941

구분	패널(n=497)	신규(n=302)	t - test
----	-----------	-----------	----------

*p < .05, **p < .01, ***p < .001

주 1) 저축태도, 경제적여건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재무관리역량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4

3) 금융이해력은 5개 문항에 대한 정답을 몇 개나 맞추었는지에 따라 0점(모두 틀림)~5점(5개 문항 모두 맞음)으로 측정함. min/max=0/5

6)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행동

1년 뒤 예상진로에 있어 두 집단 모두 취업유지, 특별한 진로계획 없음, 이직, 개인 사업 및 창업 순으로 나타남. 다만 패널 응답자는 취업유지나 이직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신규 응답자는 상급학교 진학과 편입학, 개인 사업 및 창업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임. 이는 패널 응답자의 경우 현재의 안정적인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신규 응답자의 경우 상급학교나 편입학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거나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경로와 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함

<표4-11> 1년 뒤 예상 진로: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n=497)	신규(n=304)	$\chi^2(df)$
취업유지	412(82.9)	236(77.6)	-
이직	283(56.9)	126(41.4)	
상급학교 진학	61(12.3)	60(19.7)	
편입학	18(3.6)	30(9.9)	
개인 사업 및 창업	153(30.8)	98(32.2)	
군입대	13(2.6)	15(4.9)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358(72.0)	191(62.8)	
기타	193(38.8)	156(51.3)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신규 응답자가 패널 응답자보다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보임. 진로행동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진로행동을 보임

〈표4-12〉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점)

구분	패널	신규	t - test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4.56(2.42)	4.33(2.61)	1.288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2.44(0.82)	2.43(0.80)	.167

*p < .05, **p < .01, ***p < .001

주 1) 미래 경제 상황 전망은 0점(매우 비관적)–10점(매우 희망적)으로 측정. min/max=0/10

2) 진로행동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7) 심리정서적 상황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간 심리정서적 상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우울은 계산된 값이 16점을 넘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 모두 우울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음. 행복지수는 큰 차이는 아니나 패널 응답자는 최종행복점수, 만족감, 긍정정서가 모두 신규 응답자보다 미미하게 높았으며, 신규 응답자는 부정정서가 미미하게 높았음

〈표4-13〉 심리정서적 상황: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점)

구분		패널(n=497)	신규(n=303)	t - test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36(0.71)	3.32(0.81)	.752
우울(척도값 평균)		18.09(12.74)	18.83(14.45)	-.737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3.42(8.51)	12.97(9.94)	.645
	만족감	13.36(3.84)	13.08(4.34)	.933
	긍정정서	14.59(3.55)	14.49(3.77)	.384
	부정정서	14.54(3.42)	14.60(3.76)	-.220

*p < .05, **p < .01, ***p < .001

주 1) 자아존중감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우울 0점(극히 드물다)–3점(대부분 그랬다)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1개 문항의 총합*(20/11)로 계산한 값을 확인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3) 행복지수 각 항목(만족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7

4) 최종행복점수=(만족감+긍정정서)–부정정서 (min/max=-15/39)

8)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사회적 자본은 보통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족지지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남

〈표4-14〉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점)

구분	패널	신규	t - test
사회적 자본(척도값 평균)	2.82(0.46)	2.84(0.48)	-.605
가족지지 (척도값 평균)	3.30(1.00)	3.27(1.19)	.391

*p < .05, **p < .01, ***p < .001

주 1) 사회적 자본, 가족지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다만 패널 응답자는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신규 집단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인 부분은 두 집단 모두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으로 정보 안내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4-1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점)

구분	패널(n=494)	신규(n=294)	t - test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65(0.98)	3.65(0.97)	.021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20(1.02)	3.08(1.09)	1.554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26(1.06)	3.25(1.04)	.14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62(0.98)	3.66(0.92)	-.633

*p < .05, **p < .01, ***p < .001

주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각 항목 1점(매우불만족)-5점(매우 만족)으로 측정. min/max=1/5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사업 포기 고려 이유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은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한편 포기하려고 한 적

이 있었던 경우 그 이유로, 패널 응답자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21.2%)과 근로 지속의 어려움(18.3%), 신규 응답자는 근로 지속의 어려움(18.2%)과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12.4%) 순으로 응답함

〈표4-16〉 사업 포기 고려 이유: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	신규	$\chi^2(df)$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54(51.9)	179(65.3)	11.591(6)
근로 지속의 어려움	19(18.3)	50(18.2)	
행정적 불편함	2(1.9)	4(1.5)	
가족의 반대	2(1.9)	1(0.4)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22(21.2)	34(12.4)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1.0)	3(1.1)	
기타	4(3.8)	3(1.1)	
계	104(100.0)	274(100.0)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해지자만을 대상으로 해지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패널 응답자는 탈수급(38.6%), 근로 지속의 어려움(18.4%), 급히 돈이 필요해서(14.6%) 등의 순으로 조사됨. 신규 응답자는 근로 지속의 어려움(28.6%), 행정적 불편함 및 급히 돈이 필요해서(14.3%) 등의 순이었음

이는 참여자의 사업 포기 고려 이유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추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가 경험하는 근로 지속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열악한 근로조건, 직무역량 부족, 불안정한 근로지위 등-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4-17〉 해지자의 해지 이유(중복응답):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n=158)	신규(n=21)	$\chi^2(df)$
탈수급	61(38.6)	2(9.5)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소득	12(7.6)	0(0.0)	
근로 지속의 어려움	29(18.4)	6(28.6)	
행정적 불편함	6(3.8)	3(14.3)	
가족의 반대	0(0.0)	1(4.8)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1.3)	1(4.8)	
급히 돈이 필요해서	23(14.6)	3(14.3)	
COVID19의 영향으로	7(4.4)	1(4.8)	
군 입대	4(2.5)	2(9.5)	
압류/가압류	1(0.6)	0(0.0)	
기타	13(8.2)	2(9.5)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선점을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급 조건 완화,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 중복 참여 허용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해지자를 대상으로 개선점을 확인한 결과 참여자와 유사하게 수급조건 완화가 거의 절반에 달함. 이외에 패널 응답자는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15.4%)과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13.1%)를 주요한 개선점으로 꼽은 반면, 신규 응답자는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와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15.8%)이라고 응답함. 참여자와 해지자 모두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을 가장 원하고 있음. 또한 통장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4-18〉 참여자가 제안하는 통장 사업 개선점: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n=103)	신규(n=271)	$\chi^2(df)$
저축금액 다양화	21(20.4)	48(17.7)	3.869(5)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45(43.7)	139(51.3)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11(10.7)	19(7.0)	
가족 중복 참여 허용	17(16.5)	34(12.5)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5(4.9)	19(7.0)	
기타	4(3.9)	12(4.4)	

〈표4-19〉 해지자가 제안하는 통장 사업 개선점: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n=383)	신규(n=19)	$\chi^2(df)$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203(53.0)	9(47.4)	1.606(5)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50(13.1)	3(15.8)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38(9.9)	3(15.8)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28(7.3)	2(10.5)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	59(15.4)	2(10.5)	
기타	5(1.3)	0(0.0)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수령 시 사용 계획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모두 주택마련, 미래 생활 대비를 위한 저축, 본인 및 가족의 교육비, 부채 상환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20〉 참여자의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3차 패널-신규 응답자 구분
(단위:명(%))

구분	패널(n=104)	신규(n=274)	$\chi^2(df)$
교육비(본인 및 가족)	40(38.5)	90(32.8)	-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72(69.2)	214(78.1)	
결혼, 상제비	24(23.1)	49(17.9)	
미래생활 대비(저축)	69(66.3)	182(66.4)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13(12.5)	60(21.9)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22(21.2)	53(19.3)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7(16.3)	40(14.6)	
여행 및 여가생활	10(9.6)	34(12.4)	
부채 상환	32(30.8)	75(27.4)	
특별한 목적이 없음	6(5.8)	15(5.5)	
기타	7(6.7)	10(3.6)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4.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해지 유형 구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본 연구는 3차년도 패널에 응답한 총 523명 중 현재 참여 중인 82명을 제외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해지한 441명에 대해 해지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그 결과를 제시함. 해지 유형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급해지: 지급해지는 중도지급해지와 만기지급해지로 구분되며, 중도지급해지의 경우 사업 참여 중 탈수급하고 소득상한도 초과하는 경우임. 만기지급해지는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고 사용용도증빙을 제출완료한 경우임
- 일부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는 통장사업은 3년 만기 성공하였으나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하지 못하거나,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을 못한 경우, 혹은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하고 군입대하는 경우임. 대부분의 일부지급해지는 탈수급에 실패한 경우임
- 환수해지: 환수해지는 연속 6개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해서 포기하는 경우이며, 적지만 사망, 압류/가입류의 경우도 포함됨

1) 근로 및 고용 현황, 역량 및 인식

환수해지 집단과 지급해지 집단, 일부지급해지 집단의 근로 및 고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일부지급해지 집단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3개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많았음

근로형태를 보면, 지급해지 집단의 상용근로자 비율(47.0%)이 가장 많았으며, 임시직근로자(18.7%)와 프리랜서(10.5%) 등의 순으로 조사됨. 환수해지 집단에서도 상용근로자 비율(32.8%)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 구직 중인 실업자(17.9%) 비율이 높게 나타남. 환수해지 집단 내 총 실업자 비율이 약 27%로 나타남은 환수해지 집단이 연속 6개월의 근로사업소득 미발생 청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일부지급해지 집단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 비율(37.3%)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음

근로시간형태는 환수해지 및 지급해지 집단은 전일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시간제인 청년이 2/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근로지속가능성은 모든 집단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특히 지급해지 집단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근무하는 직종을 보면, 전술한 응답과 동일하게 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많았음. 이외에 환수해지 집단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4.5%)와 단순노무종사자(20.4%) 근로 비율이 높았음. 지급해지 집단에서는 사무종사자(24.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0.4%) 순이었음.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단순노무종사자(19.6%)와 사무종사자(11.9%) 등으로 나타남

해지유형별 4대보험 가입 현황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대보험 가입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지급해지 집단, 가장 낮은 집단은 일부지급해지 집단이었음

고용희망은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적임을 의미하는데, 지급해지 집단의 고용희망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자신의 현재 및 미래의 고용과 관련해서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일부지급해지집단으로 나타남

〈표4-21〉 근로 및 고용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명(%))

구분		환수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chi^2(df)$
자격증 보유	자격증 없음	12(17.9)	54(17.1)	21(35.6)	18.669(6) **
	1개 있음	19(28.4)	79(25.1)	11(18.6)	
	2개 있음	18(26.9)	66(21.0)	17(28.8)	
	3개 이상	18(26.9)	116(36.8)	10(16.9)	
	계	67(100.0)	315(100.0)	59(100.0)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22(32.8)	148(47.0)	9(15.3)	58.317(18)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1(1.5)	8(2.5)	4(6.8)	
	프리랜서	5(7.5)	33(10.5)	6(10.2)	
	임시직근로자	10(14.9)	59(18.7)	22(37.3)	
	일용직근로자	3(4.5)	8(2.5)	5(8.5)	
	자활근로/공공근로	5(7.5)	1(0.3)	3(5.1)	
	고용주/자영업자	2(3.0)	15(4.8)	2(3.4)	
	무급가족종사자	1(1.5)	3(1.0)	0(0.0)	
	실업자(구직 중)	12(17.9)	25(7.9)	6(10.2)	
	실업자(구직 중 아님)	6(9.0)	15(4.8)	2(3.4)	
	계	67(100.0)	315(100.0)	59(100.0)	

구분		환수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chi^2(df)$
근로 시간 형태	전일제	33(67.3)	162(59.1)	18(35.3)	12.444(2) **
	시간제	16(32.7)	112(40.9)	33(64.7)	
	계	49(100.0)	274(100.0)	51(100.0)	
근로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37(75.5)	219(79.9)	26(51.0)	19.424(2)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12(24.5)	55(20.1)	25(49.0)	
	계	49(100.0)	274(100.0)	51(100.0)	
직종	관리자	0(0.0)	9(3.3)	2(3.9)	34.443(16)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24.5)	56(20.4)	5(9.8)	
	사무종사자	9(18.4)	68(24.8)	6(11.8)	
	서비스종사자	14(28.6)	94(34.3)	22(43.1)	
	판매종사자	2(4.1)	18(6.6)	4(7.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0)	1(0.4)	2(3.9)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0.0)	4(1.5)	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1)	6(2.2)	0(0.0)	
	단순노무종사자	10(20.4)	18(6.6)	10(19.6)	
	계	49(100.0)	274(100.0)	51(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4-22> 4대 보험 가입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명(%))

구분		환수해지 (n=49)	지급해지 (n=274)	일부지급해지 (n=51)	$\chi^2(df)$
국민연금	가입	27(55.1)	166(60.6)	12(23.5)	24.832(4)***
	미가입	14(28.6)	79(28.8)	29(56.9)	
	모름	8(16.3)	29(10.6)	10(19.6)	
건강보험	가입	27(55.1)	213(77.7)	9(17.6)	76.090(4)***
	미가입	13(26.5)	40(14.6)	31(60.8)	
	모름	9(18.4)	21(7.7)	11(21.6)	
고용보험	가입	30(61.2)	177(64.6)	18(35.3)	19.251(4)**
	미가입	10(20.4)	63(23.0)	25(49.0)	
	모름	9(18.4)	34(12.4)	8(15.7)	
산재보험	가입	26(53.1)	165(60.2)	15(29.4)	21.880(4)***
	미가입	12(24.5)	60(21.9)	26(51.0)	
	모름	11(22.4)	49(17.9)	10(19.6)	

* $p < .05$, ** $p < .01$, *** $p < .001$

〈표4-23〉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점)

구분	환수해지(n=60)	지급해지(n=299)	일부지급해지(n=55)	F (Scheffe)
고용희망	3.61(0.80)	3.68(0.71)	3.33(0.71)	5.566** (B>C)
고용장벽	2.84(0.77)	2.73(0.72)	2.88(0.68)	1.464

*p < .05, **p < .01, ***p < .001

주 1) 고용희망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고용장벽 1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5점(매우 영향을 미침) 척도로 측정. min/max=1/5

종합하면, 지급해지 집단이 근로 역량 및 근로 지위가 가장 안정적인 집단임이 확인됨. 지급해지 집단의 자격증 갯수와 상용근로자 비율, 전일제 비율, 4대보험 가입율이 가장 높으며 근무 직종 역시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환수해지 집단은 연속 6개월 간 근로소득이 미발생했거나 본인의 희망, 또는 군입대, 용도증빙 불가 등의 사유로 환수해지한 집단으로 실제로 실업자 비율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및 임시직 근로자 비율, 4대보험 미가입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으며, 시간제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만큼 근로 역량 및 근로 지위가 가장 불안정한 집단인 것으로 조사됨

2) COVID19의 영향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지급해지 집단 순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실질적인 월평균 소득감소액은 지급해지 집단이 69.45만원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COVID19로 인한 실직 경험은 일부지급해지, 지급해지, 환수해지 집단 순서로 많았음

〈표4-24〉 COVID19로 인한 영향: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명(%), 만원)

구분		환수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chi^2(df)$, F
소득 감소 경험	예	22(34.9)	120(38.6)	31(53.4)	5.305(2)
	아니오	41(65.1)	191(61.4)	27(46.6)	
	계	63(100.0)	311(100.0)	58(100.0)	
소득 감소액	m(sd)	60.26(41.59)	69.45(69.32)	40.84(31.78)	2.723
	min/max	1/150	1/500	10/120	
	계	23	119	31	
실직 경험	예	12(19.0)	88(28.4)	18(31.0)	2.748(2)
	아니오	51(81.0)	222(71.6)	40(69.0)	
	계	63(100.0)	310(100.0)	58(100.0)	

*p < .05, **p < .01, ***p < .001

3) 소득 및 자산 현황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저축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근로 역량이 가장 높으며 근로 지위가 안정적이었던 지급해지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 집단 순으로 조사됨. 특히 지급해지 집단과 일부지급해지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 차이는 약 63만원 정도로 나타남. 사적이전소득과 월평균저축액 모두 가장 높은 집단은 지급해지 집단이었으며, 일부해지 집단과 각각 약 25만원, 18만원의 차이를 보임. 한편, 가족부양부담은 일부지급해지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25〉 소득 및 자산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만원)

구분		환수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F (Scheffe)
근로소득	m(sd)	119.94(102.37)	157.17(90.76)	93.97(69.45)	14.503*** (B>A,C)
	min/max	0/540	0/630	0/300	
	계	63	310	58	
공적이전소득	m(sd)	43.17(62.70)	53.08(79.60)	29.78(45.92)	2.639
	min/max	0/200	0/400	0/230	
	계	63	310	58	
사적이전소득	m(sd)	17.78(42.18)	36.53(78.89)	11.33(27.00)	4.415* (B>C)
	min/max	0/200	0/700	0/100	
	계	63	311	58	
저축	m(sd)	25.51(40.80)	40.96(48.16)	22.55(37.35)	5.734** (B>C)
	min/max	0/200	0/200	0/200	
	계	63	291	55	
개인 부채	m(sd)	1830.62(2543.45)	2573.87(4400.55)	1518.95(2025.58)	1.548
	min/max	1/10000	1/30000	1/10000	
	계	39	194	40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m(sd)	17.05(38.98)	18.74(31.99)	18.74(45.46)	0.062
	min/max	0/200	0/200	0/300	
	계	63	304	57	
총생활비	m(sd)	98.75(63.60)	110.48(60.48)	95.95(67.47)	1.875
	min/max	1/300	1/350	10/300	
	계	59	300	55	

*p < .05, **p < .01, ***p < .001

주 1) 개인 부채액은 개인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패널의 응답값을 제시함(부채액 0제외 평균값)

〈표4-26〉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점)

구분		환수해지 (n=63)	지급해지 (n=306)	일부지급해지 (n=57)	F (Scheffe)
부채부담정도	m(sd)	4.59(3.65)	4.08(3.53)	5.07(3.54)	2.124
가족부양부담정도	m(sd)	4.67(3.21)	4.75(3.16)	5.89(2.74)	3.450* (C>B)

*p < .05, **p < .01, ***p < .001

주 1) 부채부담정도, 가족부양부담정도 0점(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10점(매우 부담) 으로 측정. min/max=0/10

4) 주거 현황

환수해지 집단은 일반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각 25%)과 임대아파트(20%), 지급해지 집단은 임대아파트(24.7%)와 일반아파트 및 다가구주택(각 18.7%),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임대아파트(26.3%), 다가구주택(21.1%), 연립주택(15.8%) 등에 거주 중임. 주거점유형태는 모든 집단에서 반전세가 가장 많으며, 이외에 기타, 전세 등으로 확인됨

〈표4-27〉 주거 현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명(%))

구분		환수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chi^2(df), F$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15(25.0)	24(8.0)	7(12.3)	25.825(14)*
	다가구주택	15(25.0)	56(18.7)	12(21.1)	
	다세대주택	4(6.7)	26(8.7)	7(12.3)	
	연립주택	5(8.3)	47(15.7)	9(15.8)	
	일반아파트	5(8.3)	56(18.7)	7(12.3)	
	임대아파트	12(20.0)	74(24.7)	15(26.3)	
	비주거용 건물	0(0.0)	2(0.7)	0(0.0)	
	준주택	4(6.7)	15(5.0)	0(0.0)	
	계	60(100.0)	300(100.0)	57(100.0)	
주거 위치	지하층	1(1.7)	3(1.0)	0(0.0)	6.096(6)
	반지층	3(5.0)	5(1.7)	1(1.8)	
	자상층	54(90.0)	289(96.0)	56(98.2)	
	옥탑	2(3.3)	4(1.3)	0(0.0)	
	계	60(100.0)	301(100.0)	57(100.0)	
주거점유형태	자가	6(10.0)	23(7.7)	4(7.0)	13.894(10)
	전세	11(18.3)	81(27.1)	7(12.3)	
	반전세	20(33.3)	98(32.8)	24(42.1)	
	월세	3(5.0)	10(3.3)	3(5.3)	
	무상	7(11.7)	13(4.3)	2(3.5)	
	기타	13(21.7)	74(24.7)	17(29.8)	
	계	60(100.0)	299(100.0)	57(100.0)	
주택 면적	m(sd)	42.15(26.61)	44.25(26.01)	45.09(23.79)	.218
	min/max	3/99	1/198	2/99	
	사례수	60	301	57	

* $p < .05$, ** $p < .01$, *** $p < .001$

5)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저축태도 및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지급해지자가 가장 높아 저축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강하면서 재무 관련 역량 역시 가장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음. 한편 경제적 스트레스 즉, 경제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은 일부지급해지자가 가장 높았음. 금융이해력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아 참여자들에 대한 금융이해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됨

〈표4-28〉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점)

구분		환수해지 (n=60)	지급해지 (n=300)	일부지급해지 (n=57)	F (Scheffe)
저축태도	m(sd)	3.61(0.72)	3.77(0.62)	3.49(0.70)	5.354** (B>C)
경제적 스트레스	m(sd)	3.33(1.06)	3.23(0.88)	3.61(0.98)	4.123* (C>B)
재무관리역량	m(sd)	2.86(0.68)	2.92(0.56)	2.67(0.61)	4.479* (B>C)
금융이해력	m(sd)	1.10(0.92)	1.02(0.77)	1.07(0.92)	.293

*p < .05, **p < .01, ***p < .001

주 1) 저축태도, 경제적여건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재무관리역량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4

3) 금융이해력은 5개 문항에 대한 정답을 몇 개나 맞추었는지에 따라 0점(모두 틀림)~5점(5개 문항 모두 맞힘)으로 측정함. min/max=0/5

6)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행동

1년 뒤 예상진로에 있어 모든 집단에서 취업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상대적으로 근로 지위가 안정적인 집단에 해당하는 지급해지나 환수해지 집단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았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급해지자 집단의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일부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상황으로 조사됨. 진로행동은 모든 집단에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진로행동을 보임. 이미 안정적 근로 상황에 접어든 지급해지자 집단의 진로행동이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일부지급해지자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음

〈표4-29〉 1년 뒤 예상 진로: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명(%))

구분	환수해지 (n=60)	지급해지 (n=300)	일부지급해지 (n=57)	$\chi^2(df)$
취업유지	60(100.0)	259(86.3)	43(75.4)	-
이직	30(50.0)	176(58.7)	25(43.9)	
상급학교 진학	6(10.0)	35(11.7)	6(10.5)	
편입학	2(3.3)	9(3.0)	3(5.3)	
개인 사업 및 창업	15(25.0)	101(33.7)	11(19.3)	
군입대	3(5.0)	4(1.3)	4(7.0)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42(70.0)	200(66.7)	58(100.0)	
기타	22(36.7)	116(38.7)	21(36.8)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표4-30〉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점)

구분	환수해지 (n=63)	지급해지 (n=306)	일부지급해지 (n=57)	F (Scheffe)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4.52(2.48)	4.65(2.33)	3.61(2.63)	4.543* (B>C)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2.51(0.80)	2.41(0.80)	2.61(0.88)	1.620

*p < .05, **p < .01, ***p < .001

주 1) 미래 경제상황 전망은 0점(매우 비관적)~10점(매우 희망적)으로 측정. min/max=0/10

2) 진로행동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7) 심리정서적 상황

심리정서적 상황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자아존중감은 지급해지 집단(3.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지급해지 집단(3.15)이 가장 낮았음.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16점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우울 수준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표4-31〉 심리정서적 상황: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점)

구분		환수해지 (n=60)	지급해지 (n=300)	일부지급해지 (n=57)	F (Scheffe)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37(0.80)	3.42(0.70)	3.15(0.60)	3.582* (B>C)
우울(척도값 평균)		17.48(11.67)	17.71(12.59)	16.59(12.58)	.195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4.47(9.34)	14.14(8.19)	12.16(9.00)	1.455
	만족감	13.37(4.60)	13.76(3.65)	12.46(3.81)	2.833
	긍정정서	14.72(3.93)	14.91(3.30)	13.74(4.24)	2.640
	부정정서	13.62(4.15)	14.53(3.36)	14.04(3.53)	1.932

*p < .05, **p < .01, ***p < .001

주 1) 자아존중감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우울 0점(극히 드물다)~3점(대부분 그랬다)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1개 문항의 총합*(20/11)로 계산한 값을 확인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3) 행복지수 각 항목(만족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3/21

4) 최종행복점수=(만족감+긍정정서)-부정정서 (min/max=-15/39)

8)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모든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음. 가족지지가 가장 낮은 집단은 일부지급해지 집단(3.10)으로 확인됨

〈표4-32〉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점)

구분	환수해지 (n=60)	지급해지 (n=299)	일부지급해지 (n=57)	F
사회적 자본(척도값 평균)	2.85(0.56)	2.84(0.45)	2.71(0.49)	1.884
가족지지 (척도값 평균)	3.33(1.10)	3.34(0.99)	3.10(0.96)	1.313

*p < .05, **p < .01, ***p < .001

주 1) 사회적 자본, 가족지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지원 금액의 수준과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사업만족도의 모든 차원에서 환수해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으며, 지급해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인 것은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4-33〉 사업만족도: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점)

구분	환수해지 (n=60)	지급해지 (n=299)	일부지급해지 (n=55)	F (Scheffe)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23(1.01)	3.77(0.97)	3.47(1.00)	8.652*** (B>A)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05(0.89)	3.27(1.03)	3.16(0.96)	1.323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2.97(0.97)	3.34(1.07)	3.20(0.99)	3.400* (B>A)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17(0.92)	3.77(0.95)	3.40(0.97)	11.864*** (B>C,A)

*p < .05, **p < .01, ***p < .001

주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각 항목 1점(매우불만족)~5점(매우 만족)으로 측정. min/max=1/5

해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환수해지 및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전체 2/3 이상의 청년들이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을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급해지자 집단은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과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4-34〉 해지자가 제안하는 개선점: 3차 패널 해지 유형별 구분

(단위:명(%))

구분	환수해지 (n=50)	지급해지 (n=271)	일부지급해지 (n=41)	$\chi^2(df)$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30(60.0)	136(50.2)	29(70.7)	16.982 (10)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7(14.0)	33(12.2)	3(7.3)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4(8.0)	28(10.3)	4(9.8)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0(0.0)	26(9.6)	1(2.4)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	7(14.0)	46(17.0)	3(7.3)	
기타	2(4.0)	2(0.7)	1(2.4)	

*p < .05, **p < .01, ***p < .001

5.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2차, 3차 연속응답 패널 시계열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지난 2019년,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를 시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키움통장 패널’ 구축 연구를 시작으로 두 번의 후속 연구를 통해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의 변화를 추적해왔음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처음 개설한 참여자들의 사업 참여 기간이 올해로 통장 사업의 만기 시점인 3년에 도달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기구축된 패널의 상당수 역시 사업 참여를 완료하여 기구축된 패널의 응답을 활용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속응답 패널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함

지난 2019년 총 720명의 패널을 구축한 후 당해연도까지 연평균 80%이상의 패널을 유지해온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연속응답 패널은 총 478명(전체 패널 중 66.2%)이었으며 여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¹⁾을 실시함

1) 연속 응답 패널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응답 기준, 연속응답 패널의 60% 이상은 여성 응답자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가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4년제) 31.0%, 대학(2년제) 21.3% 순으로 많았음

대부분의 연속응답 패널이 장애가 없다(92.7%)고 응답한 반면, 중증 장애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 비등록장애인은 2.5%이었음. 한편,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연속응답 패널은 31.6%임

3차년도 응답 기준, 연속응답 패널의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연속응답 패널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응답자는 42세, 연령이 낮은 응답자는 20세였음

1)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은 하나 이상의 집단이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분석 기법임

〈표4-35〉 연속응답 패널의 일반적 현황 (n=478)

(단위:명(%))

구분		연속응답 패널
성별	남성	169(35.4)
	여성	309(64.6)
	계	478(100.0)
학력 (졸업기준)	무학	2(0.4)
	초등학교	3(0.6)
	중학교	23(4.8)
	고등학교	178(37.2)
	대학(2년제)	102(21.3)
	대학교(4년제)	148(31.0)
	대학원 이상	22(4.6)
	계	478(100.0)
장애	장애 없음	443(92.7)
	경증(4~6급)	4(0.8)
	중증(1~3급)	19(4.0)
	비등록장애인	12(2.5)
	계	478(100.0)
종교유무	있음	151(31.6)
	없음	327(68.4)
	계	478(100.0)

(단위:세)

구분		연속응답 패널
연령	m(sd)	27.09(4.24)
	min/max	20/42
	계	478

연속응답 패널의 가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인 52.7%가 가구주로 확인되었으며 혼인상태는 미혼이 80.5%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11.5%, 이혼이 6.9% 순이었음

1인 가구의 비율은 38.7%였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고 응답한 연속응답 패널의 28.6%는 모와 함께 생활 중이었으며 22.3%는 형제자매, 17.6%는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4-36〉 연속응답 패널의 가구 현황

(단위:명(%))

구분			연속응답 패널
가구주 여부	예		252(52.7)
	아니오		226(47.3)
	계		478(100.0)
혼인상태	미혼		385(80.5)
	기혼		55(11.5)
	별거		1(0.2)
	사별		2(0.4)
	이혼		33(6.9)
	사실혼(동거)		2(0.4)
	계		478(100.0)
함께 생활하는 가족	독거		185(38.7)
	동거 (다중응답)	배우자	82(9.5)
		부	111(12.8)
		모	247(28.6)
		자녀	151(17.5)
		조부모	39(4.5)
		형제자매	193(22.3)
		친인척	20(2.3)
		기타	22(2.5)
		계	865(100.0)

1) 근로 및 고용 현황, 역량 및 인식

연속응답 패널 중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 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패널의 비율은 각 21.3%, 25.3%로 전년도 대비 2.8%p, 3.8%p 감소한 반면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p(2개 있음 3.8%p, 3개 이상 2.7%p) 증가함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4.5%p 증가한 38.1%이었으며,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16.0%p 감소한 22.8%로 확인됨.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로 근로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p 증가하여, 절반 이상의 패널이 전일제(54.3%)로 근로중인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용근로자와 전일제 비율이 증가하여, 패널들의 근로 상황은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됨.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역시 전년도 대비 3.4%p 증가함

직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20.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9.8%), 단순노무종사자(10.9%) 순이었음

2차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폭이 가장 큰 직종은 사무종사자(7.2%p),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1%p), 단순노무종사자(2.7%p) 순이었음

한편, 연속응답 패널 중 실업자(구직중)의 비율은 0%로 모든 패널이 구직에 성공하여 근로 중이었음

〈표4-37〉 근로 및 고용 현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자격증 보유	자격증 없음	122(25.5)	115(24.1)	102(21.3)	-2.8%p
	1개 있음	131(27.4)	139(29.1)	121(25.3)	-3.8%p
	2개 있음	107(22.4)	86(18.0)	105(22.0)	+3.9%p
	3개 이상	118(24.7)	137(28.7)	150(31.4)	+2.7%p
	계	478(100.0)	477(100.0)	478(100.0)	-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145(30.3)	160(33.5)	182(38.1)	+4.5%p
	임시직근로자	152(31.8)	185(38.8)	109(22.8)	-16.0%p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	-	11(2.3)	+2.3%p
	- 프리랜서	-	-	43(9.0)	+9.0%p
	일용직근로자	75(15.7)	37(7.8)	18(3.8)	-4.0%p
	자활/공공근로	11(2.3)	12(2.5)	7(1.5)	-1.1%p
	고용주/자영업자	16(3.3)	17(3.6)	21(4.4)	+0.8%p
	무급가족종사자	3(0.6)	5(1.0)	4(0.8)	-0.2%p
	실업자(구직 중)	21(4.4)	61(12.8)	58(12.1)	-0.7%p
	실업자(구직 중 아님)	55(11.5)	-	25(5.2)	+5.2%p
	계	478(100.0)	477(100.0)	478(100.0)	-
근로 시간	전일제	161(33.7)	193(47.3)	214(54.3)	+7.0%p
	시간제	317(66.3)	215(52.7)	180(45.7)	-7.0%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형태	계	478(100.0)	408(100.0)	394(100.0)	-
근로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344(72.0)	286(69.4)	287(72.8)	+3.4%p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134(28.0)	126(30.6)	107(27.2)	-3.4%p
	계	478(100.0)	412(100.0)	394(100.0)	-
직종	관리자	6(1.3)	8(1.7)	11(2.8)	+1.1%p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4(13.4)	70(14.7)	78(19.8)	+5.1%p
	사무종사자	59(12.3)	65(13.6)	82(20.8)	+7.2%p
	서비스종사자	195(40.8)	177(37.1)	132(33.5)	-3.6%p
	판매종사자	28(5.9)	31(6.5)	33(8.4)	+1.9%p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1.0)	4(0.8)	4(1.0)	+0.2%p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1.5)	7(1.5)	4(1.0)	-0.5%p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3.1)	7(1.5)	7(1.8)	+0.3%p
	단순노무종사자	32(6.7)	39(8.2)	43(10.9)	+2.7%p
	실업자(구직중)	67(14.0)	69(14.5)	-	-14.5%p
	계	478(100.0)	477(100.0)	394(100.0)	-

주 1) 근로형태 2019년 비경제활동인구 항목 2020년 실업자 항목에 통합됨

패널들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각 보험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52.5%, 건강보험 가입자는 65.0%, 고용보험 가입자는 56.9%, 산재보험 가입자는 51.3%으로 모든 보험에 대해 연속 응답 패널의 가입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10.5%p,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9.3%p,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12.7%p,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 12.0%p 증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0%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연속응답 패널들의 인지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4-38〉 4대 보험 가입 여부: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국민연금	가입	200(42.0)	207(52.5)	+10.5%p
	미가입	175(36.8)	137(34.8)	-2.0%p
	모름	101(21.2)	50(12.7)	-8.5%p
건강보험	가입	265(55.7)	256(65.0)	+9.3%p
	미가입	128(26.9)	93(23.6)	-3.3%p
	모름	83(17.4)	45(11.4)	-6.0%p
고용보험	가입	210(44.1)	224(56.9)	+12.7%p
	미가입	172(36.1)	117(29.7)	-6.4%p
	모름	94(19.7)	53(13.5)	-6.3%p
산재보험	가입	187(39.3)	202(51.3)	+12.0%p
	미가입	166(34.9)	115(29.2)	-5.7%p
	모름	123(25.8)	77(19.5)	-6.3%p

주 1) 4대보험 가입 여부 문항 2020년 신규 추가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연속 응답패널들의 고용희망은 3.63점, 고용장벽은 2.78점으로 나타남. 한편, 20년 대비 고용희망은 0.02점, 고용장벽은 0.0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 해 동안 상대적으로 패널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긍정적 감정 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더 느낀 것으로 확인됨

〈표4-39〉 고용희망과 고용장벽: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고용희망	3.63(0.65)	3.61(0.70)	3.63(0.73)	+0.02
고용장벽	2.76(0.70)	2.74(0.68)	2.78(0.72)	+0.04

주 1) 고용희망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고용장벽 1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5점(매우 영향을 미침) 척도로 측정. min/max=1/5

연속응답 패널의 연도별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함.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이란 각 개체나 케이스에 대해 동일한 측정을 여러번 반복할 경우 실시하는 분산 분석으로 개체 간 요인과 개체-내 요인 모두의 영향에 대한 귀무가설을 검

정할 수 있는 방법임²⁾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의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연도별로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표4-40〉 연속응답 패널의 고용희망, 고용장벽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고용희망	0.036	2	.018	0.095
고용장벽	0.629	2	.320	1.562

*p<.05, **p<.01, ***p<.001

주 1) 각 항목은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2) COVID19의 영향

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OVID19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과 실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패널의 비율은 41.1%,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28.2%로 나타남. 한편,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패널의 소득 감소액은 평균 60.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5만원 증가함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7.7%p,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0.2%p 감소하였으나 소득 감소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패널이 COVID19의 영향에 전년도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소득감소 정도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남

〈표4-41〉 COVID19로 인한 영향: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소득 감소 경험	예	232(48.8)	194(41.1)	-7.7%p
	아니오	243(51.2)	278(58.9)	+7.7%p
	계	475(100.0)	472(100.0)	-
소득 감소액		44.08(38.14)	60.73(59.85)	+16.65
실직 경험	예	135(28.5)	133(28.2)	-0.2%p
	아니오	339(71.5)	338(71.8)	+0.2%p
	계	474(100.0)	471(100.0)	-

주 1) COVID19로 인한 피해 문항 2020년 신규 추가

2) IBM, GLM 반복측도

3) 소득 및 자산 현황

연속응답 패널의 근로소득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연속응답 패널의 근로소득은 평균 137.27만원이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47.28만원, 사적이전소득은 30.42만원이었음. 전년도와 비교하여 근로소득은 약 27만원 증가하였으나, 공적이전소득은 약 3만원, 사적이전소득은 약 1만원 미만으로 소폭 감소함

패널들의 3차년도 저축액은 평균 34.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패널들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음을 고려하였을 때, 연속응답 패널들은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저축액을 함께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됨

패널들의 평균 개인 부채액은 2차년도 대비 248.66만원 감소한 1,333.26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 부채액에 대한 상환액으로 패널들은 월평균 17.42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생활비는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차년도에는 월평균 105.81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4-42〉 소득 및 자산 현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근로소득	m(sd)	101.70(64.04)	110.21(73.13)	137.27(98.83)
	min/max	0/300	0/300	0/684
	사례수	477	469	471
공적이전소득	m(sd)	36.14(55.69)	50.05(67.96)	47.28(70.72)
	min/max	0/400	0/400	0/400
	사례수	478	472	471
사적이전소득	m(sd)	20.29(53.33)	30.62(58.64)	30.42(68.37)
	min/max	0/470	0/300	0/700
	사례수	478	474	472
저축	m(sd)	21.90(34.21)	27.44(38.50)	34.78(45.84)
	min/max	0/200	0/200	0/200
	사례수	478	457	447
개인 부채	m(sd)	619.88(1442.36)	1581.92(1841.86)	1333.26(3097.95)
	min/max	0/13,620	10/10,000	0/30,000
	사례수	453	220	466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m(sd)	10.06(21.91)	33.04(60.85)	17.42(34.99)
	min/max	0/180	0/500	0/300
	사례수	476	220	464
총생활비	m(sd)	90.27(55.63)	96.82(62.02)	105.81(60.49)
	min/max	0/350	1/500	1/350
	사례수	444	469	458

주 1) 개인 부채액은 개인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패널의 응답값을 제시함(부채액 0제외 평균값)

2) 증감=기준년도-이전년도(평균/빈도) (이하동일)

연속응답 패널의 소득 및 자산의 반복측정분석을 위한 구형성검정 결과 연속응답 패널의 소득 및 자산 중 공적이전소득, 총생활비를 제외한 항목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변량동등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해당 항목들의 경우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Geisser의 ϵ 을 이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하였음

연속응답 패널의 소득 및 자산의 반복측정 분석 결과 연속응답 패널의 소득

및 자산 변화는 모든 항목에서 연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표4-43〉 연속응답 패널 소득 및 자산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근로소득	317,570.201	1.729	183,666.046	39.24***
공적이전소득	48,195.731	2	24,097.866	6.97**
사적이전소득	31,593.634	1.972	16,025.056	5.56**
저축액	35,795.611	1.906	18,784.326	17.65***
개인부채액	50,938,582.157	1.557	32,718,626.749	5.50**
월평균상환액	26,576.953	1.469	18,094.640	9.30***
총생활비	5,9676.99	2	29,838.49	17.15***

*p<.05, **p<.01, ***p<.001

주 1)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저축액, 개인부채액, 월평균상환액은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연속응답 패널의 공적이전소득과 월평균 상환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월평균저축액, 개인부채액, 총생활비는 해마다 상승해온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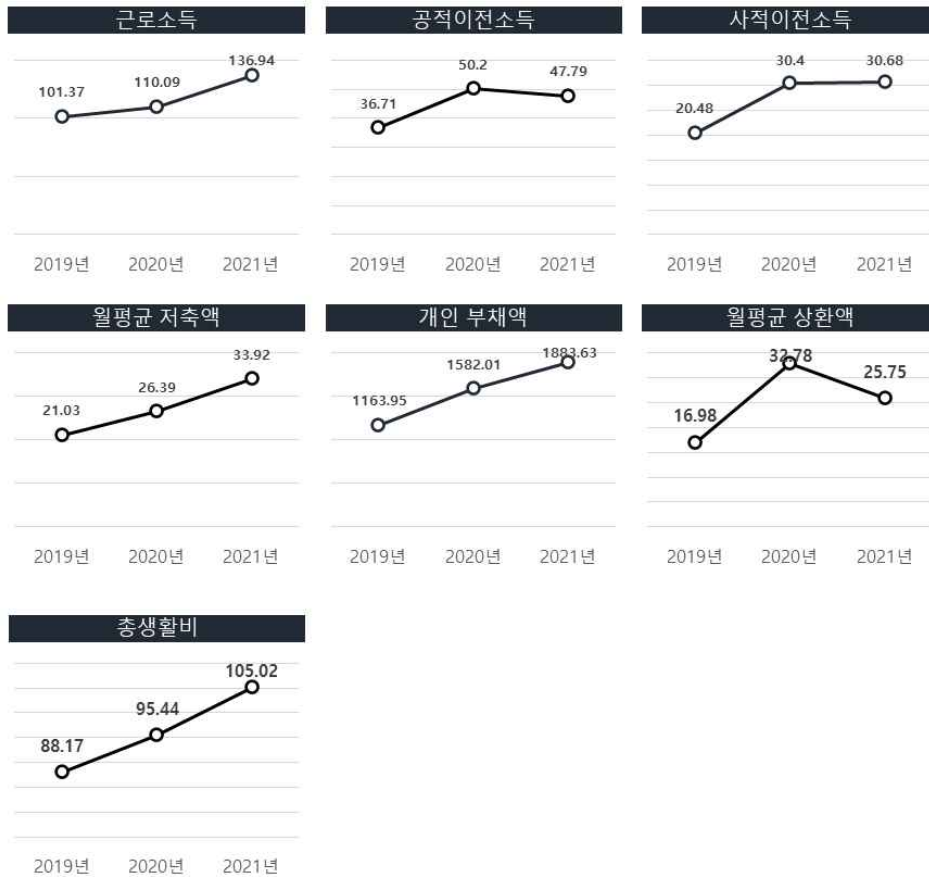
근로소득과 월평균 저축액, 총생활비의 증가폭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갈 때보다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넘어갈 때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소득과 개인부채액의 증가폭은 2차년도에서 3차년도 넘어갈 때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갈 때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4-44〉 연속응답 패널 소득 및 자산의 변화

구분	1차·2차년도 평균 증감률	2차·3차년도 평균 증감률
근로소득	+8.6%	+24.4%
공적이전소득	+36.7%	-4.8%
사적이전소득	+48.4%	+0.9%
저축액	+25.5%	+28.5%
개인부채액	+35.9%	+19.1%
월평균상환액	+93.1%	-21.4%
총생활비	+8.2%	+10.0%

주 1) 증감률=(기준년도-이전년도)/이전년도*100 (이하 동일)

2) 반복측정분산분석 기술통계 값 기준



[그림4-1] 연속응답 패널 소득 및 자산의 변화

개인의 부채와 가족 부양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0점부터 10점까지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연속응답 패널의 부채부담 정도는 4.32점, 가족 부양부담 정도는 4.90점으로 보통(5.5점)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전년도의 부채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5점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여, 연속응답 패널들이 느끼는 주관적 부담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4-45〉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부채부담정도	m(sd)	3.97(3.82)	6.66(2.59)	4.32(3.52)	-2.34
	사례수	478	220	466	-
가족부양부담정도	m(sd)	5.07(3.26)	5.46(2.95)	4.90(3.13)	-0.56
	사례수	478	471	466	-

주 1) 부채부담정도, 가족부양부담정도 0점(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10점(매우 부담) 으로 측정. min/max=0/10

2) 증감=기준년도-이전년도(평균/빈도) (이하동일)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과 가족 부양 부담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와 가족 부양부담 정도는 연도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표4-46〉 연속응답 패널의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부채부담정도	42.879	2	22.806	5.006**
가족부양부담정도	75.871	2	37.936	7.882***

*p<.05, **p<.01, ***p<.001

주 1) 부채부담정도는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 -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추세검증 결과, 개인 부채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갈 때 증가하였다가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넘어오며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해온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에 의한 응답자 개인의 근로 및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었던³⁾ 1차년도의 부채부담, 가족부양부담 정도에 비해 3차년도의 부담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4-47〉 연속응답 패널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의 변화

구분	1차·2차년도 평균 증감률	2차·3차년도 평균 증감률
부채부담정도	+8.6%	-8.6%
가족부양부담정도	+7.1%	-10.4%

주 1) 반복측정분산분석 기술통계 값 기준



[그림4-2] 연속응답 패널 개인 부채 부담 및 가족 부양 부담의 변화

4) 주거 현황

연속응답 패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유형은 임대아파트(23.8%), 다가구주택(20.7%), 아파트(17.9%), 연립주택(14.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위치는 지상층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주택 점유형태는 반전세의 비율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의 비율 역시 23.0%로 많았음. 전년도와 비교하여 월세 또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연속응답 패널의 비율은 감소하고 전세 거주 패널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1차년도 조사 이후 심화되었기에, 1차년도 연구 결과에는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음

〈표4-48〉 주거 현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46(9.6)	56(11.9)	49(10.7)	-1.2%p
	다가구주택	89(18.6)	84(17.9)	95(20.7)	+2.8%p
	다세대주택	43(9.0)	46(9.8)	39(8.5)	-1.3%p
	연립주택	79(16.5)	64(13.6)	64(14.0)	+0.3%p
	아파트	65(13.6)	62(13.2)	82(17.9)	+4.7%p
	임대아파트	120(25.1)	131(27.9)	109(23.8)	-4.1%p
	비거주용 건물	1(0.2)	3(0.6)	2(0.4)	-0.2%p
	준주택	13(2.7)	20(4.3)	18(3.9)	-0.3%p
	기타	22(4.6)	3(0.6)	0(0.0)	-0.6%p
	계	478(100.0)	469(100.0)	458(100.0)	-
주거 위치	지하층	3(0.6)	3(0.6)	2(0.4)	-0.2%p
	반지층	16(3.3)	15(3.2)	13(2.8)	-0.4%p
	지상층	457(95.6)	447(95.3)	438(95.4)	+0.1%p
	옥탑	2(0.4)	4(0.9)	6(1.3)	+0.5%p
	계	478(100.0)	469(100.0)	459(100.0)	-
주거점유형태	자가	33(6.9)	37(7.9)	37(8.1)	+0.2%p
	전세	130(27.2)	101(21.5)	105(23.0)	+1.4%p
	반전세	-	157(33.5)	154(33.7)	+0.2%p
	월세	248(51.9)	24(5.1)	20(4.4)	-0.7%p
	무상	30(6.3)	30(6.4)	25(5.5)	-0.9%p
	기타	37(7.7)	120(25.6)	116(25.4)	-0.2%p
	계	478(100.0)	469(100.0)	457(100.0)	-
주택 면적	m(sd)	42.04(29.04)	46.05(27.74)	44.53(26.67)	-1.52
	min/max	0/199	1/240	1/198	-
	사례수	472	467	459	-

주 1) 2020년, 2021년 기타에 임대아파트 포함되면서 기타 응답이 증가함. 점유형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또한 기타에 응답한 것으로 추정됨

5)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연속응답 패널의 저축태도와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관리 역량, 금융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저축태도는 3.71점, 경제적 스트레스는 3.31점, 재무관리역량은 2.89점, 금융이해력은 1.01점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연속응답 패널의 저축 및 재무관리의 역량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경제적 스트레스(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금융이해력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2019년 이후 연속응답 패널의 저축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은 계속해서 개선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표4-49〉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저축태도	m(sd)	3.58(0.61)	3.61(0.62)	3.71(0.64)	+0.10
	사례수	478	465	458	-
경제적 스트레스	m(sd)	3.53(0.81)	3.42(0.84)	3.31(0.92)	-0.11
	사례수	478	465	458	-
재무관리역량	m(sd)	2.51(0.49)	2.56(0.53)	2.89(0.58)	+0.33
	사례수	478	465	458	-
금융이해력	m(sd)	-	2.16(1.60)	1.01(0.82)	-1.15
	사례수	-	465	458	-

주 1) 저축태도, 경제참여건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재무관리역량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4

3) 금융이해력은 5개 문항에 대한 정답을 몇 개나 맞추었는지에 따라 0점(모두 틀림)~5점(5개 문항 모두 맞음)으로 측정함. min/max=0/5

2차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금융이해력을 제외하고 경제적 상황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의 각 항목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축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은 연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표4-50〉 연속응답 패널의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저축태도	3.792	1.953	1.942	11.513***
경제적 스트레스	11.348	1.876	6.050	19.809***
재무관리역량	36.068	1.657	21.763	108.346***

*p<.05, **p<.01, ***p<.001

주 1) 각 항목은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 -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2) 금융이해력은 2020년 신규추가된 문항으로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제외함

저축태도, 경제적스트레스, 재무역량의 연도에 따른 변화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세검증을 실시한 결과 저축태도의 선형적 추세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형 추세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 재무역량의 경우 선형과 2차형 추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저축태도와 재무역량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된 반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매년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스트레스의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연속응답 패널의 저축태도와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역량 수준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해온 것으로 확인됨

한편, 항목별 증가폭은 모든 항목이 1차-2차년도 증감폭 보다 2차-3차년도의 증감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4-51〉 연속응답 패널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의 변화

구분	1차-2차년도 평균 증감률	2차-3차년도 평균 증감률
저축태도	+0.8%	+2.7%
경제적 스트레스	-3.1%	-3.4%
재무관리역량	+2.0%	+12.4%

주 1) 반복측정분산분석 기술통계 값 기준



[그림4-3] 연속응답 패널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의 변화

6)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행동

연속응답 패널이 생각하는 1년뒤 예상 진로는 취업유지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계획없음(23.9%)을 제외하면 다음이 이직(19.3%), 개인 사업 및 창업(10.0%), 상급학교 진학(4.1%) 순이었음

〈표4-52〉 1년 뒤 예상 진로: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취업유지	405(28.2)	424(30.3)	379(27.6)	-2.7%p
이직	191(13.3)	244(17.4)	265(19.3)	+1.9%p
상급학교 진학	79(5.5)	63(4.5)	56(4.1)	-0.4%p
편입학	31(2.2)	20(1.4)	16(1.2)	-0.3%p
개인 사업 및 창업	141(9.8)	137(9.8)	138(10.0)	+0.3%p
군입대	20(1.4)	13(0.9)	9(0.7)	-0.3%p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334(23.3)	302(21.6)	329(23.9)	+2.4%p
기타	233(16.2)	198(14.1)	182(13.2)	-0.9%p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연속응답 패널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4.56점으로 전년도 대비 0.0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패널들이 자신들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됨

한편, 연속응답자들의 3차년도 진로행동에 대한 응답은 2.43점으로 전년도 대비 0.8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속응답 패널 중 실업 중인 패널이 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진로행동의 점수 하락은 진로를 탐색 중인 패널들의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표4-53〉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4.50(2.42)	4.46(2.26)	4.56(2.39)	+0.09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3.33(0.84)	3.31(0.86)	2.43(0.82)	-0.88

주 1) 진로행동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연속응답 패널의 미래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진로행동의 연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경제상황의 연도별 변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행동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4-54〉 연속응답 패널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1.341	1.953	0.686	0.245
진로행동	236.81	2	147.30	195.80***

*p<.05, **p<.01, ***p<.001

주 1) 진로행동은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 -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연속응답 패널의 진로행동 수준은 매년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넘어갈 때의 감소율이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갈 때의 감소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진로행동의 감소는 패널들의 근로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해석됨

〈표4-55〉 연속응답 패널 진로행동의 변화

구분	1차-2차년도 평균 증감률	2차-3차년도 평균 증감률
진로행동	-0.3%	-26.7%

주 1) 반복측정분산분석 기술통계 값 기준



[그림4-4] 연속응답 패널 진로행동의 변화

7) 심리정서적 상황

연속응답 패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37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복지수는 13.35점(최종행복점수 기준), 우울 점수는 18.12점이었음

행복지수의 총점이 35점이고 우울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응답 패널의 심리정서 상황은 다소 우려스러운 수준임

〈표4-56〉 심리정서적 상황: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23(0.32)	3.32(0.67)	3.37(0.70)	+0.05
우울(척도값 평균)		-	-	18.12(12.79)	-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3.23(3.52)	13.22(3.81)	13.35(8.58)	+0.13
	만족감	14.32(3.47)	14.27(3.64)	13.33(3.83)	-0.94
	긍정정서	14.67(3.28)	14.72(3.25)	14.56(3.52)	-0.15
	부정정서	12.88(8.07)	12.78(8.21)	14.54(3.38)	+1.76

주 1) 자아존중감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우울 1점(극히 드물다)~4점(대부분 그랬다) 척도로 측정. min/max=1/4

3) 행복지수 각 항목(만족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7

4) 최종행복점수=(만족감+긍정정서)-부정정서 (min/max=35)

21년 신규로 추가된 우울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대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연도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4-57〉 연속응답 패널의 자아존중감, 행복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자아존중감	4.732	1,716	2.757	11.090***
행복(최종점수)	68.260	1,911	35.719	1.259

*p<.05, **p<.01, ***p<.001

주 1) 각 항목은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 -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갈때의 증감율이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넘어갈 때 보다 컸던 것으로 확인됨

〈표4-58〉 연속응답 패널 자아존중감의 변화

구분	1차-2차년도 평균 증감률	2차-3차년도 평균 증감률
자아존중감	+3.2%	+1.1%

주 1) 반복측정분산분석 기술통계 값 기준



[그림4-5] 연속응답 패널 자아존중감 변화

8)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패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자본과 가족지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연속응답 패널의 사회적 자본은 2.82점, 가족지지는 3.31점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은 0.01점, 가족지지는 0.1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가족지지가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9년 이후 사회적 자본의 점수는 계속 2.8점 수준으로 3점 미만으로 유지되어온 것으로 나타나 패널들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4-59〉 조사대상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사회적 자본(척도값 평균)	2.83(0.47)	2.81(0.46)	2.82(0.45)	+0.01
가족지지 (척도값 평균)	3.27(0.97)	3.21(1.01)	3.31(0.98)	+0.10

주 1) 사회적 자본, 가족지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사회적자본과 가족지지의 연도별 변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항목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도별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표4-60〉 연속응답 패널 사회적자본, 가족지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회적 자본	0.052	2	0.026	0.302
가족지지	1.460	2	0.740	1.949

*p<.05, **p<.01, ***p<.001

주 1) 가족지지는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연속응답 패널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지원금액 수준이 0.02점,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이 0.14점, 행정적 절차 0.03점, 전반적 만족도가 전년 대비 0.04점 증가하였음

〈표4-61〉 사업만족도: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증감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9(0.93)	3.64(0.94)	3.65(0.98)	+0.02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02(0.97)	3.03(1.00)	3.18(1.02)	+0.14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28(0.92)	3.22(0.98)	3.25(1.06)	+0.0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61(0.91)	3.57(0.94)	3.61(0.98)	+0.04

주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각 항목 1점(매우불만족)–5점(매우 만족)으로 측정. min/max=1/5

사업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원금액의 수준과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연도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행정적 절차 및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4-62〉 연속응답 패널 사업만족도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5.243	2	2.769	4.456*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7.180	2	3.638	5.619**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0.643	2	.321	0.49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0.221	2	.115	0.208

*p<.05, **p<.01, ***p<.001

주 1) 지원금액수준, 사업관련 소식 또는 정보 제공, 전반적 만족도는 구형성 검정 결과에 따라 Greenhouse-Geisser의 ϵ 를 이용하여 자유도 수정함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두 항목의 변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지원금액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차년도와 비교하여 2차년도에 3.6% 하락하였다 3차년도에 0.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점차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보제공과 관련한 만족도의 변화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시행된 이후, 연차가 쌓여가면서 응답자들이 초기보다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른 긍정적 변화로 추정됨

〈표4-63〉 연속응답 패널 사업만족도의 변화

구분	1차·2차년도 평균 증감률	2차·3차년도 평균 증감률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6%	+0.1%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1.1%	+4.5%

주 1) 반복측정분산분석 기술통계 값 기준



[그림4-6] 연속응답 패널 사업만족도의 변화

한편, 지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들의 3차년도 기준 사업참여 여부는 참여자의 비율이 20.9%, 비참여자의 비율이 79.1%로 대부분의 연속응답 패널이 통장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해지 사유별로는 지급해지가 54.5%로 연속응답 패널의 절반 이상이었던 반면, 중도해지자가 24.6%로 나타남

〈표4-64〉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해지 여부 및 유형: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참여자	364(78.6)	95(20.9)	-57.7%p
해지자	99(21.4)	360(79.1)	+57.7%p
- 지급해지자	-	248(54.5)	-
- 중도해지자	-	112(24.6)	-
계	463(100.0)	455(100.0)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3차년도에도 참여 중인 연속응답 패널을 대상으로 사업 포기를 고려한 경험과 사유를 조사한 결과 포기하려고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6%, 포기하려고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7.4%로 나타남

포기하려고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포기 고려 이유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22.1%, 근로지속의 어려움이 17.9% 순으로 높았음

〈표4-65〉 참여자의 사업 포기 고려 이유: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253(52.9)	180(50.1)	50(52.6)	+2.5%p
근로 지속의 어려움	100(20.9)	56(15.6)	17(17.9)	+2.3%p
행정적 불편함	11(2.3)	5(1.4)	2(2.1)	+0.7%p
가족의 반대	1(0.2)	2(0.6)	2(2.1)	+1.5%p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85(17.8)	60(16.7)	21(22.1)	+5.4%p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2)	1(0.3)	1(1.1)	+0.8%p
기타 소계	27(5.6)	55(15.3)	2(2.1)	-13.2%p
- 급히 돈이 필요해서	-	31(8.6)	-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	16(4.5)	-	-
- 압류/가압류	-	2(0.6)	-	-
- 기타	27(5.6)	6(1.7)	2(2.1)	-
계	478(100.0)	359(100.0)	95(100.0)	-

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자를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3%가 탈수급으로 통장사업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근로 지속이 어려워 해지했다는 비율이 18.1%, 급히 돈이 필요해서의 비율도 14.6%로 다소 높게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탈수급으로 인한 해지자의 비율이 9.3%p 증가한 것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분명한 성과이나,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장 해지를 고민하거나 근로 지속의 어려움 또는 급전의 필요 등으로 부득이하게 통장 해지를 하는 패널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표4-66〉 해지자의 해지 이유: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탈수급	39(31.0)	58(40.3)	+9.3%p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소득	11(8.7)	11(7.6)	-1.1%p
근로 지속의 어려움	34(27.0)	26(18.1)	-8.9%p
행정적 불편함	4(3.2)	6(4.2)	+1.0%p
가족의 반대	0(0.0)	0(0.0)	-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	1(0.7)	-
급히 돈이 필요해서	14(11.1)	21(14.6)	+3.5%p
COVID19의 영향으로	6(4.8)	6(4.2)	-0.6%p
군 입대	4(3.2)	3(2.1)	-1.1%p
압류/가압류	0(0.0)	0(0.0)	-
기타	9(7.1)	12(8.3)	+1.2%p

연속응답 패널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축금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탈수급 조건완화 및 폐지 등 수급 조건완화가 19.8%,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가 13.4% 순으로 나타남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편의성 강화와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의 경우 3년 간 지속적으로 10% 내외의 응답자들이 사업의 개선점으로 응답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임

〈표4-67〉 참여자가 제안하는 사업 개선점: 1차, 2차, 3차 패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저축금액 다양화	268(18.7)	-	202(46.0)	-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392(27.3)	316(23.0)	87(19.8)	-3.2%p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226(15.8)	206(15.0)	47(10.7)	-4.3%p
가족 중복 참여 허용	243(16.9)	-	44(10.0)	-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204(14.2)	136(9.9)	59(13.4)	+3.5%p
기타 소계	101(7.0)	716(52.1)	0(0.0)	-52.1%p
-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	-	248(18.0)	-	-
- 자유납입액에 한하여 제한적 중도 인출 가능 조건 추가	-	166(12.1)	-	-
- 압류, 가압류 방지 통장 기능 추가	-	46(3.3)	-	-
-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174(12.7)	-	-
- 기타	101(7.0)	82(6.0)	-	-

주 1) 2019년,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개선점은 순위응답으로 수집되었으나 이를 다중응답문항으로 변환하여 분석함

2)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해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을 통합하여 제시함

연속응답 패널의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은 주택마련(22.8%), 미래생활 대비(저축) 22.5%, 교육비(11.9%), 부채 상환(10.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결혼, 상제비와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함. 본 사업의 참여자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응답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어 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해석 가능

반면 사업(투자)자금 마련의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2.4%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속응답 패널의 약 30%가 미래에도 취업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임

〈표4-68〉 사업 참여자의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1차, 2차, 3차 패 널 구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대비 21년 증감
교육비(본인 및 가족)	172(12.0)	116(10.8)	34(11.9)	+1.2%p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310(21.6)	238(22.1)	65(22.8)	+0.7%p
결혼, 상제비	101(7.0)	64(5.9)	23(8.1)	+2.1%p
미래생활 대비(저축)	314(21.9)	253(23.5)	64(22.5)	-1.0%p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76(5.3)	67(6.2)	11(3.9)	-2.4%p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70(4.9)	60(5.6)	22(7.7)	+2.1%p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03(7.2)	75(7.0)	17(6.0)	-1.0%p
여행 및 여가생활	83(5.8)	43(4.0)	9(3.2)	-0.8%p
부채 상환	140(9.8)	119(11.0)	30(10.5)	-0.5%p
특별한 목적이 없음	35(2.4)	25(2.3)	4(1.4)	-0.9%p
기타	30(2.1)	17(1.6)	6(2.1)	+0.5%p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6. 근로형태에 따른 3차 패널 참여자 분석

1) 근로 및 고용 현황, 역량 및 인식

상용근로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자 아닌 집단의 경우 자격증이 없거나 2개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3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 응답자가 더 많았음

근로시간형태에서 상용직 집단의 절반 이상(76.1%)이 전일제 근로자로 나타난 반면, 이외 집단은 62.9%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 집단 88.3%, 상용직 이외 집단 59.9%이었음

상용직인 패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28.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6.9%), 서비스종사자(2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이 아닌 패널들은 서비스종사자(44.4%), 사무종사자(14.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각 12.9%) 순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용직 집단의 4대보험의 가입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외 집단 보다 높았음.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입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강보험이었으며, 미가입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국민연금으로 확인됨. 특히, 이외 집단의 절반 이상인 52.2%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외 집단의 경우 가입 상황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17~2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이해가 상용직 집단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은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희망은 긍정적임을, 고용장벽은 부정적임을 의미함. 고용희망의 경우 두 집단 간 점수가 3.62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용장벽의 경우 이외 집단의 점수가 2.80점으로 상용직 집단(2.70점)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외 집단이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4-69〉 근로 및 고용 현황: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n=197)	이외(n=234)	
자격증 보유	자격증 없음	34(17.3)	60(25.6)	5.924 (3)
	1개 있음	48(24.4)	60(25.6)	
	2개 있음	45(22.8)	50(21.4)	
	3개 이상	70(35.5)	64(27.4)	
	계	197(100.0)	234(100.0)	
근로 시간형태	전일제	150(76.1)	86(37.1)	65.720 (1)***
	시간제	47(23.9)	146(62.9)	
	계	197(100.0)	232(100.0)	
근로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174(88.3)	139(59.9)	43.590 (1)***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23(11.7)	93(40.1)	
	계	197(100.0)	232(100.0)	
직종	관리자	7(3.6)	3(1.3)	49.589(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3(26.9)	30(12.9)	
	사무종사자	57(28.9)	34(14.7)	
	서비스종사자	49(24.9)	103(44.4)	
	판매종사자	7(3.6)	25(10.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5)	3(1.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1.5)	2(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3.0)	2(0.9)	
	단순노무종사자	14(7.1)	30(12.9)	
	실업자(구직중)	0(0.0)	0(0.0)	
	계	197(100.0)	232(100.0)	

*p < .05, **p < .01, ***p < .001

〈표4-70〉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n=197)	이외(n=232)	
국민연금	가입	158(80.2)	68(29.3)	111.606(2)***
	미가입	25(12.7)	121(52.2)	
	모름	14(7.1)	43(18.5)	
건강보험	가입	169(85.8)	104(44.8)	78.637(2)***
	미가입	15(7.6)	88(37.9)	
	모름	13(6.6)	40(17.2)	
고용보험	가입	168(85.3)	81(34.9)	113.457(2)***
	미가입	14(7.1)	104(44.8)	
	모름	15(7.6)	47(20.3)	
산재보험	가입	151(76.6)	74(31.9)	97.929(2)***
	미가입	14(7.1)	103(44.4)	
	모름	32(16.2)	55(23.7)	

*p < .05, **p < .01, ***p < .001

〈표4-71〉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근로형태 구분

(단위:점)

구분	근로형태 구분: m(sd)		t - test
	상용직(n=188)	이외(n=218)	
고용희망	3.62(0.69)	3.62(0.76)	.039
고용장벽	2.70(0.68)	2.80(0.74)	-1.322

*p < .05, **p < .01, ***p < .001

주 1) 고용희망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고용장벽 1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5점(매우 영향을 미침) 척도로 측정. min/max=1/5

2) COVID19의 영향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외 집단의 경우 소득 감소 경험 비율(54.4%)이 상용직 집단(20.4%)보다 높았던 반면, COVID19로 인한 월평균 소득 감소액은 상용직 집단이 평균 15만원 정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됨. COVID19로 인한 실직 경험은 이외 집단의 실직 경험 비율(35.1%)이 상용직 집단(16.8%) 보다 높았음

〈표4-72〉 COVID19로 인한 영향: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만원)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t - test
		상용직	이외	
소득 감소 경험	예	40(20.4)	124(54.4)	51.302(1)***
	아니오	156(79.6)	104(45.6)	
	계	196(100.0)	228(100.0)	
소득 감소액 (상용직=41, 이외=124)		68.34(85.32)	52.88(43.44)	1.515
실직 경험	예	33(16.8)	80(35.1)	17.959(1)***
	아니오	163(83.2)	148(64.9)	
	계	196(100.0)	228(100.0)	

* $p < .05$, ** $p < .01$, *** $p < .001$

3) 소득 및 자산 현황

소득 및 자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저축, 개인 부채,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총생활비 모두 상용직의 평균 금액이 상용직이 아닌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은 상용직 집단이 약 196만원, 이외 집단이 약 122만원으로 약 74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은 상용직 집단이 약 55만원, 이외 집단이 약 47만원으로 약 8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사적이전소득은 상용직 집단이 약 35만원, 이외 집단이 약 32만원으로 약 3만원의 차이를 보임

월평균 저축액은 상용직 집단이 약 51만원, 이외 집단이 약 27만원으로 상용직 집단의 저축액이 약 24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개인 부채액은 상용직 집단이 약 1,870만원, 이외 집단이 약 1,062만원으로 상용직 집단의 개인 부채액이 약 808만원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평균상환액 역시 상용직 집단이 23만원, 이외 집단이 15만원으로 상용직 집단이 약 8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생활비는 상용직 집단이 약 116만원, 이외 집단이 약 102만원으로 약 14만원의 차이를 보임

〈표4-73〉 소득 및 자산 현황: 근로형태 구분

(단위:만원)

구분		근로형태 구분		t - test
		상용직	이외	
근로소득	m(sd)	196.45(84.93)	121.91(82.77)	9.123***
	min/max	0/684	0/630	
	계	195	228	
공적이전소득	m(sd)	55.07(84.10)	47.13(64.59)	1.075
	min/max	0/400	0/400	
	계	195	228	
사적이전소득	m(sd)	34.63(72.25)	32.22(71.02)	.345
	min/max	0/400	0/700	
	계	196	228	
저축	m(sd)	51.25(49.68)	27.18(41.23)	5.258***
	min/max	0/200	0/200	
	계	187	219	
개인 부채	m(sd)	1,869.76(3929.73)	1,061.98(1966.90)	2.592**
	min/max	0/28,100	0/10,000	
	계	193	226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m(sd)	22.81(36.76)	14.70(29.49)	2.456**
	min/max	0/200	0/200	
	계	192	225	
총생활비	m(sd)	116.16(58.78)	102.69(58.51)	2.312**
	min/max	1/300	10/350	
	계	189	218	

주 1) 개인 부채액은 개인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패널의 응답값을 제시함(부채액 0제외 평균값)

*p < .05, **p < .01, ***p < .001

개인 부채 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부양부담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이외 집단(5.18)이 상용직 집단(4.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74〉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근로형태 구분

(단위:점)

구분		근로형태 구분		t - test
		상용직	이외	
부채부담정도	m(sd)	4.10(3.47)	4.37(3.61)	0.772
	계	193	226	
가족부양부담정도	m(sd)	4.53(3.17)	5.18(3.10)	2.113**
	계	193	226	

*p < .05, **p < .01, ***p < .001

주 1) 부채부담정도, 가족부양부담정도 0점(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10점(매우 부담)으로 측정. min/max=0/10

4) 주거 현황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대한 응답은 상용직 집단의 경우 임대아파트(22.1%), 다가구주택(21.6%), 일반아파트(16.8%), 연립주택(14.2%) 등 순으로 높았으며, 이외 집단의 경우 임대아파트(24.2%), 다가구주택(21.0%), 연립주택(16.4%), 일반아파트(1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주거위치는 두 집단 모두에서 지상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주거점유형태는 상용직 집단은 전세(30.7%), 반전세(28.6%), 기타(21.7%) 순이었으며, 이외 집단은 반전세(37.7%), 기타(26.4%), 전세(20.0%) 순이었음. 주택면적은 상용직 집단이 이외 집단에 비해 약간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됨

〈표4-75〉 주거 현황: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t - test
		상용직	이외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16(8.4)	23(10.5)	2.913(7)
	다가구주택	41(21.6)	46(21.0)	
	다세대주택	20(10.5)	17(7.8)	
	연립주택	27(14.2)	36(16.4)	
	일반아파트	32(16.8)	35(16.0)	
	임대아파트	42(22.1)	53(24.2)	
	비거주용건물	1(0.5)	1(0.5)	
	준주택	11(5.8)	8(3.7)	
	판잣집,비닐하우스,옴막	0(0.0)	0(0.0)	
	기타	0(0.0)	0(0.0)	
	계	190(100.0)	219(100.0)	
주거 위치	지하층	0(0.0)	3(1.5)	7.667(3)
	반지층	4(2.2)	7(3.4)	
	지상층	172(95.6)	196(95.1)	
	옥탑	4(2.2)	0(0.0)	
	계	180(100.0)	206(100.0)	
주거점유형태	자가	18(9.5)	12(5.5)	11.084(5)
	전세	58(30.7)	44(20.0)	
	반전세	54(28.6)	83(37.7)	
	월세	10(5.3)	10(4.5)	
	무상	8(4.2)	13(5.9)	
	기타	41(21.7)	58(26.4)	
	계	189(100.0)	220(100.0)	
주택 면적	m(sd)	45.60(29.05)	43.37(24.95)	0.837
	min/max	3/198	1/112	
	사례수	190	220	

* $p < .05$, ** $p < .01$, *** $p < .001$

5) 경제적 상황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인식은 저축태도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두 집단 모두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재무관리역량은 보통보다 미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음. 금융이해력은 총 5개 질문 중 평균 1개 정도를 맞추었다는 점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이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경제적 스트레스는 현재 경제적 상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확인한 문항으로 상용직 집단(3.65)에 비해 이외 집단(3.77)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76〉 경제적 상황 인식: 근로형태 구분

(단위:점)

구분		근로형태 구분: m(sd)		t - test
		상용직	이외	
저축태도	m(sd)	3.43(0.92)	3.13(0.89)	1.963*
	계	189	220	
경제적 스트레스	m(sd)	3.65(0.65)	3.77(0.64)	-3.251***
	계	189	220	
재무관리역량	m(sd)	2.86(0.59)	2.87(0.58)	0.138
	계	189	220	
금융이해력	m(sd)	0.97(0.80)	1.03(0.83)	0.722
	계	189	220	

*p < .05, **p < .01, ***p < .001

주 1) 저축태도, 경제적여건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재무관리역량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4

3) 금융이해력은 5개 문항에 대한 정답을 몇 개나 맞추었는지에 따라 0점(모두 틀림)–5점(5개 문항 모두 맞음)으로 측정함. min/max=0/5

6)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행동

1년 뒤 예상진로에 있어 두 집단 모두 취업유지, 특별한 진로계획 없음, 이직, 개인 사업 및 창업 순으로 나타남

〈표4-77〉 1년 뒤 예상 진로: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	이외	
취업유지	177(31.22)	172(26.06)	-
이직	127(22.40)	117(17.73)	
상급학교 진학	27(4.76)	26(3.94)	
편입학	6(1.06)	6(0.91)	
개인 사업 및 창업	42(7.41)	83(12.58)	
군입대	5(0.88)	3(0.45)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136(23.99)	156(23.64)	
기타	47(8.29)	97(14.70)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이외 집단이 상용직 집단보다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보임. 진로행동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진로행동을 보임

〈표4-78〉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진로행동: 근로형태 구분

(단위:점)

구분	근로형태 구분: m(sd)		t - test
	상용직(n=193)	이외(n=226)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4.69(2.31)	4.39(2.48)	1.293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2.38(0.79)	2.46(0.83)	-1.045

*p < .05, **p < .01, ***p < .001

주 1) 미래 경제상황 전망은 0점(매우 비관적)~10점(매우 희망적)으로 측정. min/max=0/10

2) 진로행동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7) 심리정서적 상황

상용직 집단과 이외 집단간 심리정서적 상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두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우울은 18점으로 계산된 값이 16점을 넘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 모두 우울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행복지수는 큰 차이는 아니나 상용직 집단은 최종행복점수, 만족감, 긍정정서가 모두 이외 집단보다 미미하게 높았으며, 이외 집단은 부정정서가 미미하게 높았음

〈표4-79〉 심리정서적 상황: 근로형태 구분

(단위:점)

구분		근로형태 구분: m(sd)		t - test
		상용직(n=189)	이외(n=220)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40(0.70)	3.36(0.71)	.570
우울(척도값 평균)		18.47(12.98)	16.50(12.00)	1.587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4.20(8.06)	13.29(8.77)	1.071
	만족감	13.76(3.58)	13.35(3.96)	.726
	긍정정서	14.86(3.28)	14.60(3.69)	.749
	부정정서	14.42(3.36)	14.67(3.38)	-1.079

*p < .05, **p < .01, ***p < .001

주 1) 자아존중감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2) 우울 0점(극히 드물다)~3점(대부분 그랬다)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1개 문항의 총합*(20/11)로 계산한 값을 확인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3) 행복지수 각 항목(만족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7

4) 최종행복점수=(만족감+긍정정서)-부정정서 (min/max=-15/39)

8)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사회적 자본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족지지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남

〈표4-80〉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근로형태 구분

(단위:점)

구분	근로형태 구분: m(sd)		t - test
	상용직(n=188)	이외(n=218)	
사회적 자본(척도값 평균)	2.83(0.49)	2.79(0.43)	0.823
가족지지 (척도값 평균)	3.33(1.00)	3.26(1.02)	0.678

*p < .05, **p < .01, ***p < .001

주 1) 사회적 자본, 가족지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 min/max=1/5

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다만 상용직 집단과 이외 집단 모두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4-81〉 사업만족도: 근로형태 구분

(단위:점)

구분	근로형태 구분: m(sd)		t - test
	상용직(n=188)	이외(n=218)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0(0.92)	3.65(1.03)	0.464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24(1.00)	3.17(1.05)	0.726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25(1.07)	3.22(1.05)	0.32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46(0.82)	3.41(0.90)	0.588

*p < .05, **p < .01, ***p < .001

주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각 항목 1점(매우불만족)~5점(매우 만족)으로 측정. min/max=1/5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용직 집단의 82.7%, 이외 집단의 64.6%가 3년 만기를 모두 채우고 지급해지한 성공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용직 집단에서 지급해지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근로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사업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표4-82〉 해지 유형: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	이외	
환수해지	22(12.3)	26(13.5)	23.377(2)***
지급해지	148(82.7)	124(64.6)	
일부지급해지	9(5.0)	42(21.9)	
계	179(100.0)	192(100.0)	

* $p < .05$, ** $p < .01$, ***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사업 포기 고려 이유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은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반면,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로 상용직 집단은 가족의 반대(56.7%)와 근로 지속의 어려움(16.7%)이 높았으며, 이외 집단은 가족의 반대(51.7%)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22.4%)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4-83〉 참여자의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	이외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17(56.7)	30(51.7)	7.920(6)
근로 지속의 어려움	5(16.7)	10(17.2)	
행정적 불편함	2(6.7)	0(0.0)	
가족의 반대	17(56.7)	30(51.7)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4(13.3)	13(22.4)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3.3)	0(0.0)	
기타	1(3.3)	3(5.2)	
계	30(100.0)	58(100.0)	

* $p < .05$, ** $p < .01$, ***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해지자만을 대상으로 해지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상용직 집단의 해지 이유는 탈수급(54.2%),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소득(12.5%), 급히 돈이 필요해서(12.5%), 근로 지속의 어려움(11.1%) 등의 순으로 조사됨. 반면, 이외 집단의 해지 이유는 탈수급(31.3%), 근로 지속

의 어려움(22.9%), 급히 돈이 필요해서(14.6%) 등의 순이었음

〈표4-84〉 해지자의 해지 이유: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	이외	
탈수급	39(54.2)	15(31.3)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소득	9(12.5)	1(2.1)	
근로 지속의 어려움	8(11.1)	11(22.9)	
행정적 불편함	2(2.8)	2(4.2)	
가족의 반대	0(0.0)	0(0.0)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2.8)	0(0.0)	
급히 돈이 필요해서	9(12.5)	7(14.6)	
COVID19의 영향으로	1(1.4)	5(10.4)	
군 입대	1(1.4)	2(4.2)	
압류/가압류	0(0.0)	1(2.1)	
기타	1(1.4)	4(8.3)	
계	72(100.0)	48(100.0)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선점을 확인한 결과, 두 집단의 응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두 집단 모두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의 완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상용직 집단은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16.0%)과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13.5%)를 주요한 개선점으로 꼽은 반면, 이외 집단은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14.0%)과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와 사업 안내(12.1%)라고 응답함

〈표4-85〉 참여자가 제안하는 개선점: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	이외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79(50.6)	85(54.1)	5.609(5)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21(13.5)	19(12.1)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13(8.3)	22(14.0)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14(9.0)	11(7.0)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	25(16.0)	19(12.1)	
기타	4(2.6)	1(0.6)	
계	156(100.0)	157(100.0)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수령 시 사용 계획을 다중 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상용직 집단은 주택마련(25.6%), 미래생활 대비(저축)(24.4%), 내구재 구입과 부채 상환(10.0%), 부채상환(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외 집단은 주택 마련과 미래생활 대비(저축)(22.4%), 주택마련(22.4%), 본인 및 가족의 교육비(14.9%), 부채 상환(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86〉 참여자의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	이외	
교육비(본인 및 가족)	8(8.9)	26(14.9)	-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23(25.6)	39(22.4)	
결혼, 상제비	7(7.8)	12(6.9)	
미래생활 대비(저축)	22(24.4)	39(22.4)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3(3.3)	8(4.6)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9(10.0)	9(5.2)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2(2.2)	11(6.3)	
여행 및 여가생활	4(4.4)	4(2.3)	
부채 상환	9(10.0)	18(10.3)	
특별한 목적이 없음	2(2.2)	3(1.7)	
기타	1(1.1)	5(2.9)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블로그, 유튜브, SNS를 활용한 홍보, 포털 사이트 광고를 활용한 홍보, 동주민센터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상용직 집단의 경우 유관기관 홈페이지도 동주민센터 홍보와 동일하게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됨

〈표4-87〉 참여자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홍보방법: 근로형태 구분

(단위:명(%))

구분	근로형태 구분: n(%)		$\chi^2(df)$
	상용직	이외	
포털 사이트 광고를 활용한 홍보	18(20.0)	30(17.2)	-
블로그, 유튜브, SNS를 활용한 홍보	23(25.6)	47(27.0)	
유관기관 홈페이지	11(12.2)	16(9.2)	
동주민센터 홍보	11(12.2)	30(17.2)	
TV, 라디오 등 방송홍보	7(7.8)	15(8.6)	
팸플렛 또는 책자를 활용한 홍보	4(4.4)	7(4.0)	
학교를 통한 홍보	4(4.4)	8(4.6)	
버스 광고	4(4.4)	10(5.7)	
지하철 광고	7(7.8)	9(5.2)	
기타	1(1.1)	2(1.1)	

주 1) 순위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V 결론 및 제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1. 분석 결과 요약
2. 청년희망키움통장 성과
3.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역할
4.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함의

V 결론 및 제언

1. 분석 결과 정리

1) 3차 패널과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 조사 비교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1, 2차 조사에서 기구축된 패널 외에 2021년 신규 가입 응답자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3차까지 유지된 전체 패널 응답자 523명과 신규 응답자 356명의 응답을 분석함. 분석 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근로 및 고용 현황, COVID19의 영향, 소득 및 자산 현황, 주거 현황, 경제적 상황 인식,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 심리정서적 상황, 사회적 요인, 청년희망기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차 패널 응답자의 경우 27세, 신규 응답자의 경우 26세로 나타남. 3차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모두 1인가구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학력은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음

주거 상황.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의 주거 현황은 거주 주택 유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패널 응답자는 임대아파트, 다가구주택, 일반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신규 응답자는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 임대아파트,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높음

근로 및 경제적 상황.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의 근로 및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결과 패널 응답자의 근로 역량 및 근로 지위가 신규 응답자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남. 패널 응답자의 자격증 보유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사무종사자 및 전문가 비율, 4대보험 가입율이 모두 신규 응답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동시에 패널 응답자의 실업자 총 비율이 더 높아 패널 응답자 집단 내 근로 상황이 양분(안정적인 집단과 실업자 집단)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이는 패널 응답자 가운데 중도해지 집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한편, 신규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격증 보유 비율, 불안정한 근로 지위, 낮은 4대보험 가입율의 현황을 보이고 있음. 이에 고용장

벽 점수 또한 더 높게 보고되는 등 일관된 결과를 나타냄. 관련하여 COVID19로 인한 실직 경험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신규 응답자의 실직 경험 비율(35.5%)이 패널 응답자(27.9%) 보다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전술하였듯, 신규 응답자의 근로 지위가 더 불안정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소득 및 자산 현황.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간 소득 및 자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과 저축,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총생활비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비용은 패널 응답자가 신규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근로소득의 차이는 근로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산 및 부채, 총생활비용이 큰 이유는 패널 응답자가 가구주인 비율과 기혼인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일 것임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인식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를 보임. 패널 응답자에 비해 신규 응답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불안정한 근로지위와 높은 고용장벽 인식, COVID19로 인한 실직 경험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두 집단 모두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재무관리역량은 보통보다 미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음. 금융이해력은 총 5개 질문 중 평균 1개 정도를 맞추었다는 점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이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진로에 대한 생각. 1년 뒤 예상진로에 있어 두 집단 모두 취업유지, 특별한 진로계획 없음, 이직, 개인 사업 및 창업 순으로 나타남. 다만 패널 응답자는 취업유지나 이직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신규 응답자는 상급학교 진학과 편입학, 개인 사업 및 창업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임. 이는 패널 응답자의 경우 현재의 안정적인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신규 응답자의 경우 상급학교나 편입학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거나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경로와 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함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신규 응답자가 패널 응답자보다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보임. 또한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진로행동을 보임

심리정서적 상황에 대한 인식.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중 두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우울은 계산된 값이 16점을 넘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 모두 우울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행복지수는 큰 차이는 아니나 패널 응답자는 최종행복점수, 만족감, 긍정정서가 모두 신규 응답자보다 미미하게 높았으며, 신규 응답자는 부정정서가 미미하게 높았음

사회적 인식. 사회적 자본은 패널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모두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족지지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다만 패널 응답자는 지원금액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신규 집단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사업 포기 고려 이유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은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이외의 이유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근로 지속의 어려움이라고 답함.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해지자만을 대상으로 해지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근로 지속의 어려움과 급히 돈이 필요해서 등으로 나타남.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와 해지자는 개선점으로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는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 중복 참여 허용,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등이라고 응답함

2)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패널 해지 유형 구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3차년도 패널에 응답한 총 523명 중 현재 참여 중인 82명을 제외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해지한 441명에 대해 해지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여기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해지 유형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급해지: 지급해지는 중도지급해지와 만기지급해지로 구분되며, 중도지급해지의 경우 사업 참여 중 탈수급하고 소득상한도 초과하는 경우임. 사업 참여 중 탈수급하더라도 소득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통장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음. 만기지급해지는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고 사용용도증빙을 제출완료한 경우임
- 일부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는 통장사업 3년 만기 성공하였으나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하지 못하거나,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을 못한 경우, 혹은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하고 군입대한 경우임. 대부분의 일부지급해지는 통장사업 만기 성공하였으나 탈수급에 실패한 경우임
- 환수해지: 환수해지는 연속 6개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해서 중도에 통장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임. 대부분은 근로유지를 못하거나 본인 희망 포기의 경우이나, 적지만 사망, 압류/가입류의 경우도 포함됨

근로 상황. 3차 패널의 해지 유형에 따른 근로 및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급해지를 한 참여자의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며 근로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형태 중 상용근로자 비율 지급해지 47%, 일부지급해지 15%, 환수해지 33%; 근로시간형태 중 전일제 비율 지급해지 59%, 일부지급해지 67%, 환수해지 3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비율 지급해지 80%, 일부지급해지 76%, 환수해지 51% 등.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에도 지급해지 61%, 환수해지 55%, 일부지급해지 24%로 지급해지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및 임시직 근로자 비율, 4대보험 미가입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으며, 시간제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만큼 근로 역량 및 근로 지위가 가장 불안정함

소득 및 자산 현황. 근로 역량이 가장 높으며 근로 지위가 안정적이었던 지급해지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

집단 순임. 월평균 근로소득 차이는 약 63만원 정도로 컸음. 월평균 저축액도 지급해지 집단이 48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수해지 41만원 일부지급해지 집단 37만원 순임. 월평균 생활비도 유사하게 지급해지,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집단 순으로 나타남. 즉 근로 상황과 유사하게 근로 소득 등 경제 상황 또한 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양호하고, 다음으로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의 순임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 해지 유형별 경제적 상황 인식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를 보임. 지급해지 집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한편, 다음으로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 집단 순으로 나타남.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는 근로 상황, 경제적 상황과 맥을 같이하여 근로 지위와 경제 상황이 열악할수록 스트레스가 정도가 높았음. 재무관리역량 또한 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 집단 순임

모든 집단이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급해지 집단이 그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환수해지, 일부지급해지 집단 순으로 실제 저축액과 경향을 같이하는 결과임. 금융이해력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든 집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진로에 대한 생각. 1년 뒤 예상진로에 있어서는 지급해지 집단은 창업,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환수해지의 경우에는 취업유지를, 일부지급해지 집단의 경우에는 특별한 진로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부지급해지 집단의 경우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제안함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급해지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일부지급해지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부지급해지자 집단의 경우 진로계획 지도와 함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한 동기 부여 등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함

심리정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높고 일부지급해지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우울은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6점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인식. 사회적 요인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모든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일부지급해지 집단의 사회적 자본 및 가족지지 값이 가장 낮았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지원 금액의 수준과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사업만족도의 모든 차원에서 환수해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으며, 지급해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환수해지 및 일부지급해지 집단은 전체 2/3 이상의 청년들이 수급 조건 완화에 대한 개선을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급해지자 집단은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과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를 개선점으로 제안함

3)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2차 3차 연속응답 패널 시계열 분석 결과 요약

1, 2, 3차 연속응답한 패널 478명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고용, 경제적, 심리정서적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근로 및 고용 상황. 연속응답 패널의 상용근로자 및 전일제 근로 비율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함. 사회보험 가입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청년들의 근로 및 고용 지위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소득 및 자산 상황. 근로 및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연속응답 패널의 근로 소득 또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근로소득이 월평균 약 27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의 증가와 함께 월평균 저축액, 부채 상환액 및 생활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 태도 및 재무역량. 연속응답 패널의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은 향상한 반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들의 근로 지위가 실제로 개선되고, 소득이 향상하면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금융이해력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더욱 낮아져 저소득 청년들의 금융지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함

심리정서적 상황에 대한 인식.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들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자아존중감, 행복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그 결과, 자존감은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함. 반면 행복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다소 감소한 후 3차년도에 다시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이러한 결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목돈이 마

런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다만 행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돈을 마련해가는 자산형성의 과정이 다차원성을 가지는 행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를 가졌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장사업에의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음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1~10점 11점 척도 1문항), 예상진로(1, 2, 3순위)의 지표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또한 2021년 3차 패널 본 연구 조사에 ‘지난 2년(2019년 9월~2021년 9월) 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진로 관련 활동’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함.

그 결과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패널 1, 2차에 비해 3차 년도에 다소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이는 적립액을 급여받거나 받을 3차년도에 미래의 경제상황을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 예상진로(1순위)의 경우 취업유지, 특별한 계획없음, 이직, 개인사업 및 창업,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군입대의 순으로 지난 3년간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2차 패널 시 특별한 진로계획 없음(+9.7%), 이직(+4.2%), 개인사업 및 창업(+3.3%)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가 저소득 청년 집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3차년도 패널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지난 2년(2019년 9월~2021년 9월) 간 준비하거나 참여한 진로 관련 활동’의 경우 자격증 취득한 경우 24.6%, 진로위한 학원수강 15.3%, 인턴 등 직무경험 14.7%, 외국어 능력 향상 10.5%, 상위학교 진학 4.2%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의 참여는 미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다소 기여함을 추정할 수 있음

코로나19의 영향. 2020년 2차 패널 조사에 코로나19로 실직 및 소득 감소 경험 문항을 추가함.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소득 감소 경험은 2차와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그 결과 2020년 2차 패널에 비해 실직 경험 비율은 29.6%에서 27.9%로 감소하였으며, 소득감소 경험 또한 48.3%에서 40.9%로 감소함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들의 상

당수가 실직 및 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앞서 상용직 및 전일제 종사 비율이 증가한 결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청년들의 일부는 이전에 비해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직을 성취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들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만족도, 포기 고려 이유, 지원금 활용 계획 등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큰 변화없이 매년 3.6에서 3.7점 정도로 보통과 만족 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남. 다만 사업관련 정보 제공 만족도 점수가 다소 크게 증가하여 사업이 자리잡음에 따라 점차 관련 소식 및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사업 중도 포기 고려 이유로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을 꼽은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탈수급을 부담으로 느끼는 정도가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근로 지속의 어려움’ 또한 매년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이유로 나타남

지원금 활용 계획으로 연속응답 패널들은 거의 큰 차이 없이 주거와 미래생활대비를 각각 20~23% 가량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비, 부채상환이 10~12% 가량으로 나타나 패널에 참여한 3년 동안 지원금 활용 계획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 것임. 다만 창업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응답 비율은 매년 다소 감소한 반면, 내구제 구입으로 활용한다는 비율은 다소 증가함

4) 근로형태에 따른 3차 패널 참여자 비교 분석 결과 요약

3차 패널에 참여한 523명을 대상으로 근로형태 구분(상용직과 이외 집단)을 포함하여 근로 상황, 경제적 상황, 주거 상황, 주관적 인식 및 사회적 요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거 상황. 참여자들의 주거 상황은 두 집단 모두 약 22~24%로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상용직 집단은 다가구주택(21.6%), 일반아파트(16.8%), 연립주택(14.2%) 등의 순이었음. 이외 집단은 다가구주택(21.0%), 연립주택(16.4%), 일반아파트(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거위치는 두 집단 모두에서 지상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점유형태는 상용직 집단에서 전세(30.7%), 반전세(28.6%), 기타(21.7%) 순이었으며, 이외 집단은 반전세(37.7%), 기타(26.4%), 전세(20.0%) 등의 순이었음. 주택면적은 상용직 집단이 이외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근로 및 경제적 상황. 상용직 이외 집단은 자격증이 없다, 1개 있음, 2개 있음의 비율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상용직 집단은 3개 이상(35.7%)이 가장 많았음. 동시에 상용직 집단은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의 비율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지만 이외 집단은 비교적 서비스종사자(44.4%)가 대다수였음. 근로역량과 근로 직종은 고용현황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여 상용직 집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지속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외 집단에 비해 28.4%가 높았음. 사회보험 가입률도 상용직 집단이 이외 집단에 비해 모두 약 40% 이상으로 높았음. 특히, 4대보험 가운데 두 집단 모두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는데, 상용직 집단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85.8%인데 비해 이외 집단은 44.8%의 비율을 차지함. 이외 집단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최저 17.2%에서 최고 23%까지 나타나 제도적 인식 수준이 낮은 편임을 확인하였음. 동시에 근로인식과 관련하여 이외 집단에서 고용장벽 점수가 더 높으므로,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소득 및 자산현황. 근로소득은 상용직 집단에 비해 이외 집단은 약 75만 원이 적었음.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외집단에서 공적 이전소득은 약 8만 원, 사적 이전소득은 약 2만 원이 적어 전반적으로 상용직 집

단에 비해 이의 집단이 낮은 소득 수준에 처해 있음. 저축과 개인 부채액,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모두 상용직 집단에서 높았으며, 특히, 저축액에서 상용직 집단은 이의 집단에 비해 약 24만 원이 많았음. 한편, 부채액,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도 상용직 집단이 이의 집단에 비해 많았음. 소득 및 자산현황을 비교해보면 상용직 집단은 근로소득의 23%를 부채 상환액에, 32%를 저축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의 집단은 근로소득의 27%를 부채 상환액에, 33%를 저축에 사용하고 있었음. 상용직 집단에 비해 이의 집단의 부채 부담 정도와 가족부양부담이 높았음. 참여자들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상용직 집단이 이의 집단에 비해 약 14만 원이 많았음

경제적 상황 인식, 저축태도 및 재무역량. 두 집단 모두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반면 금융이해력은 최고 5점 중 약 1점을 보여 낮은 수준이었고 재무관리역량 수준도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는 현재 경제적 상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확인한 문항으로 상용직 집단(3.65)에 비해 이의 집단(3.77)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심리정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및 사회적 요인들은 상용직 집단과 이의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음. 상용직 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3.40으로 이의 집단(3.36)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행복지수도 상용직 집단이 이의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행복지수 가운데 부정정서는 이의 집단의 평균이 14.67로 상용직 집단(14.42)에 비해 높았음. 다만, 우울은 눈 여겨볼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상용직 집단의 평균이 18.47로 이의 집단(16.50)에 비해 높았음

사회적 인식.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사회적 자본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족지지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남

COVID19의 영향. COVID19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은 상용직 집단에 비해 이의 집단이 34% 높았으며, 실직 경험도 약 18% 높았음. 두 집단 모두 소득 감소액이 약 50~60만원이라는 점에서 COVID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조사대상자의 사업만족도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다만 상용직 집단과 이외 집단 모두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용직 집단의 51.1%, 이외 집단의 56.9%가 지급해 지자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 3년 만기를 모두 채우고 해지한 성공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사업 포기 고려 이유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은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지가 강함을 확인하였음. 사업 포기 고려 이유로는 상용직 집단은 가족의 반대(56.7%), 근로지속의 어려움(16.7%) 등의 순이었으며, 이외 집단은 가족의 반대(51.7%)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2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해지자만을 대상으로 해지 이유를 중복 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상용직 집단은 탈수급(54.2%),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소득(12.5%), 근로 지속의 어려움(11.1%) 등의 순으로 조사됨. 이외 집단은 탈수급(31.3%), 근로 지속의 어려움(22.9%), 급히 돈이 필요해서(14.6%) 등의 순이었음.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선점을 확인한 결과, 해지자를 대상으로 개선점을 확인한 결과 참여자와 유사하게 수급조건 완화가 거의 절반에 달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수령 시 사용 계획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상용직 집단은 주택마련(25.6%), 미래생활 대비(저축)(24.4%), 내구재 구입과 부채 상환(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외 집단은 주택 마련과 미래생활 대비(저축)(22.4%), 본인 및 가족의 교육비(14.9%), 부채 상환(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블로그, 유튜브, SNS를 활용한 홍보, 포털 사이트 광고를 활용한 홍보, 동주민센터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청년희망키움통장 성과

1) 높은 탈수급률 및 만기 성공률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생긴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청년 3,616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 표집을 통해 패널 참여에 동의하는 720명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2019년, 2020년, 2021년 세 해에 걸쳐 1, 2, 3차 패널 자료를 구축함. 2018년 가입 청년 중 대부분은 현재 3년 만기로 통장 사업 만기일이 도래함.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패널 중 85% 가량은 만기로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및 환수해지 상태이며 15%만이 통장사업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패널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해지 현황은 다음 <표 5-1>과 같음

지급해지는 통장사업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하거나 통장사업 참여 중에 탈수급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종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통장 사업에 참여한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수령함. 따라서 지급해지자는 모두 탈수급한 경우로 패널 중 60.6%가 지급해지에 해당함

일부지급해지는 통장사업 유지 조건을 만족하여 3년 만기하였으나 탈수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과 만기성공금 형태로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을 수령함. 패널 중 약 10.3%가 일부지급해지에 해당하며, 일부지급해지자 대부분(90.5%)은 만기 성공 하였으나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이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하다가 군입대한 경우 8.1%, 용도증빙 하지 못하여 일부지급해지한 경우(1.4%)도 발견됨

환수해지는 통장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통장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과 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함. 다만 본인적립금이 있을 경우 본인적립금과 본입적립금에 해당하는 이자만 수령함. 패널 중 13.9%가 환수해지에 해당함. 환수해지 사유로는 과반수 이상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소득 미발생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본인희망포기가 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군입대, 용도증빙못한 경우, 사망 등도 발견됨

패널 중 2021년 10월 31일 시점에서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 또한 15%로 이들은 만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인 경우로, 이들 중 탈수급을 하고 용도증빙이 되면 지급해지, 탈수급을 못하거나 용도증빙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지급해지일 것으로 추정됨

〈표5-1〉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인 패널의 유지 및 해지 유형 현황 및 사유

유지 및 해지 유형 구분	패널 현황	해지사유 현황		해당 경우	지급
전체	720명	사유	720명	-	-
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436명 (60.6%)	탈수급	436명 (100%)	•통장사업 참여 중 혹은 만기 후 3개월 유예 기간 이내에 탈수급한 경우 - 참여중 탈수급해도 소득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통장 유지 가능 - 소득상한 초과하는 경우 사업종료(중도지급해지) •사용용도증빙 제출완료 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해지	74명 (10.3%)	만기성공하였으나, 탈수급못함 군입대 (12개월이상 불입) 탈수급 하였으나, 용도증빙 못함	67 (90.5%) 6 (8.1%) 3 (1.4%)	•통장사업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통장사업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하고 군입대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환수해지	100명 (13.9%)	연속 6개월 근로소득 미발생 본인희망 군입대 (12개월미만 불입) 용도증빙 못함 사망	55 (55%) 40 (40%) 3 (3%) 1 (1%) 1 (1%)	•연속 6개월 근로사업소득 미발생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 •본인희망포기 •압류/가압류, 사망 등 •12개월 미만 통장 불입하고 군입대하는 경우	-
유지	109명 (15.1%)			•통장사업 참여 중 혹은 만기 후 3개월 유예 기간 중	대부분 지급해지 혹은 일부지급해지 로 추정

즉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청년 3,616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 표집을 통해 구성한 패널 중 약 60%는 이미 탈수급을 함. 또한 탈수급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3년 동안 유지하며 만기 성공한 경우도 67명(9.3%)으로 참여자 중 70%는 탈수급과 만기 성공의 경우임. 또한 현재 통장사업을 유지 중인 109명(15.1%)도 대부분 가입 후 3년이 도래한 경우로 모두 만기 성공이며 이 중 일부는 탈수급을 하여 지급해지일 수 있음

따라서 패널 결과로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의 85% 가량은 근로유지를 통해 만기 성공 혹은 탈수급을, 60% 이상은 탈수급에 성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5-2〉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 및 만기 성공 비율

전체 패널	720명
탈수급 (통장사업 참여 중 혹은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후 지급해지)	436명 (60.6%)
만기성공 (3년 근로유지하여 통장사업 성공적으로 만기하였으나, 탈수급 못하여 일부지급해지)	67명 (9.3%)
유지 (2018년 가입자 중 2021년 10월 31일 시점에서 통장 유지하고 있는자로, 통장사업 만기 후 3개월 내 탈수급하면 지급해지 못하면 일부지급해지)	109명 (15.1%)
탈수급 및 만기성공률	512명 (85.0%)

2) 고용 상황 개선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들의 고용 상황을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형태 중 상용직 비율, 근로시간형태 중 전일제 근로 비율,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또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 즉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패널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지난 3년간 상당히 개선됨

또한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패널 청년들과 2021년에 신규 참여한 청년의 고용 상황을 비교한 결과, 근로형태, 근로지속가능성, 직종분류, 사회보험 가입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패널 청년들이 신규 참여자에 비해 상용직 종사 비율, 전일제 종사 비율,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높아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음. 또한 근로 직종에 있어서도 패널 청년의 경우 사무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직종에의 종사 비율이 높아 2018년부터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해 온 패널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수급 조건인 근로유지와 탈수급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성취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1차 패널 참여자는 720명인 데 비해 3차 패널 응답자는 523명(72.4%)으로 중도해지의 경우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응답자들이 2, 3차 패널 응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성과 과대평가 가능성이 존재함

3) 경제적 상황 개선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들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상황을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부채상환액, 총 생활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옴. 특히 근로소득은 2019년 평균 101.7만원, 2020년 110.2만원, 2021년 137.3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고 추정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부채부담 및 가족부양부담에 대한 인식 정도도 점차 완화됨

또한 2018년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패널 청년들과 2021년에 신규 참여한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월평균저축액, 생활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즉 패널 청년들이 신규 참여자에 비해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월평균저축액, 총 생활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8년부터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해 온 패널 청년들이 2021년에 신규로 통장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 비해 소득, 저축, 지출 등에 걸쳐 경제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음을 의미함

경제적 상황의 개선은 앞서 검토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청년들의 고용 상황의 개선에 상당부분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인부채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 3차 패널의 경우 지급해지자 수가 증가하면서 적립액을 받아 주거를 옮기는 경우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부채액의 증가는 신용 향상, 주거상황 개선, 창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음

4) 경제적 상황, 재무역량,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 외에 관련 인식을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그 결과, 저축 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역량, 금융이해력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 외에 저축 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역량, 금융이해력 등 관련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를 2018년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패널 청년들과 2021년에 신규 참여한 청년 간에 비교함. 그 결과, 패널 청년들이 저축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저축 태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낮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축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재정적 역량이 보다 향상되었다고 인지하였음을 의미함. 또한 의무는 아니지만 금융교육에의 참여 혹은 금융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2차 패널에 추가된 지표인 금융 이해력 또한 2차 조사에 비해 3차 패널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5) 정서적 역량 강화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들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자아존중감(이하 자존감), 행복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그 결과, 자존감은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함. 행복의 경우에도 1, 2차 패널에 비해 3차 패널에서는 상승하여 사업 종료 시점에는 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패널 청년들과 2021년에 신규 참여한 청년의 심리정서적 상황 및 역량을 자존감과 행복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패널 청년들이 신규 참여자에 비해 자존감과 행복 점수 모두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이러한 결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목돈이 마련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다만 행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돈을 마련해가는 자산형성의 과정이 다차원성을 가지는 행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를 가졌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장사업에의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음

6) 미래에 대한 생각과 준비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한 패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1~10점 11점 척도 1문항), 예상진로(1, 2, 3순위)의 지표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 2, 3차 패널을 통해 분석함. 그 결과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패널 1, 2차에 비해 3차 년도에 다소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이는 적립액을 급여받거나 받을 3차년도에 미래의 경제상황을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 예상진로(1순위)의 경우 취업유지, 특별한 계획없음, 이직, 개인사업 및 창업,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군입대의 순으로 지난 3년간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2차 패널 시 특별한 진로계획 없음(+9.7%), 이직(+4.2%), 개인사업 및 사업(+3.3%)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가 저소득 청년 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패널 청년들과 2021년에 신규 참여한 청년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을 비교한 결과, 패널 청년들이 신규 참여자에 비해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1년뒤 예상진로와 관련하여 패널과 신규 모두 취업유지, 이직, 계획없음, 창업, 편입학 순으로 나타난 반면 패널 참여자는 취업유지, 이직, 신규 참여자는 진

학, 편입학, 군입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의 참여는 미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하는데 다소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패널 참여자들에 비해 신규 참여자들의 진학, 편입학, 군입대 등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반면, 패널의 경우 이미 통장사업에 참여하면서 진학과 편입학 등 교육을 통해 현직장애의 취업유지 혹은 이직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역할

1) 저소득 빈곤 청년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를 통한 경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3차 패널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시행된 2018년 참여자 대상으로 3차 패널을 구축하여 1, 2차 패널과의 비교 및 2021년 신규 참여자와 비교 분석함

(1) 고용 및 경제적 상황 개선

분석 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패널 청년들은 2018년 이래 2021년까지 근로형태 중 상용직 비율, 근로시간 형태 중 전일제 근로 비율, 사회보험 가입율이 증가하며 지난 3년간 고용 지위가 향상해 옴. 또한 패널 청년들은 2021년 신규 참여자에 비해서도 상용직 비율, 전일제 종사 비율, 사회보험 가입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지위를 가지고 있음. 이는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난 3년간 안정적인 일자리 성취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수급 조건인 근로유지와 탈수급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패널 청년들은 고용 지위의 개선과 함께 경제적 상황도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패널 청년들은 2018년 이래 2021년까지 근로소득, 월평균 저축액, 총 개인부채액, 월평균 부채상환액, 총 생활비 등이 매년 증가함. 또한 2021년 신규 참여 청년에 비해서도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월평균저축액, 총 생활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음

(2) 저축태도, 재무 역량, 경제적 상황 인식 및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향상

고용 상황 및 경제적 상황의 개선과 더불어 관련 인식도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널 청년들은 2018년 이래 2021년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축 태도, 경제적 스트레스, 재무역량, 금융이해력 등이 긍정적 변화함. 더하여 동일한 지표를 2021년 신규 참여 청년과 비교한 결과, 패널 청년들이 저축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패널 청년들은 2018년 이래 2021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3년 동안 자존

감과 행복,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참여 청년들에 비해서도 자존감, 행복 및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통장사업에의 참여가 청년들의 정서적 역량 강화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3) 정서적 역량 강화

이처럼 저소득 빈곤 청년들은 목돈 마련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고용 상황,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저축 태도, 재무 역량, 경제적 상황, 미래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정서적 역량 강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참여 청년들에게 고용, 경제적,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여 다차원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2) 참여 청년의 경험로부터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역할

패널분석을 통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들의 경험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1) 근로 지위, 경제적 상황, 주거 상황 개선, 인적자본 향상 등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에 기여하는 사업

또한 적립액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곧 지급받을 예정인 패널 청년들은 대체로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등에 활용했거나 활용할 계획으로 나타남. 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경제적 상황 개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에 기여한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2) 탈수급을 결심하는 계기이자 기회

더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의 경우 생계급여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적립액 수령시 탈수급을 조건으로 함. 이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역량, 부모의 반대 등으로 탈수급을 보다 어렵거나 두렵게 느끼는 청년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반면, 탈수급을 원하거나 준비해 온 청년들이 탈수급을 결심하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는 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는 3년이 탈수급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청년들이 탈수급 이후의 독립적, 자립적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 있음⁴⁾

4) 이는 최상미 외(2018)의 연구 결과로부터도 추정이 가능함. 최상미 외(2018)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한 청년 중 가입 청년과 비가입 청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경우 근로소득, 상용근로 비율 등이 비참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이 비참여 청년에 비해 사업 참여 시점에서 보다 자립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4.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제언

1) 우리나라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

보건복지부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 2018년 이래 시행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2020년 이래 시행된 청년저축계좌가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18년 중위소득 20% 이상 생계급여 수급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자격기준, 연령기준을 조금씩 완화하며 대상을 확대해왔으나, 지급 조건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은 유지해 옴.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가구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금융교육에의 의무 참여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지급 조건으로 함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청년이 총 300만원(매월 125,000원) 적립 시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자산형성사업과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름. 그러나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중복 가입을 금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경북, 경남, 전남, 충북, 충남, 제주 등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들이 개인 근로소득이나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다음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80%, 90%, 100% 이하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함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서울,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 청년저축계좌사업을 보다 많은 정부 지원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 도입하면서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들은 지자체 사업보다는 중앙정부 사업에 우선 가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과의 이중 가입, 즉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음

〈표5-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

	대상	가입 조건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	가 입 기간	수령액	지급 요건	담당 부처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청년 (만15세~39세)	생계급여 수급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	청년소득 비례 1:3~4 수준	3년	평균 1,789만원 ¹⁾	근로유지 생계급여 탈 수급	보건 복지 부
청년저축계좌	근로청년 (만15세~39세)	주거,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월 10만원	1:3	3년	1,440만원 + 이자	근로유지 교육이수 자격증취득	보건 복지 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로청년 (만 15세~34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월 12.5만 원(총 300 만원)	정부600만 원+기업300 만원	2년	1,200만원	2년간 해당기업 근로유지	고용 노동 부
서울시 희망 두배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 (만18세~34세)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월 10 또는 15만원 (선택)	1:1	2년 또는 3년 중 선택	최소 480만 원+이자~최 대 1,080만원 +이자	근로유지 금융교육 이수 (연1회)	지 자 체
경기도 일하 는청년 노동자통장	경기도 거주 근로청년 (만18세~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10만원	1:1.4 (현금+ 지역화폐)	3년	580만원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근로유지 교육이수 (총3회)	지 자 체
부산시 청년 희망날개통장	부산시 거주 근로청년 (만15세~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월 10만원	1:1	3년	720만원 + 이자	금융교육 연 1회(총 3회), 사례관리상 담 연 1회 이 상 이수	지 자 체
대전시 행복 나눔청년희 망통장	대전시 거주 주30시간 이 상 계속 근로 청년 (만 18 세~39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월 15만원	1:1	3년	약1,100만원 (1,080만원 +이자)	금융교육 이 수 (연1회)	지 자 체
인천시 드림for청년 통장	인천시 거주 만 39세이하 4대보험 가입 근로청년	인천시 중소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정규직·주당 35 시간 이상 근로, 연봉 2,800만원 이하인 근로 자	월 10만원	분기50만원 *8회(2년) + 분기60만원 *4회(1년) =640만원	3년	1,000만원 + 이자	해당 기업 근무 유지	지 자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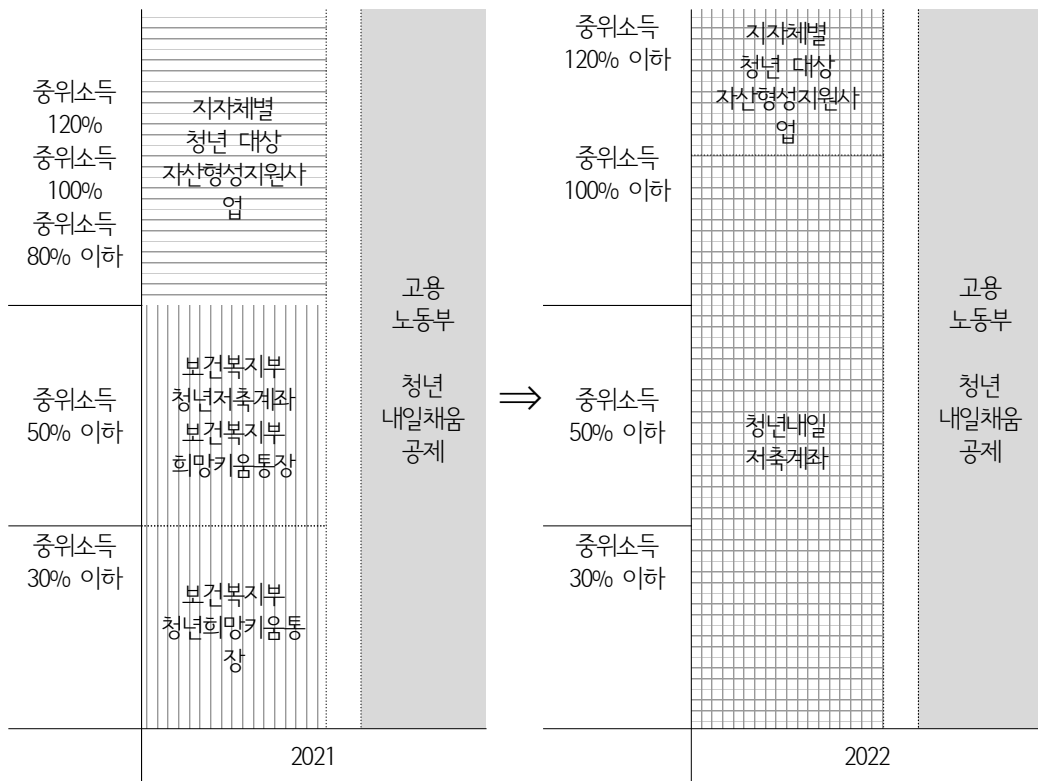
주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자활사업안내 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p.3.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대체로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소득을 가입 조건으로 명시함으로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저소득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함. 또한 모두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사업 만기 시 적립액 지급 요건으로 근로 유지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청년들의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짐

또한 지자체 사업의 경우 대체로 중위소득 80%, 100%, 120% 이하 등 보다 보편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대체로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혹은 15만원에 대해 정부가 1:1 수준의 매칭을 지원함. 한편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30% 혹은 50% 이하의 보다 선별적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대비 정부 지원액이 1:3 수준의 높은 매칭 비율로 설계함으로써 최하위 저소득가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집중지원하는 의미를 가짐. 이에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사업에, 그 이상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음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에는 본인저축액 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기만하면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이에 정부지원수준은 높으나 생계급여 탈수급을 지급 조건으로 함으로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가지며 부가서비스가 없어 청년들의 금융 역량 강화에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을 받아 옴(최상미 외, 2020).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2020년 1:3을 매칭 비율로 하는 청년저축계좌가 도입됨. 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점차 세분화되면서 저소득 가구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2022년부터 아래 <그림 5-1>의 우측과 같이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하여 운영 예정임. 통합 운영을 통해 대상, 가입 조건, 유지 조건, 지급 조건 등을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하여 제안되어 온 개선점들을 반영하여 보다 청년중심적이며 자산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으로의 변화가 기대됨



[그림 5-1]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구조

- 주1) 청년의 기준은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만15~39세, 지자체 사업의 경우 만15~34세, 만18~39세, 만18~34세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주2) 2022년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 운영될 예정임

2)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확대

연구 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청년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근로유지와 인적자본 강화 노력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높은 탈수급율과 근로유지를 통한 만기 성공률을 보였으며, 상용직 비율 증가, 전일제 근로 비중 증가, 4대보험 가입률 증가, 근로소득 향상, 저축액 향상, 월평균 부채상환액 증가 등 객관적 상황이 개선됨. 더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 재무 역량 강화,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자존감 향상,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 비율 증가 등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 변화를 경험함. 다만 가장 많은 청년들이 지급액을 주거에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월세, 반전세, 전세, 자가 등 주거 점유율 상에서 지난 3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음. 이는 청년들이 만기 지급해지하면서 지급액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주거 마련에 활용하면서 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좀 더 조건이 좋은 반전세로, 전세로 옮겨가는 데 기인함

이처럼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실제로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고용 및 경제적 상황 개선, 삶의 안정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패널 연구를 통해 입증되는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자리, 주거, 생활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안되어 옴. 또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임. 또한 보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사업도 포괄하여 중앙에서 통합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점차적으로 운영효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해나갈 필요성을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가입, 유지 및 지급 조건을 크게 완화함. 이는 한편으로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하여 보다 보편성을 확보하였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 100% 이하 가구 청년 대상으로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상당수를 편입하여 운영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3) 청년희망키움통장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되어 온 개선점과 2022년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에의 반영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사업 내용 및 대상 확대, 지급 요건 중 탈수급 조건 완화 혹은 폐지, 미근로 허용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사업 참여 기간 연장, 사용용도증빙 간소화, 이용 편의성 강화, 사업안내 및 정보제공 체계화, 의뢰 및 연계 체계 구축, 금융교육 등 부가서비스 운영을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함(최상미 외, 2019, 2020).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개선안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에서 일부 조건이 완화되어 온 부분도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 가입자들이 해지할 때까지만 사업을 지속하며 2022년부터는 새로운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됨. 대신 2022년부터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통합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지난 3년 간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고려하여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음. 이에 본 절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하여 제안되어 온 개선안들이 2022년 이래 운영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어떻게 반영 예정인지, 나아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함.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되어 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개선안들의 반영여부는 아래와 같음

첫째, 사업의 내용 및 대상 확대와 더불어, 중위소득 20% 이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시행된 이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며 사업 확대가 논의되어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주거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가 시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 통합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으로 그 대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둘째,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급 요건인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은 한편으로는 탈수급을 하지 못해 성공적으로 지급해지를 못하거나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 청년 집단 내에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형평성 및 역차별 측면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생계급여 탈수급’ 지급요건의 완화, 나아가 폐지가 제안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2년이래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합하여 시행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탈수급 조건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개선안은 반영됨

셋째, 근로유지와 관련하여 가입기간 중 매월 근로여부를 확인했던 현행의 방식은 근로를 가입조건으로는 하되 가입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함

넷째, 사용용도증빙 간소화와 관련하여 현재는 지원액의 최소 50%의 사용용도를 증빙해야하며 적지만 사용용도증빙을 하지 못해 지원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용도증빙 간소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2년 시행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용도증빙을 폐지하고 지급해지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섯째, 이용 편의성과 관련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참여자들로부터 제안되어 온 인터넷 뱅킹에서 입금 및 적립액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개선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도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현행을 유지할 계획임.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매월 시행하던 근로유지 확인을 연 1회로 줄이고 사용용도증빙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용 편의성이 상당 부분 개선, 강화됨. 나아가 통장가입신청과 적립, 조회, 교육, 적립중지신청, 지급(해지)신청 등 가입 후 일체의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포털을 구축하고 있음.

여섯째, 사업안내 및 정보제공 체계화와 관련하여 사업 안내·상담 체계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콜센터를 강화하고 사업 지침을 명확히함

마지막으로 의뢰 및 연계 체계와 관련하여 해지 시 구직을 위한 생활비, 주거 보증금, 창업자금, 교육비,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지원금 활용 계획 및 사례관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별로 주거지원, 고용지원, 양육지원 등 관련 사업을 의뢰 혹은 연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안되어 옴. 특히 일부지급해지자나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경우에 더욱 관련 사업으로의 연계나 의뢰가 필요하며, 2021년 코로나19로 청년의 정신건강, 부채 및 신용, 일자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부채 및 신용관리, 적극적 노동정책, 전문심리상담서비스로의 의뢰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시행할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연계 및 의뢰가 원활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 사례관리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지역사회별로 특화하여 관련 서비스 및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례관리의 부재를 보완할 계획임

각 제안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의 반영여부는 다음 <표 5-4>에 정리되어 있음

<표5-4>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 제안과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의 반영 내용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반영여부
생계급여 탈수급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이수(교육시간 10시간)	반영
근로유지	가입기간 중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입기간 중 연 1회 근로사업소득 발생 정기적으로 확인	일부반영
사용용도증빙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용도증빙 요구 없음. 단, 지급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 ¹⁾ 제출토록 하여 관리 예정	반영
이용 편의성 강화	근로증빙, 사용용도증빙, 대면 접수와 서류 제공 관련 불편 사항 접수되어 인터넷 뱅킹에서 적립액 확인 가능	근로유지 확인 간소화, 사용용도 증빙 폐지를 통한 이용 편의성 강화 온라인 가입신청과 이후 적립, 조회, 교육, 적립증지신청, 해지 신청 등 일체의 서비스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 인터넷 뱅킹에서 입금 및 적립액 확인 가능	반영
특정 사유에 한하여 자기적립금 인출 가능케 하거나 소액 대출 알선연계	지침상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은행 '청년희망키움통장 특약 제13조'에 최종해지 제외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분할해지(1회) 가능하도록 개정	반영
군입대 시 통장 유지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증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19.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하며, 군입대 적립증지는 적립증지 최대 3회 제한에 미포함	현행 유지	반영
의뢰 및 연계 체계 구축	심화 사례관리 시 제공 내용이나, 실제로 심화 사례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으로 논의 중	일부 반영

이처럼 2022년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 4년간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안되어 온 내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고도화 될 계획임. 이에 사업 운영 관련하여 두 가지만 추가로 제안하고자 함

먼저, 군입대의 경우와 관련하여 현재 군입대의 경우 2019년 6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최대 2년까지 적립중지가 가능하여 만약 2년 적립중지를 하는 경우 통장을 5년 유지하여 지급해지할 수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도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임. 이는 군입대의 경우에 중도에 해지해야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통장가입기간이 연장되어 제대 후 독립, 결혼, 창업 등에 지급액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미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군입대의 경우 2년간 적립중지나 군생활 동안에 매달 본인 저축액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군생활을 근로로 인정하여 3년 만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다음으로,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참여자의 경우 매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정부 매칭액 30만원을 3년간 적립하여 1,440만원과 이자를, 중위소득 50~100% 차상위초과 가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정부 매칭액 10만원을 3년간 적립하여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개선점과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저축금액 다양화(패널 20.4%, 신규 17.7%)를 제안함. 즉 저소득 청년들은 상황에 따라 10만원 정도의 적립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한편, 특정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여 더 많은 자산형성을 원할 수도 있음. 또한 창업을 진로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창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일원화된 가입기간은 창업을 미뤄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 이에 가능하다면 적립액과 적립기간을 다양화하여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 자금사용계획서: 통장의 가입 시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 목적의 용도 작성(서식 제정 예정)

4) 청년희망키움통장 부가서비스 운영과 관련 제안과 2022년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에의 반영

청년희망키움통장 선행 연구들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교육 등 부가서비스 운영을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해 옴. 부가서비스 운영 시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어떻게 제공할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최상미 외(2020, 2021)는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국내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검토와 참여자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FGI)을 통해 금융·재무교육, 노무교육 등 기타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재무상담,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을 제안함.

먼저 교육과 관련하여 2020년 2차 패널 이래 금융이해력 수준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음. 패널의 경우에도 2차, 3차 모두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았으며, 2021년 신규 가입 참여자의 경우에도 금융이해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금융교육 등 어떤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통장사업으로,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교육이나 부가서비스 참여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임. 그러나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이 낮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의 참여만으로는 금융지식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청년들의 금융 관련 지식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음. 그 외에도 사회보험 등 노무 관련 지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음. 이에 금융·재무교육, 노무교육, 출산육아교육 등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고 편안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참여자별 지식 수준과 관심이 다르다는 점, 콘텐츠를 다양화해야한다는 점에서 온라인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필수교육과 함께 선택교육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지식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함. 관련하여 2022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합하여 운영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온라인포털시스템에서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 참여 청년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3년 동안 10시간 이수율 의무화함

둘째, 재무상담 및 노무상담의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함으로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안함. 재무상담의 경우 현재 청년희망키움

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아직 관련 계획은 없음

셋째,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2020년 이래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심리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심층 대면 심리상담을 지원할 필요를 제안함.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들은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의 사례관리 이용을 원치 않아 사례관리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에 전국사업에서 사례관리 없이 대면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넷째, 적립문자 알림서비스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에게 문자로 적립액, 적립날짜, 적립횟수 등 적립관련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통장사업 유지, 나아가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제안되어 옴.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음.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가입 청년이 알림 설정한 경우에 본인저축액이 적립해야하는 날까지 적립이 되지 않은 경우 자산형성 포털에서 안내 예정임

다섯째,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존재 여부 및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짐. 이에 지역별로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큐레이팅하여 제공하는 방식 및 청년 정책 앱을 만드는 방안 등을 활용하여 청년 정책 관련 정보 제공 필요성을 제안함.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온라인 포털 상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정보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운영 방안을 논의 중임

앞서 논의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부가서비스 관련 제안과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반영 내용은 다음 <표5-5>와 같음

〈표5-5〉 청년희망키움통장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과 2022년 시행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부가서비스 시행 계획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재무교육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지급 요건으로 교육 수강 의무 아님	온라인포털시스템에서 자립역량교육 제공 예정이며, 지급해지 필수 요건으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해야함
금융재무교육외교육		지역 특성 반영한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논의 중
적립알림	정식 및 필수는 아니나,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있음	가입자가 알림 설정 시 본인저축액이 적립일까지 적립되지 않은 경우 자산형성 포털에서 안내
정보제공	심화 사례관리 시 제공 내용이나, 실제로 심화 사례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온라인 포털을 기반으로 가용한 정보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논의 중
재무상담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이용률 낮음	계획 없음
심리상담	심화 사례관리 시 제공 내용이나, 실제로 심화 사례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부가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면서 금융재무교육 등 온라인 교육, 적립알림,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제공 방안을 논의 중임. 재무상담과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계획이 없으나 청년의 정신건강이 사회문제화되고 청년 개인별로 처한 상황과 욕구가 다양하여 교육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재무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심리상담이나 재무상담의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형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례관리와 같이 가야 가능한 부분임. 이에 재무상담 및 심리상담의 도입은 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기도, 2021,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8.17)”, <https://ggwf.gg.go.kr/archives/54383>.
- 경기복지재단, 20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준수사항 안내서(8기-10기)”,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 남재욱. 2020. 코로나 19와 청년의 삶: 노동, 이행,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긴급토론회 ‘코로나19속 청년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발표문.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 대전시, 2021, “「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07.26)”, https://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ntatcSeq=1335518850&menuSeq=1631&boardId=normal_0096.
- 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582.
- 부산시, 2021, “청년희망날개통장 지원 조건 및 사업 안내(12.15)”, http://www.busanjh.or.kr/bbs/board.php?bo_table=notice2&wr_id=196&sca=%EA%B3%B5%EC%A7%80&page=2.
- 부산청년플랫폼, <https://www.busan.go.kr/young/index>.
- 서울시, 2020,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문(7.6)”,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서울시, 2021, “2021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서 서식”,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 서울시, 2021,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8.2)”,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action>.
- 서울시복지재단, 2020, “2020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기관 특화사업 운영계획”,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view/?nid=20056187>.
- 서울시복지재단,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내역 안내(서울시 재단 내부 자료).
- 서종녀. 2017.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이수영·성유지. (서울시복지재단-2019-20)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 이순성·김미현·조효주·한가영. 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측정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인천시, 2021,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17)”, <https://dream.incheon.kr/sub/viewBank.jsp>.

최상미·조자영·설소희. 2021.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시복지재단·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미·조자영·이혜인·설소희. 201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미·조자영·이혜인·설소희. 2020.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2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조순·현동길·장동호·성열서. 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성과 분석.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최현수·오미애·한창근·최준영·김성아. 2013. 2013년 희망키움통장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1.8, “실업률 통계”, <http://www.kosis.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2021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https://www.kdissw.or.kr/board.es?mid=a10404000000&bid=0009#content>.

Beverly, S., Sherraden, M., Cramer, R., Williams Shanks, T., Nam, Y., & Zhan, M. (2008). Determinants of asset holdings.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89-151.

Green, R. K., & White, M. J. (1997). Measuring the benefits of home owning: Effects on childre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1, 441-461.

Hill, M. S., & Duncan, G. J. (1987). Parental family income and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children. *Social Science Research*, 16, 39-73.

Kohn, M. L., Naoi, A., Schoenbach, C., Schooler, C., & Slomczynski, K. M. (1990). Position in the class structur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olan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964-1008.

Noponen, H. (1992). Loans to the working poor: A longitudinal study of credit, gender and the household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234-251.

Page-Adams, D. (1995). 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Page-Adams, D., & Vosler, N. (1995, April). Effects of homeownership on well-being among blue-collar workers. In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Washington, DC.

Perkins, D. D., Florin, P., Rich, R. C., Wandersman, A., & Chavis, D. M. (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residential blocks: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83-115.

Pritchard, M. E., Myers, B. K., & Cassidy, D. J. (1989).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aving and spending patterns. *Adolescence*, 24, 711-723.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obert, S., & House, J. S. (1996). SES differentials in health by age and alternative indicators of S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8, 359-388.

Rohe, W. M., & Stegman, M. A. (1994b). The impact of home ownership on the social and political involvement of low-income people. *Urban Affairs Quarterly*, 30, 152-172.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Sherraden, M., Nair, S., Vasoo, S., Liang, N. T., & Sherraden, M. S. (1995). Social policy based on assets: The impact of Singapore's Central Provident Fund.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112-133.

Yadama, G. N., & Sherraden, M. (1996). Effects of asse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Advance test of a social policy proposal. *Social Work Research*, 20, 3-11.

Gov. UK[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www.gov.uk/junior-individual-saving-s-accounts>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www.moe.gov.sg/education/post-secondary/post-secondary-education-account/about-the-psea>

Government of Canada[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ducation/education-savings/resp.html>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2015).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 Manual. Retrieved from <https://www.nj.gov/dca/divisions/dhcr/offices/ida.html>

The Indiana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uthority. (2020).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 Manual(2019-2020). Retrieved from <https://www.in.gov/ihcda/3817.htm?profile=ihcda&query=IDA+Program+Manual+2019-2020&collection=agencies>

부록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조항)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A0_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조사표 (참여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패널자료 구축을 위하여 본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년도 패널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패널조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락 처: 연구책임자 최상미 donggukabp@gmail.com, 02-2260-3659

조사원 기입란

주 소	시군구 번호 참고		☞ 시군구 번호 5자리 중 앞 2자리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36) 세종 41) 경기 42) 강원 43) 충북 44) 충남 45) 전북 46) 전남 47) 경북 48) 경남 50) 제주 ☞ 시도 번호 이하 3자리는 시군구 코드 참고									
	시 군 구 번 호							☞ 2020년 시군구 코드 기준				
	세 부 주 소	도 로 명 (신)	☞ 세부주소까지 도로명 주소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 지번으로 기입 _____ (시·군·구) _____ (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지 번 (구)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조사원 이름		(인)	조사원 소속						지도원 확인		(인)	

< 연구참여 동의서 >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답례품 수령확인서	
조사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현황 및 욕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등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답 례 품	
2021 년 월 일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당지급 및 소득세법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3호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증빙서류 보관 기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년 월 일	성명 :	(서명)

A. 일반현황

A1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A1_1 성별 ☐ ① 남 ☐ ② 여	A1_3 가구주 여부 귀하는 가구주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A1_2 출생년월 년 월 A1_2_1 A1_2_2	A1_5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 ① 예 ➡ A1_5_1 로 이동 ☐ ② 아니오 ➡ A1_6 으로 이동 A1_5_1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체크하십시오. (복수응답) ① 배우자 ② 부 ③ 모 ④ 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⑦ 친인척 ⑧ 기타 (예: 친구)
A1_4 혼인상태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별거 ☐ ④ 사별 ☐ ⑤ 이혼 ☐ ⑥ 사실혼관계(동거) ☐ ⑦ 기타	A1_8 종교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A1_6 학력 (졸업기준)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2년제) ☐ ⑥ 대학교(4년제) ☐ ⑦ 대학원 이상 ☐ ⑧ 고등학교	A1_9 자격증 보유 ☐ ① 자격증 없음 ☐ ② 자격증 1개 있음 ☐ ③ 자격증 2개 있음 ☐ ④ 자격증 3개 이상 보유
A1_7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 ① 비장애(장애없음) ☐ ② 경증(4~6급) ☐ ③ 중증(1~3급) ☐ ④ 비등록 장애인	A1_12 직종분류 ☐ ① 상용근로자(정규직근로자) ☐ ②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 ③ 프리랜서(자유계약자) ☐ ④ 임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 ⑤ 일용직 근로자 ☐ ⑥ 자활근로/공공근로 ☐ ⑦ 고용주/자영업자 ☐ ⑧ 무급가족종사자 ☐ ⑨ 실업자(구직 중) ☒ A2_1 이동 ☐ ⑩ 실업자(구직 중 아님) ➡ A2_1 이동
A1_10 근로형태 ☐ ① 상용근로자(정규직근로자) ☐ ②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 ③ 프리랜서(자유계약자) ☐ ④ 임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 ⑤ 일용직 근로자 ☐ ⑥ 자활근로/공공근로 ☐ ⑦ 고용주/자영업자 ☐ ⑧ 무급가족종사자 ☐ ⑨ 실업자(구직 중) ☒ A2_1 이동 ☐ ⑩ 실업자(구직 중 아님) ➡ A2_1 이동	A1_13 근로시간형태 ☐ ① 전일제 ☐ ② 시간제
A1_11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년 ____개월	A1_14 근로지속가능성 ☐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A1_15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항목	응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음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① 가입 ☐ ② 미가입 ☐ ③ 모름	☐ ① 가입 ☐ ② 미가입 ☐ ③ 모름	☐ ① 가입 ☐ ② 미가입 ☐ ③ 모름	☐ ① 가입 ☐ ② 미가입 ☐ ③ 모름

A2_1

응답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득(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면접원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월소득,
응답자 개인의 소득에 한함

항목		응답
근로 소득	A2_1_1 근로소득 (주된 일자리로부터 받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아르바이트를 포함)	월 평균 만원
기타 소득	A2_1_2 공적 이전소득 (국가 혹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기타 정부보조금 등을 의미함.)	월 평균 만원
	A2_1_3 사적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을 포함하여 주변단체, 기관 (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장학금, 지원금 등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월 평균 만원

A2_2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응답
A2_2_1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전과 비교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	☐ ① 예 ☐ ② 아니오
A2_2_2 (A2_2_1 에서 ①번 응답자만)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전과 비교하였을 때 소득 감소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만원
A2_2_3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의 여파로 일을 잃은 경험이 있다.	☐ ① 예 ☐ ② 아니오

A2_3

응답자의 저축과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면접원

저축은 지난 3개월 기준 월평균 금액,
부채는 조사 시점 기준 총액기재
응답자 개인의 저축과 부채에 한함

항목	응답
저축* (지난 3개월 기준) A2_3 응답자 개인 저축액 (예·적금, 개인연금,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갯돈 불입금 등)	지난 3개월 간 월 평균 만원 (없는 경우 0만원) (저축액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액은 포함하지 않음)
A2_4_1 응답자 개인 부채(학자금 대출금 등, 총 이자 포함)	총 만원 (없는 경우 0만원)
A2_4_2 응답자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월 평균 만원
부채 A2_4_3 응답자 개인이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 없음(부채 없음) ☐ ② 부모·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 ③ 내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 ④ 학자금 지출 ☐ ⑤ 결혼자금 ☐ ⑥ 사업자금 지출(사업 실패 포함) ☐ ⑦ 주택보증금 마련 ☐ ⑧ 기타()
A2_4_4 응답자 개인의 부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 보통 → 매우 부담

- ☞ *저축의 범위
- 저축에는 예·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개인연금(국민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갯돈 불입금,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포함됨
- ☞ *부채의 범위
- 부채에는 은행 빚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
 -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음. 단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이나 연체액은 부채에 포함됨.
- ☞ 백만원의 경우 1,000,000이 아니라 100, 십만원의 경우 100,000이 아니라 10으로 기입(만원 이하 절삭)

A2_5 귀하는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데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A2_6 귀하는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2_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해당 여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을 모두 고르시오. (중복응답 가능)	A2_7_1 □ ① 생계급여
	A2_7_2 □ ② 의료급여
	A2_7_3 □ ③ 주거급여
	A2_7_4 □ ④ 교육급여
	A2_7_5 □ ⑤ 해산 및 장제급여
	A2_7_6 □ ⑥ 자활급여
	A2_7_7 □ ⑦ 탈수급하였으나 통장사업에만 참여
수급 기간 (아래 해당 급여를 1개 이상 받은 전생애 동안의 기간)	A2_7_8 총 A2_7_9 년 개월 응답자가 포함된 가구의 총 수급기간

A3_1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비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월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또한 월 평균 총 생활비에서 아래의 각 항목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응답해 주세요.
(예: 지출이 없어도 반드시 0 기입, 기입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목	응답
A3_1_1 총 생활비 (아래 세부항목의 합)	월 평균 만원
A3_1_2 식료품비 (가정식 비용, 외식비, 아동급식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3 주거비 (전세조달자금(이자), 관리비, 이사비, 복비, 도배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4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취사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5 가구집기비 (장롱, 책상, 냉장고, 식기주방용품, 가사소모품 등)	월 평균 만원
A3_1_6 피복신발비 (정장 및 운동복 등 의류, 내의, 신발류 등)	월 평균 만원
A3_1_7 보건의료비 (안경, 위생대, 약값, 보건의료서비스비용 등)	월 평균 만원
A3_1_8 교육비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문방구비용 등)	월 평균 만원
A3_1_9 교양오락비 (책, 텔레비전, 영화관람, 문화시설관람료 등)	월 평균 만원
A3_1_10 교통통신비 (출근비용, 집전화이용요금, 이동전화이용요금, 인터넷요금 등)	월 평균 만원
A3_1_11 기타소비 (일상소모품: 칫솔, 치약 등 이미용품, 장신구 비용, 경조사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12 비소비 (근로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월 평균 만원

☞ 면접원

- 매달 지출한 항목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의 연간 총지출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작성
- 생활비에 월세 등과 같은 주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항목에 지출이 없는 경우 0만원으로 기입
- 백만원의 경우 1,000,000이 아니라 100, 십만원의 경우 100,000이 아니라 10으로 기입(만원 이하 절삭)

A3_2

다음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을 우선 순위에 따라 응답해주시시오

지출부담 1순위	A3_2	지출부담 2순위	A3_2	지출부담 3순위	A3_2
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광열수도비 ④ 가구집기비 ⑤ 피복신발비		⑥ 보건의료비 ⑦ 교육비 ⑧ 교양오락비 ⑨ 교통통신비 ⑩ 기타소비(일상소모품)		⑪ 비소비	

A4_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일반 단독주택 ☐ ② 다가구주택 (원룸 포함)
- ☐ ③ 다세대 주택 ☐ ④ 연립주택 (빌라)
- ☐ ⑤ 일반 아파트 ☐ ⑥ 임대아파트(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 ☐ 7)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 내 주택 ☐ 8)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복지주택 등)
- ☐ 9) 판잣집, 빌나하우스, 움막(건물이 아닌 경우) ☐ 1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A4_2 현재 고객님의 주거 위치는 어디입니까?

(만약 지상층과 옥탑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상으로, 반지하나 지하층과 지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상으로 답해 주십시오.)

- ☐ 1) 지하층 ☐ 2) 반지하층 ☐ 3) 지상 ☐ 4) 옥탑

A4_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와 주택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___ ① 자가	주택의 총 금액: 총 억 만원	
___ ② 전세	전세 보증금: 보증금 총 억 만원	
___ ③ 보증금이 있는 전세	전세 보증금: 보증금 총 억 만원	월세: 월 평균 만원
___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월세: 월 평균 만원
___ ⑤ 무상		
___ ⑥ 임대아파트(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_____)		

☞ 면접원

- 점유형태에 따른 부가정보 입력
- 응답자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가구주의 점유 형태 입력 - 년세의 경우, 12를 나누어 월평균 지출 금액을 기재
- 월세 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금에 0만원 기재

A4_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1평 = 3.3㎡)

면적: m^2

A5-1 다음 중 지난 2년 (2019년 9월~2021년 9월) 동안 준비하거나 참여한 활동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A5_1_1 상위학교 진학		
A5_1_2 자격증 취득		
A5_1_3 외국어능력 향상		
A5_1_4 진로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A5_1_5 다양한 활동 참여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연수 등)		
A5_1_6 수상 (공모전 등)		
A5_1_7 인턴 등 직무 경험		
A5_1_8 기타		

A5-2 귀하의 1년 뒤의 예상 진로에 대해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결혼, 출산 등은 "기타"에 기입

1순위 항목	A5_1	2순위 항목	A5_2	3순위 항목	A5_3
① 취업유지 ② 이직 ③ 상급학교 진학		④ 편입학(학생인 경우) ⑤ 개인 사업 및 창업 ⑥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⑦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⑧ 기타	

A6 귀하의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B. 주관적 지표

B1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1_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1_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B1_1_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한다.					
B1_1_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B1_1_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B1_1_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B1_1_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B1_1_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B1_1_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B1_1_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2 우리의 삶은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 - 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측면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는 그러한 삶의 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보통이다	⑤ 그런 편이다	⑥ 그렇다	⑦ 매우그렇 다
B1_2_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B1_2_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B1_2_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하는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나요?

문항	① 전혀 느끼지 않았다	② 거의 느끼지 않았다	③ 느끼지 않았다	④ 보통이다	⑤ 가끔 느꼈다	⑥ 종종 느꼈다	⑦ 항상 느꼈다
B1_2_4 즐거운							
B1_2_5 행복한							
B1_2_6 편안한							
B1_2_7 짜증나는							
B1_2_8 부정적인							
B1_2_9 무기력한							

B1_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때때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3_1 나는 목표를 세웠다가도 금세 다른 목표를 세우고 한다.					
B1_3_2 나는 새로운 생각이나 일이 생기면 이전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B1_3_3 나는 좋아했던 일에 쉽게 흥미를 잃는 편이다.					
B1_3_4 나는 몇 달 이상 걸리는 일에는 계속 집중하기가 힘들다.					
B1_3_5 나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낸다.					
B1_3_6 나는 일이 잘 안풀려도 의욕을 잃지 않는다.					
B1_3_7 나는 부지런하다.					
B1_3_8 나는 열심히 일한다.					

B1_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때때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4_1 나는 변화에 잘 적응한다.					
B1_4_2 나는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도 잘 회복하는 편이다.					

B1_5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21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문항	① 극히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미만)	② 가끔 있었다 (일주일 에 1~2일간)	③ 종종 있었다 (일주일 에 3~4일간)	④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5일 이상)
B1_5_1 먹고 싶지 않고 의욕이 없다.				
B1_5_2 비교적 잘 지냈다.				
B1_5_3 상당히 우울했다.				
B1_5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B1_5_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B1_5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B1_5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B1_5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B1_5_9 마음이 슬펐다.				
B1_5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B1_5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B2_1 저축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체크하십시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1_1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B2_1_2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B2_1_3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B2_1_4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B2_1_5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B2_1_6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B2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2_1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B2_2_2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B2_2_3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B2_2_4 여윌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B2_2_5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B2_2_6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B2_2_7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B2_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B2_3_1 연 2%의 이자를 보장하는 정기예금에 100만원을 입금한 후 5년 동안 입금해둔다면, 5년 후에 동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있겠습니까?	102만원 초과	102만원	102원 미만	모름	응답 거부	-
B2_3_2 연 1%의 이자를 보장하는 정기예금이 있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은 2%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가 1년 뒤에 받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지금 돈을 받아서 살 경우에 비하여 어떻게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다	동일하다	지금보다 더 적다	모름	응답 거부	-
B2_3_3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채권과 금리 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모름	응답 거부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시면 '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④ 응답거부		
B2_3_4 부동산 담보 대출(모기지)은 일반적으로 30년 보다 15년인 경우 매달 지불비용이 더 높지만, 대출 기간 동안 지불된 총이자 는 더 적다.						
B2_3_5 주식을 사는 경우, 한 회사의 주식만을 사는 것보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다 안전하다. 즉,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한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B2_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B2_4_1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B2_4_2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B2_4_3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B2_4_4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B2_4_5 수입이 증가하면 저축을 늘린다.				
B2_4_6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B2_4_7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B3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1_1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B3_1_2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책,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본다.					
B3_1_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B3_1_4 나는 직업 또는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한다.					

B3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2_1 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					
B3_2_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3_2_3 나는 일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B3_2_4 나는 일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B3_2_5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B3_2_6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B3_2_7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B3_2_8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B3_2_9 나는 내가 미래에 내 직업으로부터 얻을 성취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B3_2_10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B3_2_11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위한 길 위에 있다.					
B3_2_1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B3_2_1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재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성취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B3_2_1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B3_2_15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3_2_16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3_2_17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B3_3 다음 문항을 읽고 이하의 내용이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장벽으로 작동하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장벽이 아님	② 장벽이 아님	③ 보통	④ 장벽임	⑤ 강한 장벽임
B3_3_1 부진했던 (이전의) 학업 성적					
B3_3_2 우리가족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					
B3_3_3 교육, 직업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B3_3_4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교육 자원의 부족					
B3_3_5 직업관련 경력 및 자격 부족					
B3_3_6 충동구매,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					
B3_3_7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3_3_8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3_3_9 SNS, 동영상 시청 등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					
B3_3_10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한 게임에의 지나친 몰입					
B3_3_11 부모의 보호와 사랑 부족					
B3_3_12 가족 간의 불화 및 단절					
B3_3_13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환경의 부재					
B3_3_14 내가 원하는 것과 가족 기대간의 불일치					
B3_3_15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					
B3_3_16 스트레스, 외상,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					
B3_3_17 내 적성을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					
B3_3_18 보수, 근무환경 등과 관련하여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의 어려움					
B3_3_19 소득 증가로 인해 통장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B3_3_20 잇따른 취업 실패로 인해 도전에 대한 두려움					

B4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4_1_1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음					
B4_1_2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함					
B4_1_3 사람들은 대체로 날 도우려 함					
B4_1_4 사람들은 대체로 날 이용하려 함					
B4_1_5 이웃들과 자주 얘기하는 편임					
B4_1_6 친구들과 전화, SNS(스마트폰)를 통해 자주 연락함					
B4_1_7 혈연(친인척) 관계를 자주 이용함					
B4_1_8 지연(고향) 관계를 자주 이용함					
B4_1_9 학연(학교) 관계를 자주 이용함					
B4_1_10 주민모임(반상회, 노인회 등)에 참여함					
B4_1_11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함					
B4_1_12 여가, 취미, 체육, 문화동호회에 참여함					
B4_1_13 봉사,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함					
B4_1_14 정당·정치단체에 참여함					
B4_1_15 종교단체에 참여함					
B4_1_16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함					
B4_1_17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은 중요함					
B4_1_18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중요함					
B4_1_19 범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는 것은 중요함					
B4_1_20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함					

B4_2 지난 1년(2020.9.1~2021.8.31) 동안 해당 활동에 대한 귀하의 참여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참여일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경험 여부 및 지난 1년간 참여일수
1) 종교활동	B4_2_1 연간 총 일
2) 여가활동(음악, 독서, 영화, 스포츠, 레저활동 등)	B4_2_2 연간 총 일
3) 친목모임(친구 모임, 동창회, 향우회 등)	B4_2_3 연간 총 일
4) 정당, 정치 관련 모임(정당 활동, 정치 참여 모임 등)	B4_2_4 연간 총 일
5)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B4_2_5 연간 총 일
6) 기타 시민단체(환경단체 등)	B4_2_6 연간 총 일

☞면접원 참여 일수 작성 : 매월 1회 참여하는 경우는 12일 / 매주 1회 참여하는 경우는 52일 / 하루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일
하루에 본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경우도 1일로 측정

B4_3 다음은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4_3_1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B4_3_2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B4_3_3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B4_3_4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B4_4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C.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추가문항

C1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주시요.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C1_1 지원 금액의 수준					
C1_2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C1_3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C1_4 위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귀하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C2 귀하는 현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 ① 참여 ☐ ② 지급해지(통장만기로 해지) ☐ ③ 중도해지(3년 만기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

C3 만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 ② 근로지속의 어려움 ☐ ③ 행정적 불편함
☐ ④ 가족의 반대 ☐ ⑤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 ⑥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 ⑦ 기타()

C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저축금액 다양화 ☐ ②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 ③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 ④ 가족 중복참여 허용
☐ ⑤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 ⑥ 기타()

C5 다음 중 귀하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1순위 항목	C5_1	2순위 항목	C5_2	3순위 항목	C5_3
① 가족상담·가족교육 ⑧ 자격증취득교육 ② 문화여가 ⑨ 주거개선 ③ 후원금/물품 ⑩ 창업교육 ④ 심리상담 ⑪ 재무상담·재무컨설팅 ⑤ 양육교육 ⑫ 금융교육 ⑥ 의료지원 ⑬ 기타() ⑦ 직업교육·훈련					

C6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청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홍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1순위 항목	C5_1	2순위 항목	C5_2	3순위 항목	C5_3
① 포털 사이트 광고를 활용한 홍보 ② 블로그, 유튜브, SNS를 활용한 홍보 ③ 유관기관 홈페이지 (예. 온라인청년센터, 워크넷) ④ 동주민센터 홍보 ⑤ TV, 라디오 등 방송홍보			⑥ 팸플렛 또는 책자를 활용한 홍보 ⑦ 학교를 통한 홍보 ⑧ 버스 광고 ⑨ 지하철 광고 ⑩ 기타()		

C7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시 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항목	C7_1	2순위 항목	C7_2	3순위 항목	C7_3
C7_4 ↓ 해당 우선순위의 사용예정금액은 어떠합니까? 만기 시 지원금을 100%로 가정하였을 때 비중을 숫자로 표기해 주세요. [] [] [] %		C7_5 ↓ 해당 우선순위의 사용예정금액은 어떠합니까? 만기 시 지원금을 100%로 가정하였을 때 비중을 숫자로 표기해 주세요. [] [] [] %		C7_6 ↓ 해당 우선순위의 사용예정금액은 어떠합니까? 만기 시 지원금을 100%로 가정하였을 때 비중을 숫자로 표기해 주세요. [] [] [] %	
사용계획 보기					
① 교육비(본인 및 가족) ⑤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⑨ 부채 상환 ②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⑥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⑩ 특별한 목적이 없음 ③ 결혼, 상제비 ⑦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⑪ 기타() ④ 미래생활 대비(저축) ⑧ 여행 및 여가생활					

D.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자 대상 추가문항

D1 다음은 참여하셨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주시시오.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D1_1 지원 금액의 수준					
D1_2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D1_3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D1_4 위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귀하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D2 귀하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 | |
|---|--|
| ☐ ① 탈수급 | ☐ ② 3인가구 중위소득 60% (2021년 기준 2,390,370원) 초과 소득 |
| ☐ ③ 근로 지속의 어려움 | ☐ ④ 행정적 불편함 |
| ☐ ⑥ 가족의 반대 | ☐ ⑦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
| ☐ ⑧ 급히 돈이 필요해서 | ☐ 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
| ☐ ⑩ 군 입대(12개월 미만 불입) | ☐ ⑪ 압류/가압류 |
| ☐ ⑫ 기타 | |

D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 ☐ ②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
| ☐ ③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 ④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
| ☐ ⑤ 근로휴지기 횟수 및 기간 연장 | ☐ ⑥ 기타(_____) |

D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청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홍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1순위 항목	D4_1	2순위 항목	D4_2	3순위 항목	D4_3
☐ ① 포털 사이트 광고를 활용한 홍보 ☐ ② 블로그, 유튜브, SNS를 활용한 홍보 ☐ ③ 유관기관 홈페이지 (예. 온라인청년센터, 워크넷) ☐ ④ 동주민센터 홍보 ☐ ⑤ TV, 라디오 등 방송홍보		☐ ⑥ 팜플렛 또는 책자를 활용한 홍보 ☐ ⑦ 학교를 통한 홍보 ☐ ⑧ 버스 광고 ☐ ⑨ 지하철 광고 ☐ ⑩ 기타(_____)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